

제 1 일	
-------	--

읽는 범위:	창세기 1 장 ~ 11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 창조하시는 하나님
- 6일간의 창조
- \* 창조에 대한 다른 견해들 –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 유신론적 진화론  
이 모든 견해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푸는가, 상징의 의미로 푸는가에 달려 있다.  
성경 해석의 보편적 원칙 –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2차적으로 상징적으로 푼다,
- 모든 것의 시작 – 가정의 시작 – 돕는 배필
- 사탄과 인위(人爲)에 의한 선악과 사건 - 창 3:15의 약속 – 구속역사의 시작.
- 가족 웃과 신위(神爲).
- 창 3:9과 4:9에서 보는 성경적 관계의 태동 – 십계명 – 성경 영성의 출발점.
- 4장 ~ 5장: 인류의 인위에 의한 역사와 문화의 시작.  
네피림과 니므롯
-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서 읽는 신위에 의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거룩한 삶의 당위성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창 1:1 - 창조주 하나님
- 창 1:26-28 - 섭리주 하나님
- 창 2:7
- 창 2:16-17 - 3:17과 대조
- 창 2:20하-25
- 창 3:9
- 창 4:9
- 창 3:5-21 - 구속주 하나님
- 창 6:5
- 창 9:1-11
- 창 11:1-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읽었다. 그렇다면 나의 창조주이심도 고백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은 모든 것의 출발이다.
-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를 창 1:26-28 을 묵상하고 답을 찾아보라. 그것이 당신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복을 받는 길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있는가?
- 왜 가정이 주어졌는가? 창 1:26-28 의 축복이 있는 후에 가정이 주어졌다.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다. 가정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충만해 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적 가정의 원리이다.
- 창 1:27 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 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 창 2:7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 창 3:9 과 4:9 은 하나님 나라는 관계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그 출발점을 보여 준다.
- 노아 시대의 시대 징조와 오늘 우리의 시대 징조는 다를까? 노아의 홍수 기사에서 신위에 순종하여 자기의 인위,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나는 어떤가?
- 바벨탑 사건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나? 오늘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겠는가?  
나에게 바벨탑 같은 사고방식은 없는가 살펴보라.

<b>제 2 일</b>	
--------------	--

읽는 범위:	창세기 12 장 ~ 23 장
--------	-----------------

<b>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구속의 역사</b>
--

-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 수메르 문명 하에서 갈대아 지방 우르의 시대상.
- 신위에 순종했으나 인위로 판단하는 아브라함 – 그 결과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
-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품성.
-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의 역사를 본격화 하시는 하나님.
- 15장 -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요소.(하나님 나라의 요소)
- 자손 : 족장시대의 스토리 라인은 하나님 백성 만들기.
- 땅 :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영역
- 17장 7절 – 아브라함 언약의 이유와 목적.
- 주권재신(主權在神) -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 신위(神爲)
- 할례 – 언약의 징표 ; 언약 백성 되기 – 신약의 세례.
- 아브라함의 인위의 결과 - 이스마엘의 탄생 – 인류의 비극이 되다.
- 18장에서 읽는 예배의 기본 틀.
- 아들을 약속 받음 - 바른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받는다.
- 의인 10명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 이삭의 탄생과 제물로 바침 -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b>하나님과 관계 맺기</b>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창 12:1-2 – 아브람의 부르심
- 창 12:8-18 – 롯의 인위와 아브라함의 신위에 순종
- 창 15:1-16 –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 창 17:1-10 –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 하나님 나라(주권, 주되심)의 회복
- 창 18:2 – 땅에 굽혀 절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예배를 배우다.(18장 전체)
-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천기를 듣고 중보하는 아브라함.
- 창 19:26 –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
- 창 20:1-5 – 약속의 아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 창 22:1-19 – 이삭의 제물과 신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야 했는가?  
신위(神爲) =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롯과 아브라함이 초지 때문에 헤어질 때 그 상황을 대처하는 두 사람의 자세를 비교해 보라.  
롯의 믿음은 가시적인 것이다.  
내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릴 것 같은가? 왜 그런가?
- 언약의 내용을 잘 숙지 해 두라. 성경의 줄거리와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다. - 신위
- 18 장은 예배의 모형을 보여 주는 장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잘 숙지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반성해 보라.
- 19:26 에서 왜 롯의 아내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는가?  
나도 그렇게 뒤에다 미련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가?
-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의 만연함과 상관이 없었을까?  
지금의 동성애 문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배우자.  
신위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

제 3 일	
-------	--

읽는 범위:	창세기 24 장 ~ 36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야곱의 삶을 통한 구속의 역사
--

-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 하다.
  - 에서와 야곱의 출생 (BC 2006년)
  -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 인위의 극치의 삶을 사는 야곱.
  -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는가가 이 부분의 줄거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이다.
- 도망자 야곱 -
-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축복을 받다(이 루스 광야가 베델광야로 바뀐다.) -
- 외삼촌 라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야심을 채우는 야곱 -
- 하나님은 11 아들을 얻어 12 지파의 기반을 확보하게 하신다 -
- 그의 인위적 야심이 채워지자 외삼촌으로 부터 독립하는 야곱 -
- 그러나 그 독립은 야곱의 인위적 야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한 것임을 파악해야 한다(창 28:15, 창 31:13)
- 피할 수 없는 에서와의 대면을 준비하는 야곱에서 보는 인위.
  - 또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결 압복강에서의 대결 - 정체성이 바뀌는 야곱
  - 그래도 뿌리치지 못하는 그의 끈질긴 인위 - 디나의 강간사건이 생긴 후에야 바뀌는 야곱.
  - 드디어 베델로 돌아가면서 인위를 내려놓다(창 35:1-7).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창 26:1-5 -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가 곧 언약 백성임을 말함.
- 창 27:28-29 - 이삭의 야곱에게 하는 축복
- 창 28:1-4 - 구속사적 축복
- 창 28:10-20 -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응답
- 창 31:3, 13 - 야곱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
- 창 32:1-2, 7-8 - 하나님의 보호하심(신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위를 이루는 야곱
- 창 32:22-32 - 야곱의 인위를 기어코 꺾으시는 하나님, 그런 후에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다.
- 창 34장 - 끈질긴 야곱의 인위, 딸 디나의 강간 사건 후에야 온전히 바뀐다.
- 창 35:1-4 - 변화 받은 야곱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야곱의 삶은 자기 뜻을 이루려는 인위의 극치의 삶을 사는 모습을 읽었다.  
그 인위의 끈질김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인위를 내려놓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그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 창 28:15 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야곱에게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약속의 축복은 모든 자에 다 유효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 4 일	
-------	--

읽는 범위:	창세기 37 장 ~ 50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요셉의 삶을 통한 구속의 역사
---

- 야곱 일가가 헤브론에 거주한다.
- 꿈꾸는 자 요셉 -
- 꿈 1 : 절하는 곡식 단
- 꿈 2 : 절하는 해와 달과 11 별
-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간다. (도단에서 팔려 감)
-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없어 보이는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
- 형사취수제(신 25 : 5-10)
- 구속의 역사에서 자손의 대 이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 다말 – 예수님의 족보
-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신임을 얻는다.
-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 죄수로 전락.
-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다.
-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하다 – 7년 풍년 후 7년 가뭄.
- 그 위기관리를 위해 총리대신이 된다(BC 1885).
- 야곱의 70인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하고 – (BC 1876년)
- 목축업을 종사하며 고센지방에 정착.
- BC 1860년 야곱이 죽다.
- BC 1805 요셉이 죽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창 39:2-3
- 창 39:9 – Coram Deo의 삶을 보여 주는 요셉.
- 창 39:20-23 –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고난 중에도 형통하는 요셉.
- 창 45:5-8 –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 받음을 알고 있는 요셉.
-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
- 창 46:2-4 – 야곱의 일가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
- 창 50:18-21 – 신위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족장시대의 4 명의 족장 중 야곱을 제외한 모두는 신위에 인위를 순종시키는 삶을 살았음을 보았다. 요셉은 일상의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행하듯 하는 삶을 살았다. 당신의 삶은 어떤가?
- 요셉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계획을 읽을 수 있는가?
-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셨음을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제 5 일	
-------	--

읽는 범위:	출애굽기 1 장 ~ 1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모세를 세우고, 재앙으로 역사하시다

- 창세기 50장 요셉의 죽음(BC 1805)과 출애굽의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기 까지는 360년이 경과하고,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이주한 해(BC 1876)로 부터 출애굽까지(BC1446)는 430년이 경과한다.
- 모세를 세우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왕자 모세 – Somebody의 시대.  
목자 모세 – Nobody가 되는 시대.  
선지자 모세 – None으로서의 삶. -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모세를 부르시고 이름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
-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고 명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교육시키고 바로를 제압하며, 애굽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출 2 ~ 3장 –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

출 3:7-10 –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출 6:2-8 –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이유.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모세의 생애를 연단시키는 하나님. 연단의 핵심은 모세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신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어떤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는가?  
나는 누구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
- 하나님은 왜 재앙을 10 가지나 내리시는가?
-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하신다. 내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가?

제 6 일	
-------	--

읽는 범위:	출애굽기 13 장 ~ 25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다.**

-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의 수장은 이스라엘 아이들을 나일 강에 수장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응징),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 싸워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 신위의 하나님을 만나라.
-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오합지졸을 조직화하기 시작하다.
- 드디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시내산 언약
  - 1) 소속의 변화
  - 2) 제사장 나라
  - 3)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한다. 그 지킴의 기준은 십계명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전초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임재 하신다.
- 출 24장에서 언약의 조인식을 거행한다.
-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다. - 출 25:8 - 성막을 주신 이유. 그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하시고 인간이 시공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출 13:21-22 -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 14:10-25  
 출 15:1-3  
 출 15:26  
 출 16:16-21  
 출 19:4-6  
 출 20:1-17  
 출 23:20-33 :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출 19: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출 14 장 ~ 17 장 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업고 가심을 알고 있는가?
-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 십계명의 역할은?
- 19 장의 시내산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얻을 수 있다.
- 성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라 – 출 25:8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에덴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섭리주,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라.
- 성막의 설계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신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제 7 일	
-------	--

읽는 범위:	출애굽기 13 장 ~ 25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

-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28 ~ 31장.
-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 Immanuel.
-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 에덴,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는 성도(고전 3:16) 새 하늘과 새 땅.
- 성막의 설계를 친히 주시는 하나님 –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 신위(神爲)
- 성막,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야 한다. – 예배의 정신  
예배의 정신과 성막의 기구의 의미.  
1. 문, 2. 놋제단, 3. 물두멍, 4. 성소 문, 5. 떡상, 6. 등잔대, 7. 금 향단, 8. 휘장, 9. 지성소, 10. 법궤(시온좌)
-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 예배 – 32장의 금송아지 예배.  
딤후 4:3-4에서도 볼 수 있는 자기 충족, 만족의 인위(人爲)를 이루는 예배의 전형 –  
현대 교회에 유행하는 예배 –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예배.
- 인위의 예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 모세의 간구에 두 번째 돌판(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완공하다. - 신위(神爲)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출 26:8

출 29:42-46

출 31:12-17

출 32장 –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 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출 34:10-17

출 39 장 40 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더라”의 구절을 유의하라.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그 분을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성막의 설계를 주시고, 기구를 주시고, 그 배치를 친히 해 주심을 알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찾을 수 있다.  
(참고 : 참 예배는 롬 12:1-2 의 예배이지만, 공중 예배의 모형과 정신은 창 18 장, 레 8 장 사 6 장에서 찾을 수 있다.)
- 출 32 장의 금송아지 예배는 인위로 드리는 예배의 극치이다. 신위로,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가운데 이 금송아지 예배 사건은 신위, 즉 그 분의 방법을 무시하고 인위로 즉 인간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그런 모습이 과연 없는가? 우리의 예배는 성막이 보여 주는 신위의 예배인가? 우리는 지성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그 지성소에 마구 들어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도 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곧 금송아지 숭배자들의 모습이었다. 지성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이 아닌 인위의 방법으로 들어가면 즉사한다. 신위의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창 18 장, 레 8 장, 사 6 장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3 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배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 회개와 용서의 확신 - 말씀의 선포 - 결단과 삶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것은 인위의 예배이며,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 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몸중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 시키는 죄악이다.  
- 딤후 4:3-4 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예배를 깊게 반성해 보라. 과연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가?

제 8 일	
-------	--

읽는 범위:	레위기 1 장 ~ 10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거룩.
--

- 레위기의 시간 – BC 1445년 1월 1일 ~ 2월 20일 : 십계명 교육기간
- 시내산 언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레위기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인 십계명의 각론이다.
- 레위기의 Key 구절 11:45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수직적 거룩), 그리고 이웃과의 거룩(수평적 거룩)에 관한 규례들을 말해준다.
- 1 ~ 11장은 수직적 거룩에 관한 규례. – 제사 제도
  1. 번제 – 제물을 다 태워 올려 드리는 제사 – 자기중심성을 온전해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2. 소제 – 곡물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 – 자기희생과 봉사의 정신의 표현이다.
  3. 화목제 –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나누어 먹음 – 나눔과 감사의 정신
  4. 속죄제 – 회개와 자백의 제사 –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제사
  5. 속건제 – 손해 보상을 위한 제사 –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
- 제물을 가다듬는 일은 제사자의 몫이다  
각을 뜯다 - 내 몸 전체가 부서진다.  
내장 – 내 마음과 뜻, 나의 온 정성  
머리 – 내 생각, 사상, 가치관  
기름 – 생명  
-> 이런 것 들을 태운다는 것의 의미 ;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하) – 자기중심성 내려놓기.
-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어떻게 죽고 각이 떨어지는가를 유의하고, 죄인인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런 죽음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는다.
- 우리의 자아가 그 제물들처럼 각이 떨어져 매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읽는다,
- 8장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은 예배의 예식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레 8장 – 제사장 위임예식을 통해서 보는 예배의 근간과 정신
- 레 10:1-2 – 인위에 대한 신위의 진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5 대 제사의 각 종류가 갖는 의미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그런 정신이 있는지를 반성해 보라.
- 제물을 다듬는 것에 부여된 의미를 묵상하라. 그 행위는 비록 짐승이 대신해 주는 것이지만 내가 당해야 할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꼭 같음을 명심하라. - 바울이 한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 하). 이와 같이 날마다 나의 자기중심성을 신위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이다(롬 12:1-2).
- 레 10:7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묵상하라.  
이 사건은 신위 즉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중한 것인가를 확연히 보여 준다.  
인위를 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삶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거룩”은 구별되다는 말이고 그 구별은 “하나님 방법”이 기준임을 명심하라.



제 9 일	
-------	--

읽는 범위:	레위기 11 장 ~ 27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거룩.
--

- 레 1 ~ 10장 :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 레 11 ~ 25장 ; 이웃과의 관계
- 레 16장 : 속죄일(Day of Atonement)의 규례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
- 레 23 ~ 25장 : 각종 절기 – 여호와와 행하심을 기억하기 -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 레위기 26장 : 서약서,
- 27장 부록
  
- Thomas Aquinas의 율법의 분류
  - 1) 의식법 - 제사법, 성결법 –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물로 완성된 법.
  - 2) 시민법 – 민법, 형법,..등 시민 생활 질서와 관계되는 율법 – 문화에 따라 유동적 성격.
  - 3) 도덕법 – 십계명 – 백보좌 심판까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  
현재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 법.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레 11:45 – 레위기를 푸는 Key 구절.
- 레 16장 – 대속일의 규례 –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
- 레 19장 - “거룩”에 대한 강조.
- 레 26 장 – 서약 - “지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성은 무엇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성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 제사의 핵심도 이 거룩성의 회복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
- 레 26 장의 서약의 핵심은 지금까지 주어 진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함"에 있다.  
그 "지켜 행함"이 곧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이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서약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마음에 새겨 명심하라.

제 10 일	
--------	--

읽는 범위:	민수기 1 장 ~ 14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훈련
---

- 민수기 –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이룬 백성이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또 다른 약속인 땅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광야 생활 기록이다.
- 1차 인구 조사 –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 603,550명으로 계수 – 가나안 땅 전투를 대비.
- “계통별로 신고하매”(민 1:18)의 의미는 애굽을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섞여(출 12:38상) 나왔음으로 이를 정리해서 순수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했다.
- 2장 - 성막을 중심을 하는 진영 짜기 – 하나님 백성 – 전투하는 교회의 모형 -  
그 진영의 밖은 이방
- 3장 -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책 확립. 초태생의 헌납 – 유월절에 근거를 둬
- 5장~8장은 레위기의 연장.
- 나실인 법
  - 1)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 2)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 3)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 출애굽 제2년 정월에 성막을 완성하고 약 50일 동안 레위기로 법을 받고 배운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해(BC 1445) 2월 20일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대망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개시한다. 시내산에 머문지 11개월 5일 만이다.
-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 정탐 팀을 파견(12지파의 각 대표 1명씩 모두 12명)  
정탐 보고 – 메뚜기 신드롬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민 2:32-34 – 인구조사의 완료 – 여호와의 명에 합당함
- 민 6:1-8 – 나실인의 법 – 구별된 삶의 전형
- 민 9:15-23 – 신위에 순종하는 백성
- 민 13 장 – 정탐의 결과 – 메뚜기 신드롬 (13:25-33 : 신위와 인위의 충돌 사건)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불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 델까? 자기중심성의 문제와 연관해서 깊이 묵상하라.
- 1 장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18 절 하반절에 “..자기 계통대로 신고하매”의 구절을 묵상하라.  
수많은 섞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가려 하나님 백성의 구별성을 지키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별은 하되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
- 6 장 나실인의 법을 묵상하고 나도 나실인처럼 하나님 방법에 의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 민 9:15-23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읽는다.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가?
- 민 11 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탐욕 - 자기중심성
- 민 13:30-33 은 정탐꾼 중 10 지파 대표들의 정탐보고서이다.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생겼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는 10 지파의 보고를 읽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나? 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기중심성 -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은 엄청난 반역사건이다. 반역은 내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가복음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인위로 신위를 누르고자 하는 것이 곧 반역이다.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제 11 일	
--------	--

읽는 범위:	민수기 15 장 ~ 27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훈련
---

- 가데스바네아의 반역사건 –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1세의 광야에서 죽음 - 37년 6개월간이 광야 유배.
- 15장 ~ 20장 – 광야를 유배하는 삶을 보여 준다. - 일정한 목적지로의 이동이 아니라 배회였다. 1세들이 죽기를 기다린 것이다. - 14장에서의 패역한 1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 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 -
- 14장 과 16장 사이는 38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 이 와중에도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 그럼에도 이들은 할례 행사가 없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 16장 –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
- 17장 – 아론의 싹 난 지팡이
- 18장 – 레위인의 직무
- 19장 - 백성들의 공중위생에 관한 규례
- 20장 –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 갈 특권을 놓치는 모세
- 21장 – 놋뱀사건
- 22장 ~ 24장 - 발람 이야기
- 25장 – 음행사건
- 26장 – 제 2차 인구조사
- 21 장 ~ 36 장은 가나안에 들어 갈 새 세대의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여정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민 14장 – 가데스바네아의 반역 사건 – 하나님의 진노
- 민 14:20-25
- 민 15:37-41 –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는 복음
- 민 21:4-9 – 놋뱀 사건
- 민 24:4-9 –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민 14:11-12 의 하나님 마음을 묵상하라.  
나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를 살펴보라.
- 18 장의 제사장 직분을 읽고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라.
- 왜 불 뱀을 없애지 않고 뱀을 만들어 달고 그것을 보게 해서 구원하시는가?
- 발람의 사건은 하나님은 영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해 준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주인이신가?

제 12 일	
--------	--

읽는 범위:	민수기 28 장 ~ 36 장, 신명기 1 장~3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훈련
---

- 여자에게도 상속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 절기 지킴을 강조하여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 1차 땅의 정복을 시도 –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
- 애굽에서 출발하여 지금 모압까지 도착한 여정을 회상하다.
-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다.
- 동태복수법에 의한 억울한 보복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 가나안 땅에 들어 갈 출애굽 2세들에 대한 교육 - 언약의 갱신

- 1 ~ 11장 : 광야의 방랑을 회고
- 12 ~ 34장 :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의 소망과 비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민 27:12-20 –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다(BC 1405)

민 33:50-56 –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라.

신 1:31-33.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전쟁으로 남자가 없어진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평등을 강조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
- 절기 지킴을 유독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  
“저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럴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
- 도피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라.



<b>제 13 일</b>	
---------------	--

읽는 범위:	신명기 4 장 ~ 18 장
--------	----------------

<b>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언약 갱신 ①</b>
---

- ☞ 1장 ~ 11장 : 출애굽해서 모압까지 오기까지의 하나님이 돌보심을 회상하다.
- 4장에서 유독 “지키라”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근거이다.  
기독교는 삶이다.
- 가나안 땅에 들어 갈 2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강의 한다. 십계명이 곧 지켜 행함, 즉 구별된 삶(관점 3)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 7장까지 여호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와 경고
- 8장에서 여호와를 잊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그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시다.
- 9장에서 광야에서의 불순종한 일을 회상하고, 10장에서 여호와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은 “순종”임을 강조한다.
- 11장 – 삶의 현장에서 내릴 축복과 저주 –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 ☞ 12장~16장까지에서 예배 처소를 정해 주고 절기 지침을 가르치는 것은 곧 성막의 의미와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 14:22-29 – 십일조의 규정
- 15장 – 안식년과 초태생의 규례
- 16장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오순절), 초막절(장막절)
-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의 자격 요건을 말해 준다.

<b>하나님과 관계 맺기</b>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신 4장 ‘지켜 행하라’라는 의미의 구절을 유의하라. - 4:24-40
- 신 5장 – 십계명 강의 - 5:32-33을 잘 명심하라.
- 신 8:11-20 –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 신 10:12-13 – 여호와가 요구하는 한 가지,
- 신 11:8, 16-17, 22-28 –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 신 17:14-20 – 왕의 자격 요건.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 갈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책이다. 그것이 곧 성경적 삶,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성경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변화는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로부터 온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과 함께 잘 묵상해 보라.

- 8장에서 어떤 환경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는가?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환경인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 14 장 22-29 에서 말하는 십일조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제 14 일	
--------	--

읽는 범위:	신명기 19 장 ~ 34 장, 시 90.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백성의 삶 – 언약 갱신 ②
--

☞ 오늘 읽는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들이다.

- 신 19장 ~ 22:4 - 그 땅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민법적 규례를 주시다.
- 신 22:5 ~ 23:18 -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 - 선민(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 신 23:19 ~ 25:19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
- 신 27장 ~ 28장 - 축복과 저주.
- 신 29장 ~ 30장 - 역사를 다시 회고하다. -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상기하여 “지켜 행함”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다.
- 신 31장 ~ 32장 모세의 노래.
- 신 33장 -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cf 야곱의 지파축복 창 49장)
  - 축복의 핵심 - 바른 관계 1, 수중에 있고(3절), 2 발아래 있고(3절), 3 어깨사이에 있고(12절), 4 영원하신 팔에 있다(27절)
- 신 34장, 모세의 죽음.
- 시편 90편 - 모세의 시편 - 삶을 회상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신 19 :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동태복수에 의한 억울한 복수를 막으시는 하나님  
 신 20:1, 4 -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신 24:19 - 이삭줍기의 규례에서 보는 이웃 사랑  
 신 25:5-6 - 형사취수제도  
 신 26:10-13 - 십일조의 정신  
 신 26:16-19 - 하나님의 거룩한(구별된) 백성이 되는 길  
 신 27:11-26 - 에발 산에서 선포하는 저주.  
 신 28장 - 축복장이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이다.  
 신 29장 - 시내산 언약의 갱신  
 신 30장 - 언약 지킴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고 그것이 곧 복 받는 길이다.  
 신 31:3 -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 - 수 5:13-15  
 신 31:10-11 - 성경 통독의 중요성.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20 장에서 보여 주는 전쟁은 신약적 개념으로 영적 전쟁이다. 영적전쟁 자체를 인정하는가? 즉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사실 이 전쟁은 선악과 사건 때부터 시작된 전쟁이고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라고 부른다.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여호수아처럼 그 작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가?
- 22 장~25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묵상해 보라.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라.
- 27 장과 28 장에서 에발산과 그리심 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 받는 길은 “지켜 행함”에 있음을 모세는 유난히 강조한다. “지켜 행함”이 없는 삶은 야고보가 말 한 것처럼 “죽은 믿음”, 즉 입술로만 말하는 종교행위라는 것이다. 순종은 “지켜 행함”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 Immanuel
- 신명기 33 장: 12 지파의 축복 기사를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몸으로 그들을 보호하는가를 묵상하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엄청난 은혜이다.
-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묵상하라.  
1. 왕자 모세 2. 목자 모세 3. 선지자 모세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장엄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제 15 일	
읽는 범위:	여호수아 1 장 ~ 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 여호수아서

구조 : 1-5장 정복준비, 6 – 12장 정복전쟁, 13 – 24장 분배와 유언

☞ **아브라함 언약의 땅의 약속을 실천 – 가나안 정복 전쟁-아브라함 언약 중 땅의 약속의 실현**

-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 2가지 이유 - 1. 땅의 약속, 2. 아모리 족속의 심판(창 15:7-21)
-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자 하는 여호수아 – 정탐꾼을 보내고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음.
- 요단강 도하 작전에 법궤를 앞세우는 전투대열 – 신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 – 홍해의 갈라짐과 유사.
- 12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로 기념비를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 도하 후 길갈에 세우다.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신앙을 재정비하는 이스라엘.
-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여호수아 - (출 23:20-23, 출 32:34,31:3 – 우리의 고난에 언제나 먼저 오시는 하나님) – ‘신발을 벗어라’는 명령을 받는다. – 작전권을 이양하다. -  
인위를 신위에 내려놓기 – 진정한 순종.
- 작전권을 이양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시시를 받는다.  
–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비결
- 이와 대조로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 전투의 패전 – 인위가 저지른 결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수 1:5-9 – 여호와가 함께하면 어떻게 되나?
- 수 3:6-17 – 언약 백성의 전투 대열 (역대하 20장에 찬양대를 앞세운 전투대열 참조)
- 수 5:13-15 – 작전권 이양을 요구하는 하나님  
(역하 20:15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역하 20:20-22 여호사밧과 아람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운 전투대열)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수 1:5-9 과 창 28:15 에서 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 하심"이다. 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순종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나는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 이스라엘의 법궤를 앞세운 전투대열(대하 20 장에서 찬양대를 앞세운 전투대열)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 준다. 오늘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수행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에게 작전권을 이양하듯(신발 벗음) 나의 영적 전쟁에서 그 작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는가? 신위 앞에 인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 놓아야 한다. 내 가치관,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 5:13-15 에서 작전권을 이양하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 작전을 지시한다. - 수 6:1-5  
여리고성은 누구에 의해 무너졌는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너진 것이다.
- 아간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의 유사성 - "보고, 탐나서, 가졌다." (7:21) -  
見物生心 + 自己中心性  
한 개인의 죄가 집단을 오염시켰다.
- 9 장 :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에 넘어 간 여호수아의 실수는 인위의 산물이었다.  
이미 진멸하기를 실패할 징조를 보이는 것이다. - 진멸 = 구별된 삶(관점 3)

제 16 일	
--------	--

읽는 범위:	여호수아 13 장 ~ 24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

-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다. - 수 13장 -18장
- 도피성을 마련하다 - 수 20장
- 레위지파 자손에게는 땅의 분배가 없고 48개 성읍으로 파견한다.  
각 지파 4개 성읍씩 모두 48개의 성읍이다. (21장)
- 땅의 점령과 분배를 종료하고 정복 전쟁에 참가한 동쪽 정착 지파를 돌려보내다(22장)
- 여호수아의 유언(23~24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은 말씀 위에 이루어 가는 삶이다.  
여호수아가 110 세에 죽다 - BC 1390 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수 13:1 – 늙기까지 비전을 버리지 않았던 여호수아  
 수 13:2-7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 정복하지 못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고충이 되다.  
 수 23:3-16 수 24:14-16;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수 13:1 의 묵상 - “노인도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수 14:6-15 갈렙의 당당함을 묵상하라. 히 6:12 이 말하는 갈렙의 믿음을 참고하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라고 하였다.

- 여호수아의 유언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묵상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과 분배의 목적은 여호와를 “주(主)”로 섬기기 위함이다(하나님 나라 – 관점 2)

‘섬기다’의 동사가 여호수아 22-24 장에 무려 19 번이나 나온다. 이 섬김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데려 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인도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의 진정한 성경적 이유는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라.

- 사사기 1 장에서 언급하기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무엇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 출 23:20-33, 신 7:1-11,16, 수 23:5-13

- 왜 그것을 쫓아 내는 것이 중요한가? 왜 실패했을까?

- 가나안은 안식의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삶의 현장이다. 우리가 진멸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멸 당한다. 성도여 어쩔 것인가?!

성도의 삶은 세상문화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워야한다. 그것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이다. 삶이 곧 문화이며, 문화가 삶이다.

나의 삶은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시 119:28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제 17 일	
--------	--

읽는 범위:	사사기 1 장 ~ 1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실패한 하나님의 Utopia(구약의 비극)
--

☞ 사사시대 – 하나님의 Utopia 건설의 실패의 역사

• 사사기의 간략한 구조: 1 장 ~ 16 장 – 사사들의 활동, 17 장 ~ 21 장 : 총체적 난맥상.

\*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Utopia 를 이루는 시기이기를 원하셨다(에덴의 회복). 즉 말씀위에 세워지는 삶이 영위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 하나님의 Utopia 건설의 실패는 “쫓아내지 못함”에 있었다. -  
“쫓아내지 못함”이 1 장에서 9 번이나 나온다.

무엇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 출 23:20-33, 신 7:1-11,16, 수 23:5-13

왜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왜 실패했을까?

• 하나님의 Utopia 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사기는 “쫓아 내지 못함”으로 섞이게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 사사기의 패턴: 범죄 – 압제 – 간구 - 구원의 순.

• 3 장 ~ 14 장 계속되는 반역에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

웃니엘 – 초대 사사, 갈렙의 조카, BC 1330 년경에 등장 메소포타미아 왕 수산을 무찌름.

에훗 - 모압 왕 에글론을 무찌름. 삼갈 -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 명을 쳐 죽이다.

여사사 드보라 - 가나안의 야빈(그의 장군 시스락의 죽임을 통해)을 무찌름. 기드온 – 300 명의

정예 부대를 선발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무찌름. 돌라와 야일 – 대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입다 –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무찌른다. 성급하고 경솔한 약속으로 딸을 희생 재물로 바치게

된다. 입산, 엘론, 압돈 – 특정한 대적자의 기술이 없다. 삼손 – 블레셋을 격파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삿 1장 – 점령하기를 실패함으로 사사 시대의 난맥상의 원인이 되다.

삿 2:11-23 –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다. -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

삿 3:6 – 섞임의 문제

삿 6:17-40 - 기드온의 신앙

삿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삶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삿 3:6 은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신 7:1-11, 수 23:5-13 을 같이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묵상하고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떤가를 반성해 보라.
- 각 사사들의 삶을 요약해보고 그들이 얼마나 신위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가를 묵상해 보라.
-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할까?  
(cf. 삿 21:25)

제 18 일	
--------	--

읽는 범위:	사사기 13 장 ~ 21 장, 룯기 1 장 ~ 4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실패한 하나님의 Utopia(구약의 비극)
--

- 삼손의 품성 -1)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2) 정욕과 씨름한다. 3)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4) 규칙을 깨뜨린다. 5) 자기 과시가 강하다. 6)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7)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 8) 자아가 강하다. 9) 어리석은 모험을 잘 한다.  
 10) 친밀한 관계가 없다. 11) 모든 것은 당연히 한다. 12)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마크 애테베리 목사 '삼손 신드롬'(이레서원 2005)

이런 품성 때문에 삼손은 비극의 인물이 된다.

- 17장~21장 – 레위인들의 방황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  
 17장 – 미가의 신상의 제사장이 되는 레위인  
 18장 – 미가의 신상을 훔치는 단 지파  
 19장 ~ 21장 –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 첩의 죽음으로 인해 내전이 일어나는 혼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한 사건

- ✚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한줄기 빛을 보여 주는 룯기.
- 암흑시대에 빛을 찾아 살아 간 한 가정의 이야기(룯 1:21)
- 룯기를 이해하기 위한 3가지 성경적 풍습  
 1) 이삭줍기(레 19:9-10) 2) 기업 무르기: 고엘(레 25:25). 3) 형사취수법(신25:5-10)
- 소통의 인물, 유력한 자, 보아스 - 룯의 가정의 고엘이 되다. -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삿 17:6, 21:25 –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cf 잠 16:9,33 시 37:5)
- 삿 17:13 - 전형적 기복신앙
- 룯 1:21 – 나오미 일가의 이민 성격
- 룯 2:1-11 – 보아스의 품성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삼손의 품성을 읽고 나의 품성과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성경적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 사 17 장~21 장에서 레위인들의 정체성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파악하라.  
역사적으로도 그 시대를 주도하는 종교 또는 시대정신이 타락할 때 그 사회는 함께 부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인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이 사사시대의 레위인들과 정녕 다른 모습인가? 종교인이 부패하면 그 사회는 망한다.
- 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란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 우리는 어떤가? 어떻게 그 우상숭배를 타파할 수 있을까 -  
(cf 시 115 편)
- 왜 롯기, 특히 나오미 가정의 삶의 모습이 사사시대의 암흑 같은 시대의 한줄기 빛과 같은 삶이었나? 그 시대는 왕(하나님, 신위)이 없어 각자의 소견대로(인위) 행했다는 것과 롯의 가정의 율법 지키는 삶과 대조해 보라. 오늘 나의 삶을 어떤가?
- 보아스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독교는 관계 종교임을 파악하라.

제 19 일	
--------	--

읽는 범위:	사무엘상 1 장 ~ 16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전환기와 통일 왕국 시대
--

✚ 전환기의 인물 사무엘

-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 종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다.
- 무능한 당시 제사장 엘리와 행실이 나쁜 그이 아들 – 저주가 임하다
-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홉스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앞세우고 그 신통력을 이용하려 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떨어져 죽는다. (4장)
- 법궤를 빼앗아 승리했다고 착각한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의 신 다곤(Dagon)이 승리한 전리품이라 여기고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두지만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모두 부셔지고 넘어져 법궤에 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호와가 스스로 승리하시는 모습이다.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린다. 법궤가 돌아온다. (5장)
-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각성 집회를 가지다. - 에벤에셀의 하나님. (7장)
- 주변 정세와 국내 정세의 불안함으로 왕을 요구하고,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고 통일왕국의 첫 왕이 된다. (11장)
- 사무엘이 은퇴하다. (12장)
- 사울이 초심을 잃고 인위에 빠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3가지 실수를 저지르다.
  - 1)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다. 2) 금식령을 내렸다 슬그머니 풀어버리다.
  - 3)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불순종하다(반역). (13장 ~ 15장)
-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하고(16장), 다윗이 치료하다(시편 23편)
-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16장)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삼상 2:1-10 – 한나의 기도 - 마리아 찬가에 영감(靈感)을 주다.  
 삼상 5:1-6 – 빼앗긴 법궤에서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삼상 7:1-6, 12 – 미스바 대 각성 집회.  
 삼상 12:1-4, 14-17, 20-25 – 사무엘의 은퇴사  
 삼상 13:8-14 – 사울의 실수 1  
 삼상 14:24-27 – 사울의 실수 2  
 삼상 15:3-9 – 사울의 실수 3 –결정적 실수

---

삼상 15:12 –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 인위 - 사울의 품성

삼상 15:22-23 – 순종을 강조하다.

삼상 15:30 – 사울의 회개 자세

시편 23 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 법궤에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자세는 무속적이다.  
우리도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무슨 신통력처럼 생각하는 무속적 자세는 없는가?
- 사무엘의 은퇴사(삼상 12 장)를 깊이 묵상하라. 나도 그런 은퇴사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 사울의 실수에서 무엇을 반성해 볼 수 있는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음을 확실히 보았다. 나의 "내가복음"(자기중심적 세계관, 가치관)은 성경을 뛰어 넘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삼상 15:30)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회개의 자세는?
-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 (창 1:1, 창 1:26-28, 창 2:16)  
이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 한나의 기도(삼상 2:1-10)를 깊이 묵상하고 그 기도의 정신과 마리아 찬가가 어떻게 맥이 같은가를 살펴보자.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제 20 일	
--------	--

읽는 범위:	대상 9:35~10 장, 삼상 17 장~21 장, 시편 59,56,34, 삼상 22 장, 시편 52 편, 삼상 23 장 시편 63, 삼상 24 장, 시편 57,142,54, 삼상 25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왕국시대 - 사울 이야기 - 다윗의 등장
---

- 역대기는 유다왕국의 역사를 주로 기록한 역사이고, 다윗왕의 중요성 때문에 사울왕까지의 역사는 족보로 처리한다.
- 골리앗의 군장과 다윗의 무기:  
골리앗의 키 6규빗 한 뼘 - 1규빗 = 45.6cm x 6규빗 + 13cm(한 뼘) = 280 ~ 290 cm  
갑옷 5000세겔, 1세겔=11.4g 5000 x 11.4 = 57kg.  
창칼 600세겔 600 x 11.4g = 6.8kg  
다윗의 무장: 돌 5개와 물매(삼상17:40) + 여호와 하나님(삼상 17:45,47)
-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인기가 사울을 능가하게 된다. - 삼상 18:7
-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친구가 된다.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음에도...  
결국 다윗은 사울의 질투를 피해 도망자가 된다.
- 다윗이 도망 다니며 쓴 시편들을 이런 배경으로 읽는다. - 훨씬 생동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
- 시편의 특징 중 하나는 성경의 66권 중 65권은 상의하달(上意下達)의 형식이나  
시편은 하의상달(下意上達)의 모양으로 쓰여진 책이다. 곧 우리의 기도문이라고 여기면 된다.
- 사무엘이 생을 마감하다 - 삼상 25장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삼상 17:45,47 - 여호와와 신위를 무기로 삼는 다윗의 신앙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이다. 나의 기도로 읽으라.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골리앗의 거구를 맞서 싸우는 다윗의 담대함은 여호와의 능력, 곧 신위를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으로부터 나온다. 삼상 17:45, 47 을 깊이 묵상하라.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
- 18:6~16 에서 사울의 질투를 유의하라. 질투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가장 더럽고 무서운 품성이다. 스스로를 죽이는 악한 기질이다. 나는 이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가? 해답을 다윗의 사울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보라(다윗의 시편에서 그의 품성을 찾아라. 삼상 24 장 다윗의 태도에 답이 있다).

24:6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으로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도 같은 것이다.



제 21 일	
--------	--

읽는 범위:	삼상 26 ~ 31 장, 삼하 1 장, 시 18 편, 삼하 2 ~ 7 장
--------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 이야기

-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 주는 다윗.
-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사울의 자기중심적 삶
- 아말렉을 치면서 신위에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삼상 30:8)
- 사울이 자결하고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오히려 슬퍼하는 다윗.(BC 1010)
- 원수의 손에서 벗어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시 18:16-24)
- 다윗이 왕위에 오르나 첫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린다,
-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법궤를 옮기는 다윗 – 웃사의 죽음 – 어깨에 메어야 한다.
- 삼하 2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사울파와 다윗파의 싸움이고,  
남북왕조의 분열의 조짐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 삼하 7장 – 다윗 언약장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시편 18:16-24

삼하 7 장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며 사울을 살려 준다. 다윗이 질투의 갈등을 해결하는 품성이다. 용서와 이해, 참으로 귀한 덕목이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애도하고, 그 가족을 돌보는 다윗의 품성을 묵상하라,
- 삼상 28:3-15 에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상담 받기를 원하는 사울의 모습과 삼상 30:8 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신위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서 묵상하라.

제 22 일

읽는 범위: 대상 11 장 ~ 15 장, 시편 8,19,29,65,68,103,108,138 편, 대상 1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의 통치

- 역대기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이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 다윗의 위용을 보여 주려고 한다. - 열두지파를 모두 통제하는 위용을 보인다, - 삼하 1~8 장과 중복되는 부분.
- 다윗의 업적을 언급하며 법궤를 옮긴 것을 기록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것을 기록한다.
- 이어지는 시편은 법궤를 옮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다.
- 16장 – 첫 찬양대를 구성하다. - 최초의 지휘자 - 아삽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시편 8편

시편 19편 (1-4절 하이든의 Oratorio “천지창조” ‘하늘이 말한다’의 가사.)

시 65:4 – 복이란?

시 103편

시 108:12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역대상 13:10. 웃사가 죽임을 당한 이유를 대상 15:13 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여호와와 규례를 여호와와 방법대로 지킴이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신위에 자기중심성의 인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임을 명심하라. 하나님 방법대로.....

• 대상 14:10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을 묵상하라. 성경은 인간은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위를 신위에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이고,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레위기 26 장, 신명기 28 장에서 유독이 “지켜 행하면”을 강조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라.

제 23 일	
읽는 범위:	시편 96,105,106,39,62,50,73,74,75,76,77,78,79,80,81,82,83,88, 대상 17 장, 삼하 8-12:15(상)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 정권	

- 이어지는 시편은 다윗의 감사 찬양 부분이다.
- 시 96은 대상16:31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찬양함의 연장선상의 시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부분이다. - 관점 2 - 언약이 이루어짐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특히 96:10-13에서 열방을 향한 여호와와 통치와 종말론적 심판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찬송한다.
- 시 105편도 여호와와 통치를 노래한다. 구속의 역사를 노래한다.
- 시 196편도 같은 맥락이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스토리라인을 노래한다.
- 시 39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는 다윗의 회개 기도이다.
- 시 62편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다가 오시는가를 살펴보게 해 주는 시이다.
- 시 50, 73~83은 아삽(다윗의 찬양대장)의 찬양 시이다.
- 삼하 11 장 – 다윗의 밋세바 간음사건 – 다윗 생애의 전환점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시편 96

시 105편

시 106편

시 39편

시 62편

시 78 편 : 구속의 역사를 요약하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는 것을 노래한다.

삼하 8:6,14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다윗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며 신위를 찬양한다. 그의 노래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노래한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39 편의 다윗의 회개를 읽으라. 4 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라.

제 24 일	
--------	--

읽는 범위:	시 32,51, 삼하 12:15(하)-15 장, 시 3 편, 삼하 16:1-14 절, 시 7 편, 삼하 16:15-20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 정권
---

-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은 간음 사건을 회개한다.  
다윗의 이 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살인교사죄에다 왕으로서 저지른 범죄라 그 심각성이 크다. 요즈음으로 말하면 탄핵감이다.
- 다윗의 회개는 즉각성에 있다가 보다는 철두철미성에 있다. (삼상 15:30 사울의 회개)
- 밋세바와의 사이에 첫 아이는 죽고 둘째로 솔로몬이 태어난다.
- 간음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10) 대대로 집안의 난리가 일어난다. 왜 칼의 심판이 임했을까?
- 삼하 15 장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도망자가 되는 다윗. -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궤를 악용하지 않으려는 다윗(대조: 법궤를 앞세워 싸웠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 시 3 편의 배경은 삼하 15 장이다. 압살롬을 피해 다니며 쓴 시이다.
- 시 7 편의 배경은 삼하 16:5-11 에 나오는 시므이의 다윗의 저주가 배경이다.
- 압살롬이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뺏고 입성하며, 후새가 위장 전향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시 32 - 회개의 심각성
- 시 51 - 철저한 다윗의 회개
- 시 3 - 도망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 시 7 - 시므이의 저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시편 32 편, 51 편에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과 삼삼 15:30 에서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라.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 느낌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이다. 나에게 그런 회개가 있었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체험했는가?
- 다윗의 간음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서 살인 교사죄까지 확대된 것이고, 그것도 왕으로서 저지른 죄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각하다. 삼하 12:10 하반절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 하리라..”라고 했다. 왜 칼의 심판이 임했을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 도망자가 되는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라.

시편 3 편과 7 편은 이런 배경으로 읽고 묵상하라.

## 제 25 일

읽는 범위: 삼하 21-23 장, 대상 18-20 장, 시 60 편, 삼하 24 장, 대상 21 장, 시 4,5,6,9,10,11,12,13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의 마지막

- 21 ~ 24장은 다윗 왕국에 대한 부록의 성격을 띤 기록이다. 시간 흐름의 순서보다는 다윗의 왕조 전체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 21장은 사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도왔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 22장은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 찬송이다.
-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다윗을 도왔던 용사를 기록하고 있다.
- 이 부분의 역대기의 기록은 다윗의 용맹성을 부각시키는 사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 삼하 24 장과 역대상 21 장은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자기의 힘에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삼하 22장 -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기도.

삼하 23:1-7 - 다윗의 마지막 말

###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삼하 22:21-33 에서 다윗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도를 노래한다. 히 4:12 와 관련해서 이 말씀의 도는 곧 우리의 도, 즉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패러다임을 바꾸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와 은총을 덧입을 수 있을까?
  - 삼하 24 장의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신다면 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삿 7 장). 다윗은 자기의 권한을 강화해서 강권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자기의 전쟁을 하려하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삼상 18:17 참조)
- 하나님은 3 가지 재앙 옵션을 주고 하나를 택하게 하신다. 1) 7 년 기근, 2) 3 달 도망자, 3) 사흘간 전염병. 3)을 택하고 왕의 죄로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
-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자 재앙이 끝난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솔로몬 성전 터가 된다.
- 이 시편들을 나의 기도로 읽으라.



제 26 일

읽는 범위: 시 14,16,17,22,25,26,27,28,31,35,36,38,40,41,53,55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의 마지막

다윗의 애가들

시 14편 : 여호와를 없다고 하는 불신자들의 우매함을 한탄하는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함을 노래한다. 이 시편은 롬 3:10-12에서 인용되고 있다.

시 16편 :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얻는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지만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한다.

시 17편 : 다윗은 그의 대적자들로 부터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탄원.

시 22편 :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한 7-8절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는 구절.

시 25편 : 다윗이 죄에 억눌려 고통 받을 때 쓴 시.

시 26편 :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당당함을 노래. 앞의 다른 시들과 대조적(cf 시32편)

시 27편 :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기를 갈망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

시 28편 : 다윗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

시 31편 : 다윗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한 분 여호와만 의지하고 찬송.

시 35편 :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부르짖으며 절규.

시 36편 : 악인의 악행은 하나님의 자비와 대조됨을 보여 준다.

시 38편 : 32편과 같이 참회의 시이다. 다윗은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시 40편 :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감사하는 시.

시 41편 : 구원을 감사하는 시.

시 53편 : 시 14편과 같이 인간의 죄의 보편성을 보여 주는 시.

시 55편 : 친구들의 배신을 한탄하는 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시 22편 - 예수의 고난과 구원의 완성을 예고하는 듯 한 노래

시 25편

시 26:3,6-9 -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복 주시려고 그릇을 키우는 연단이다.

시 27:1-4 - 성정 건축을 열망함

시 35:10, 27

시 36편 - 구원주 구속주 하나님.

시 30:8-11

시 55:22 (cf 잠언 10:3)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시편 묵상 ① -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로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보여 준다.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의 천재성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반면, 시편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시편을 기도의 학교로 사용할 때, 즉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삶으로 반응함으로써 주의 깊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말을 해야 적절한지 감각을 익히게 된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인간적인 모든 것이 기도의 재료로 적합하다. 반성과 관찰, 두려움과 분노, 죄책과 죄, 질문과 의심, 요구와 욕망, 찬양과 감사, 고통과 죽음 등 무엇이든 괜찮다.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시편은,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친절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길게 반박하는 책이다. 그렇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시는 모든 속성(거룩, 정의, 자비, 용서, 주권, 축복, 변호, 구원, 사랑, 위엄, 영광)에 접근하는 길이라는 점이다. 시편은 기도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관대하게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보여 주는 예시다.

루터는 자신의 독일어 시편(1528 년)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빛나는 색으로 채색된 거룩한 기독교회를 정말로 살아 있는 형태로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을 축소된 모형으로 보고 싶다면, 반드시 시편을 붙잡아야 한다. 거기에서 당신은 기독교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울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 거기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그노티 세아우톤’(gnoti seauton, 너 자신을 알라)과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도 보게 될 것이다.”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어라” IVP 2006 p178-179 에서 발췌)

시편 묵상 ②

시편은 많은 강이 바다로 흘러와 합쳐지듯 많은 저자들의 시들이 모여져서 이루어 진 바다와 같다. 그 저자는 다윗이 절반 이상을 썼고, 모세, 솔로몬, 에스라, 아삽 등 이다. 시편이 쓰여진 시간을 모세부터 포로기 까지 약 천 년 동안이지만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졌다. 그러나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책이다. 그 진리성은 시(時) 공(空)을 뛰어 넘고, 그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 쓰여졌지만, 모든 사상과 문화와 인종적 한계를 뛰어 넘는 시들이요, 기도문인 것이다.

시편을 접할 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이 있다. 오랜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소중히 여겨 왔는데, 왜냐하면 매우 많은 시편들이 ‘보통 사람’을 위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기쁨과 고통과 회개의 부르짖음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히 ‘제왕적인’ 요소를 지닌 시편도 있다. 종종 그 시편들은 다윗을 언급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계열’에 따라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제 27 일	
--------	--

읽는 범위:	시 58,61,64,69,70,71,86,102,109,139,140,141,143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의 마지막
---

시 58편 : 50-60편 까지는 '믹담' 시로 이루어져 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확실치는 않으나 일종의 탄식을 말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때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

시 61편, 64편 : 역시 곤고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시.

시 69편 : 다윗이 대적의 위험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시 70편, 71편 :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시 86편 : 곤고한 시절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

시 102편 : 상당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심정을 노래.

시 109편 :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노래.

시 139편 : 하나님의 크신 속성을 노래.

시 140편, 141편, 143편 : 온갖 위험에서 구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시. 그곳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반복.

☞ 시편 139장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신론)

시편 139장을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 주는 신론(神論)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비공유적 속성 즉 초월성 (Transcendence)으로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과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 즉 은혜성, 내재성(Immanence)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초월성으로서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에는 전지전능(1절-6절), 무소부재(7절-12절), 영원불변 (13절-18절), 그리고 완전 거룩(19절-24절)이 있다. 사람과 공유하는 속성은 은혜, 자비 등을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시편 묵상 ③

시편은 인간 역사 전체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 분이 하신 일들로 인해 그 분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들이다. 때때로 그것은 창조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 (우리가 이따금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는)를 찬양하기도 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건들을 회고해 보고 그 분의 능력과 그 분의 자비로 인해 그 분을 찬양한다. 종종 어떤 시편은 특정한 개인이 지은 것이거나 어떤 절기를 위한 것이며, 이러한 배경은 시편의 세부 사항과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시편이 모두 찬양하는 노래만은 아니다. 고백도 있고, 심지어 불평하기 위해 지은 시들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분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예배 시에 모든 것을 그 분께 가져간다. 바로 그 때문에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것처럼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분을 찬양 하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편은 단순히 노래만은 아니다. 그것은 노래이면서 기도이다. 시편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 그 삶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특히 시편 71 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를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편으로 나의 기도를 올려 보라.

제 28 일	
--------	--

읽는 범위:	시 37 편, 대상 22 장, 시 30 편, 대상 23-26 장, 시 15,24,42,43,44,45,46,47,48,49,84,85,87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 시대 – 다윗의 마지막
---

- 악인의 번영 - 신정론 이야기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신학의 하나의 큰 과제인 신정론(神正論)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전지전능, 영원불변, 무소부재, 완전거룩)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가 바로 신정론(神正論) 이야기이다. 이 신정론은 영어로 theodicy 인데 그 뜻은 그리스어로 '신'이라는 뜻의 theos와 '정의'라는 뜻의 dike 의 합성어이다.

- 대상 22장 :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
- 시편 30 : 성전 낙성 감사하는 시이기도 하고,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신(언약에 대해)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이기도 함.
- 대상 23장 ~ 26장 : 성전 조직을 정비 강화하는 다윗.
  - 23장 - 레위인의 임무 조직,
  - 24장 - 24반차 제사장 조직
  - 25장 - 찬양대 구성, 지휘자 임명
  - 26장 - 성전 관리자 (수위대) 조직.

다음에 읽을 시편은 성전과 관련된 시들이다.

시 15편 : 성전과 관련하여 예배의 길을 원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다.

시 24편 : 이는 장엄한 종교행사에 사용하는 송축의 시이다. 궤의 옮김을 기뻐하는 노래.

시 42편, 43편 : 이는 원래 한편의 시였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영혼을 노래한 시.

시 44편 : 과거의 실패를 탄식하는 시. 그것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났기 때문임을 언급함.

시 45편 : 축제의 시로 왕가의 성대한 혼인식에 사용되는 시.

시 46편 :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라는 시. 이 시는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주제를 제공한 시.

시 47편, 48편 :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주제의 시. 그는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시 49편 : 사악자의 궤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시이다.

시 84편 : 아름다운 누상의 시. 여호와의 집의 사랑스러움과 함께 그 집이 그곳에 오는 자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것을 묵상하는 시.

시 85편 : 이스라엘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간구의 시.

시 87편 : “하나님의 도성”이 갖는 특별한 위치를 송축하는 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시 37: 3-4, 23-28

대상 22:7-8, 13

시 15편

시 24편

시 42-43편

시 46편

시 48편

시 49:17-2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대상 23 장 ~ 26 장을 읽으면서 살펴 본 것은 다윗이 정비한 것은 국가 조직이기 보다는 성전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오늘 날 같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를 국가 조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국가 조직보다도 우위에 있는 조직이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중요성은 국가 조직보다 훨씬 중요한 우위에 있다. 다윗은 국가 조직을 찬양하는 시를 쓰지는 않았지만 성전과 관련된 시를 많이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b>제 29 일</b>	
---------------	--

읽는 범위:	대상 27 -29, 시편 2, 20, 21, 72, 93, 94, 95, 97, 98, 101, 110, 144, 145 편
--------	---

<b>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통일 왕국 시대 – 다윗의 마지막</b>
--

- 대상 27장 ~ 29장: 다윗이 국가 조직 정비 작업 마지막 과정인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완비하고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끝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는다. 다윗 시대는 끝나고 솔로몬 시대로 넘어 감.

· 시편 2, 20, 21, 72, 93, 94, 95, 97, 98, 99, 101, 110, 144, 145

본 시편들은 왕권과 제관직과 관련되는 시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시편들이다.

시 20편, 21편: 이 두 편의 시는 같은 문맥으로 보아야 하는 시. 전투를 눈앞에 둔 병사들의 기도와 승리의 날에 올리는 감사의 기도로 되어있다. 다윗의 치적과 관계있는 시.

시 2편: '제왕시'(帝王詩)로서 새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시. 모든 정치인이 읽으면 좋은 시.

시 72편: 솔로몬의 등극과 관련된 제왕시.

시 93편, 94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시로서, 이 시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교육을 시키는 것과 연관된다고 본다.

시 95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강조하면서 반역할 경우 초래할 결과를 언급하는 시로서 역시 솔로몬을 교육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시 97편, 98편, 99편, 101편 :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시 110편: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보게 한다 .

시 144편: 온갖 위험 속에서도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노래한다.

시 145 편: 찬양시로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 분의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복을 말해 준다.

<b>하나님과 관계 맺기</b>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대상 29:10-16: 다윗의 감사기도(신 8장을 참조)

시 2편

시 21:7

시 94편

시 95편

시 97편

시 98편

시 101 – 관점 3을 노래한다.

시 144:1-4,5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29:11-16 의 다윗의 감사기도를 신명기 8:11-19 의 모세의 권면과 묵상하라.

모든 것들을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감사하는 다윗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일까? 모든 부자가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나눔과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애착이 가고 그래서 더 움켜쥐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소유가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오늘 읽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발견했는가(신위)? 특히 어떤 행하심(신위)에 내 무릎을 꿇어야 할까?



제 30 일	
--------	--

읽는 범위:	열왕기상 1~11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통일 왕국 시대 – 솔로몬의 등극
--

- 1장: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
- 2장: 다윗의 유언(2:2-4)과 솔로몬의 숙청작업(2:12-46)  
다윗의 유언(2:2-4) -B.C. 970년경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다.  
1) 대장부가 되라  
2)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3)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한다.  
이것은 바로 신위(神爲)앞에 인위(人爲)를 굴복시키는 삶이다.

대 숙청작업 (왕상 2:12-46)

- 1) 아도니아(학깃의 아들)를 처형한다. 그는 솔로몬의 형으로 왕권 계승 서열 1위이었고 한 때 스스로 왕이 된 자이었으며 아버지 다윗의 첩을 요구한 자였다.
- 2) 아비아달을 추방시킨다. 그는 쿠데타 모의에 가담한 제사장이었다.
- 3) 장군 요압을 처형한다. 아도니아의 반역 음모에 가담한 자이었다.
- 4) 시므이를 처형한다. 그는 부왕인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저주한 자였다.

- 3장 ~ 4장 :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기도이었다. 또한 신위를 위해 인위를 굴복하는 기도였다.

우선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것은 번제(Burn Offering)를 천 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다(대하 1:6). 천 마리의 제물을 드린 후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솔로몬이 구한 기도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관찰하라.

- 왕상 5장 ~ 8장 : 솔로몬의 빛

솔로몬의 큰 업적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한 것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8:13)

- 출 25:8.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임마누엘(Immanuel)이다. “우리과 함께 하신다”의 뜻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동인(動因)이다.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만드신 에덴이 인간의 타락으로 화염검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 하게 되자 우리과 함께 하실 대안으로 성막과 성소를 허락하셨다.

성전의 신약적 의미는 성도들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막에 거하신 것을 요한 1:14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표현했고, 스바냐 3:17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다.

- 출애굽 년대를 계산하는 근거 - 왕상 6:1 - 성전 건축의 시작은 왕 즉위 4년(BC 966)이고 이는 애굽을 떠난 지 480년이 지난 후라고 기술하고 있다.

9장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자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9:10-28).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만 봐도 솔로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10:1-13). 이 부분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3가지의 중대한 죄를 범함을 읽는다.

첫째는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여인들과 결혼하였다는 점. 이것은 후에 유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구실을 주게 된다.

둘째는 이방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겨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였다는 점.- 종교혼합주의 허용 - 구별되는 삶이 없어 짐. 이는 결과적으로 십계명 1,2,3을 위배.

셋째는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감정이 폭발 일보직전.

-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셔서 권고와 훈계를 하시는 하나님. - 왕상 9:1-9
- 신위(神爲)에 충실하며 시작한 솔로몬이 인위(人爲)에 빠져 몰락하다. - 왕상 11:1-13
-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왕국을 분열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 왕상 11:26-33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왕상 3:4-12 -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꿈 ①

왕상 2:2-4: 다윗의 유언

왕상 4:20-34: 솔로몬의 영광

왕상 9:2-9: 꿈 ②

왕상 11:1-13

왕상 11:26-3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왕상 3:4-12 을 묵상하라.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백지수표(Open-ended request)를 주는 장면을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는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은 ‘지혜’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물질적 축복까지 주신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기도를 배워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 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인 것이다.

마 6:33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의 기도는?

- 성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왜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하나님 이외 다른 신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인간을 찾아오시는 신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찾아 와 계심을 알고있는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이미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 31 일	
--------	--

읽는 범위:	잠언 1-16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통일 왕국 시대 – 솔로몬 물락
---

잠언

- 왕상 4:32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 잠언 읽을 때 명심해야 할 사항.
  - 1) 잠언은 인위의 대안은 신위임을 말 한다.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3:5-6. 잠언 16:3,9.
  - 2)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이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하고  
지혜는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 3) 잠언은 시편 1편의 각론이다.  
시편 1 편은 신위의 길과 인위의 길 등 2 갈래 길을 보여준다.  
잠언은 신위 길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잠언 1:7
- 잠언 1:20-32
- 잠 2:5-8
- 잠 3:5-6 신위를 절대 절명의 지혜임을 언급 – 잠언의 Key 구절
- 잠언 3:11-12, 34-35
- 잠언 4장
- 잠언 6:6-11
- 잠언 8:17-36
- 잠언 13:13, 24
- 잠언 14:12
- 잠언 15:16-22,33
- 잠언 16:1-3, 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잠언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가치가 혼돈되고 뒤바뀐 현대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길을 보여 준다. 문제는 그 길을 보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성도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다. 오, 믿는 자여 어찌할꼬.....?
  - 잠언 1:7, 3:5-6, 16:3, 9 을 신위의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라.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다.
  - 잠언은 통독으로 읽어 넘기에는 너무 진지한 책이다. 모두 31 장으로 된 책이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며 읽으면 한 달이 걸린다. 그렇게 1 년 12 달을 한번 진지하게 잠언을 읽어보라.
-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 32 일

읽는 범위: 잠언 17-22:16, 아가서 1-8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왕국시대 – 솔로몬의 저서들

- 잠언은 명령문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구약의 법, 율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잠언은 죄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유익을 다루는 점이 특이하다.
- 잠언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권면이지 여호와가 내린 명령은 아니다. 따라서 잠언의 권면에 따라 아들에게 체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는 것은 잘못이다.
- 장 중심이 아니라 절 중심으로 읽어라.

아가서

- 아가서는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 즉 수넬 마을의 여인을 사랑한 실제의 Love Story이다.
- 헬라 사상은 분석적이다. 그래서 사랑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석한다.

1) Agape 2) Storge 3) Phila 4) Eros

- 히브리 사고는 통합적이다 따라서 사랑도 한가지다 – Hesed
- 아가서 – 부부 세미나의 주요 교재 – 5,6,7,8장은 부부가 같이 읽어라.

절기에 따라 읽는 시가서

- 1) 유월절 – 아가서, 2) 오순절 – 롯기, 3) 초막절 – 전도서, 4) 부림절 – 에스더  
5) 예루살렘 멸망일 - 애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잠 17:1
- 잠 18:16
- 잠 19:23

아가서

- 아 2:15
- 아 5 장, 6 장, 7 장, 8 장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가서를 읽는다.

아가서의 사랑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고 인간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 성경의 위대함은 이런 사랑 이야기도 있다는데 있다. 그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야 2:15 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라.

사랑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런 '작은 여우'가 없는가? 사소한 오해가 작은 여우일 수 있다.

## 제 33 일

읽는 범위: 전도서 1-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왕국시대 – 솔로몬 저서들

- 전도서 = 솔로몬의 참회록
- 코헬렛(교사) = 전도자- 도를 구하는 자 - 진정한 행복을 찾다.
- “헛되고 헛된 삶” - 하나님이 없는 삶 (대조 시 73:28)
- Kairos vs Kronos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전 1:12-13
- 전 2:10-11
- 전 3:1-8
- 전 4:7-11
- 전 11:9-12:2 – 전도서의 결론

☞ 성경은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시 73:28).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이 곧 복(福)이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 만들어 얻는 복은 신기루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간단하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순종이 문제이다. 성경의 복음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신 28장). 사람은 순종 없이 복을 얻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허망한 것이 뿐이다. 전도서는 그것을 잘 말해 준다.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솔로몬은 그의 부귀영화의 삶과 하나님의 등진 삶을 통해서 터득한 체험을 토대로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망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시편 78:23 과 대조해서 참된 행복의 삶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 전도서 3:1 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 성경은 2 개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Kairos 과 사람의 시간, Kronos 를 말해 준다. 우리는 이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즉 신위를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제 34 일	
--------	--

읽는 범위:	역대하 1-9 장
--------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통일 왕국시대 – 솔로몬의 생애

- 1 ~ 9장은 솔로몬 통치 40년에 대한 기록이다.
- 역대기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역사서로서 제사장 관점에서 사료를 정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이다. 그러므로 남 왕국 유다만 기록한다.
- 따라서 역대기의 솔로몬 기록은 성전 건축에 대부분 할애한다.
-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종교 다원주의적 인물 묘사는 없다.
-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은 매우 중요한 왕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들의 어두운 면은 밝혀 내지 포로에서 돌아 온 이스라엘의 파괴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을 밝히지 않았을 것이다.
- 왕상 3:6의 “일천 번제”는 대하 1:6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고 했다.
- 2장에서 성전의 건축은 이방의 자료와 이방인들도 동원됨을 볼 수 있다. 성막 건축과 대조되는 것이다. 성막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만들어 졌다.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대하 1:14-17, 9:1-12 – 솔로몬의 부귀영화
- 대하 7:11-22 –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심

###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대하 7:17-23 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묵상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즉 주권의 회복, 주인 되심의 회복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라.

제 35 일	
--------	--

읽는 범위:	열왕기상 12-16 장, 역대하 10-16 장
--------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왕국시대

- 솔로몬의 우상 숭배 허용 정책으로 인해 왕국이 분열하게 된다(왕상 9장).
- 과중한 건축사역으로 인해 과중한 노동, 세금을 부과 받은 유다를 제외한 10지파의 불평을 포용하지 못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인다.
-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10지파 백성을 남유다에 있는 성전 순례를 차단하며 우상 숭배로 돌아서다.
- 여로보암이 비 레위인을 금송아지 제단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우를 범하다.
- 열왕기의 분열 왕국의 각 왕의 열전을 기록할 때 지그재그 기법으로 기록하여 그 순서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교재의 '왕 선지자 한눈에 보기 도표'와 '왕들의 약전'을 참조하라.
- 악한 왕, 선한 왕의 기준은 1) 다윗 왕 같았는가? 2) 우상을 숭배했는가? 이다.(왕상 14:8-9)
- 이 시대의 문제는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남색 즉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오늘 읽기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구테타), 엘라, 시므리(7일 천하), 디브니, 오므리(디브니 통합 오므리 왕조 시작). 아합(가장 악한 왕).  
남 왕국 –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개혁)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왕상 12:8-11
- 왕상 12:25-33
- 왕상 14:8하-11
- 대하 13:4-22
- 대하 15:2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등장하는 북왕국의 모든 왕은 악한 왕으로 판정되고 있다. 그 판단 기준을 왕상 14:8-9 에서 밝히고 있다. 아무리 다윗처럼 선정을 베풀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악한 왕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유의하라.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함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 왕상 12:8-11. 솔로몬의 아들이고 후계자인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초기시절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원로들의 조언도 무시하고 오직 같은 또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매우 협소한 leadership 을 가진 자였다. 진정한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는 자이다.
  - 마태 11:28-30, 23:11-12 과 함께 참 Leadership 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 북왕국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이 명령한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차단하기 위해 북쪽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종교를 자기 목적에 합당하게 수단화 하는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삶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종교화 되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한다. 말씀(성경)에 근거한 삶만이 진정한 길이다.

제 36 일	
읽는 범위:	왕상 17 장 ~ 22 장, 대하 17 장 ~ 20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엘리야의 활약	

-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 –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의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
  - 이세벨– 시돈 왕 엣바알의 딸 – 바알교 선교사 – 북 왕국을 바알교화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북 왕국에 바알의 신전을 짓는다.
  -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게 되는 상황이다 – 십계명의 제 1 계명이 위배되기 때문이다.
  - 신 11:16-17 에 가뭄과 우상 숭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한다.
  - 기우제를 놓고 1:850(바알 선지자 450 명 + 아세라 선지자 400 명)의 갈멜산의 대결.
  - 비를 허락하시고, 7000 명의 남은 자(Remnant)를 남겨 두신다. - 구별된 삶의 중요성
  - 엘리사를 부르고 후계자로 훈련시키는 엘리야.
  - 나봇의 포도원을 왕권을 악용해서 빼앗는 아합 왕 부부의 악행 – 엄벌하시는 하나님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 북 왕국 – 아합, 아하시야(아합의 아들)
- 남 왕국 – 여호사밧개혁 –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폐하지 못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림. 북 왕국과 화해를 시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 왕상 17:12-16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 왕상 18:21, 24-40
  - 왕상 19:18• 왕상 19:19-21 – 소명에 응답하는 엘리사의 믿음이 결단.
  - 대하 20 장 –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우는 모습에 유의하라.
- 남 왕국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서.(15-30 절)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갈멜산의 기우제를 통해서 보는 참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묵상하라.

1) 21 절 - 진정한 예배는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응답이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알라가 하나님이면 모스크로 가고, 시바나 비시누가 하나님이면 힌두사원으로 가라는 말이다.

2) 25-29 절 -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 자기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3) 30-40 절 -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38 절).

• 왕상 18:21 하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마 11:15-17 에서 "귀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는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도우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였고, 눅 19:40 에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나의 반응은?

• 바다 위에 뜬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하는 엘리야의 믿음, 그것은 믿음의 민감성이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민감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를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수확이다.

• 나는 이 시대를 위해 남겨 두신 바알에 절하지 않은 그 '남은 자'인가?

• "내가 여호와인줄을 알리라"(왕상 20:13, 28)의 의미를 묵상하라

• 대하 20:15-17 을 묵상하라. 찬양대를 전투대열 앞에 세우는 것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법궤를 앞세우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위의 개념에서 깊이 묵상해 보라.

제 37 일	
읽는 범위:	왕하 1 장 ~ 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엘리사의 활약	

#### 열왕기하의 줄거리 라인

- 열왕기하는 북 왕국의 아하시야에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모두 6 왕조의 역사(BC 853-722)와 남 왕국 여호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약 280년(BC 848-586)의 역사를 기록.
- 북 왕국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낙상 사건과 바알새뿔(똥)파리의 왕을 찾는 왕.
- 후계자 엘리사에게 권능을 위임하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 1)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다. 2)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죽자 살려주다.
  - 3) 국의 독소를 제거. 4) 적은 음식으로 많은 수를 먹임. 5)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다.
  - 6) 사환 게하시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다. 7) 쇠도끼를 찾다. 8) 아람 군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물리 침.
- 엘리사가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고 아합 가문을 멸하게 하고, 왕이 되어 예후 왕조를 시작하다.
- 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고 악을 행하다 아합 집안의 악행을 닮다.
- 유다왕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악을 행하다 아합 집안의 악행을 닮다. 예후의 군대에 의해 살해 되자 어머니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왕족을 멸하려 하다. -
-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 아하시야의 딸과 어린 조카 요아스를 숨기고 후일을 도모하다.
- 아달랴가 6년간 집권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앞세우고 왕권 재탈환을 하며 바알 신당을 부수고 우상 제단을 허무는 등 개혁을 단행하다.

####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아하시야<sup>아합의 아들</sup>, 여호람<sup>아합의 아들</sup>,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없이 하다. 그러나 금송아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예후**<sup>오므리</sup>

왕조를 징벌하고 예후왕조를 시작하다.

**남 왕국** – 요아람<sup>악한 왕</sup>, 아하시야<sup>아달랴의 아들</sup>, 아달랴, 요아스의 등장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 : 엘리사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왕하 1:1-4
- 왕하 4:1-7 – 엘리사의 기름 그릇을 채우는 기적 – Think Big !
- 왕하 5:9-16 – 나만 장군의 자기중심성 내려놓음으로 받는 기적.
- 왕하 10:28-31 – 예후가 개혁을 단행하지만 여전히 악한 왕으로 남는 이유.
- 왕하 11:17-2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엘리야의 사역은 백성들을 도우기는 했지만 거시적인 것이고 공동체적 국가적인 것이라면, 엘리사는 백성들을 돌보는 목회적인 면이 강하다. 엘리사는 과부를 도왔고, 수넴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고,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등등.... 개인적, 목회적 면모가 강하다.

•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은 예후 – 요람왕의 죽음, 아하시야의 죽음, 이세벨의 죽음, 아합 자손들의 죽음, 바알 숭배자들의 죽음에 예후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왕은 아니었다.

• 나만 장군의 순종 과정을 묵상하라.

• 게하시의 탐욕을 묵상하라.

• 아달라의 왕족 멸족 시도 사건은 사탄의 작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이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멸족시킴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 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를 숨겨 두신다.

제 38 일	
--------	--

읽는 범위:	대하 21 장 ~ 22:9, 왕하 13 ~ 14 장, 대하 22:10 ~ 25 장, 욥 1 ~ 4 장 암 1 ~ 9 장
--------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선지자가 등장해야 하는 상황은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의 영성이 무너지게 된 상황이다.  
우상 숭배와 사회의 부정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 선지자의 두 종류  
1) 행동에 의한 선지자와 2) 문서에 의한 선지자.
- 선지서의 기본 구조  
1) 기소(Indictment), 2) 심판(Judgement), 3) 교훈(Instruction), 4) 회복(Restoration)
- 선지자들이 외치는 영성 – 시내산 언약으로 인해 주어진 십계명의 영성.

#### 요나서

- 앗시리아의 도시 니느웨의 죄악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
-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요나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을 배타적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 구약의 사도행전 – 끝이 열려 있는 (open-ended) 이야기

#### 아모스

-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 출신 –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목축업과 농업을 겸한 부농 출신이다.
- 사회 정의(선지자 영성)에 입각한 예언 활동. - 암 5:24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 같이 흐르게 할 지어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 세.  
남 왕국 –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여호야다의 개혁), 아마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요나 (니느웨를 향한 예언 활동), 아모스 (북왕국 여로보암 2 세 시대에 활약)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왕하 14:6 – 가문의 저주는 없다.
- 온 2장의 기도.
- 암 4:1
- 암 5:4-27
- 암 6:4-6, 6:12-13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요나가 “제사장 나라”를 배타적인 개념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 한 사건이다. 이런 요나의 문제는 “요컨대 나의 문제”가 아닐까?
-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1989 년 제 2 차 복음주의자 대회에서 이런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교회)는 사회 정의에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한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아모스를 찾고 있다.”  
이 성명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언제까지 찾고만 있을 것인가! 교회가 아모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World Vision(선명회) 세계 총재 Richard Stearns 는 그의 저서 “The Holes in our Gospel”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 ‘가난과 정의’라는 단어가 2000 번 나온다. 그것을 외면하고 잘라 버린다면 우리의 복음서는 너덜거리는 누더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아 !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제 39 일

읽는 범위: 왕하 15 장 ~ 16:9, 대하 26 장, 호세아 1 ~ 14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북왕국의 멸망 직전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 이 당시에 북왕국에서는 구테타가 4번이나 일어난다.
  - 1) 살룸이 스가랴 정권을, 2) 므나헴이 살룸 정권을, 므나헴만이 정권을 아들 브가히야에게 넘기지만 3) 베가가 브가히야 정권을 무너뜨린다. 4) 마지막 왕 호세아가 베가를 죽임

호세아 (BC 755년부터 북왕국에서 활약. -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함)

-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창녀 고멜과 결혼하고, 그 결혼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 준다.
- 제사장 영성,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강조하는 책 - 호 4:6-10 - 우상숭배로 만연한 북왕국 이스라엘.
- 자식들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 1) 장남 "이스르엘" - 하나님이 흠으시다. 2) 장녀 "로루하마" -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다. 3) 차남 "로암미" - 내 백성이 아니다.

실제로 역사상 북왕국 10지파는 앗시리아에 의해 망하고 흩어지면서 사라진다.

- 당시의 시대상을 다음과 같은 시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
- 호세아는 이렇게 답하는 듯하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단심가(丹心歌)"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남 왕국 - 아사랴(역대하에서는 웃시아), 요담, 아하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호세아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호세아 1:2-9
- 호세아 4장
- 호세아 6장
- 호세아 10:9-15
- 호세아 12:6
- 호세아 13:4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우상 숭배는 십계명의 제 1 계명의 위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파괴로 이어진다.  
북왕국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고  
결국 앗수르에 의해 망하면서 10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비극이 생긴다.
-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아니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 40 일

읽는 범위: 사 6 장, 사 1 장 ~ 5 장, 사 7 장 ~ 10:4, 사 17 장, 사 14:24-32,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이사야 - 왕실 출신으로서 가장 긴 사역을 한 자. BC 739 - 681
- 이사야 사역 기간 남 왕국의 왕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39장까지는 구약이 39권이듯 구약적 성격을 띠고, 나머지 27장은 27권의 신약적 성경을 띠다고 푸는 학자도 있다.
- 6장 이사야를 부르심과 예배의 모형 -  
1) 하나님의 임재, 2) 회개와 용서, 3) 말씀의 선포, 4) 결단.
- 1-5장은 왜 선지자가 오며 이사야가 활약을 해야 하는 가를 말해 준다.
-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개요적 성격을 띤다. - 종교적 형식주의에 식상하신 하나님
- 7장 - 12장의 스토리 라인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거스르자 이사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탄원하지만 그를 거역하고 오히려 앗수르의 도움을 청한다.
- 7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친 앗수르 정책이 이스라엘의 문제의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사 14:21-32 - 앗수르 멸망을 예언 하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남 왕국 - 아하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사 6장 - 이사야를 부름 - 예배의 모형
- 사 1:2-19
- 사 2:5-22
- 사 5장 - 포도원의 노래
- 사 7:14-16 임마누엘
- 사 9:6-7 - 평강의 왕 메시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사 6 장의 이사야를 부르는 절차를 통해서 예배의 모형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임재 – 회개와 용서 – 하나님의 말씀 선포 – 결단(흠어지는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런 예배 정신을 반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라.
- 사 7 장의 임마누엘을 사 9:6-7 과 함께 묵상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 구속의 이유와 목표임을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제 41 일	
--------	--

읽는 범위:	왕하 16:10-20, 미 1 장 ~ 7 장, 대하 27 장 ~ 28 장, 왕하 17:1-4, 사 28 장 ~ 29 장, 왕하 17:5~41, 사 10:5 ~ 1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 유다왕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3세를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앗수르 신전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방하다. - 종교혼합주의에 빠진 아하스.

미가

- 이사야와 동세대 활동. 이사야 – 지도자를 대상, 미가 – 서민들을 대상
-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다.
- 이 시대의 문제점 – 우상 숭배, 종교 형식주의.
- 4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이고, 5장은 예수 탄생지의 예언이다.
- 이사야는 에브라임(북왕국의 다른 이름), 아리엘(하나님 또는 성전의 제단을 뜻하고 예루살렘을 칭함)의 외식함을 질타한다.
- 앗수르에 조공까지 바치는 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그 앗수르에 의해 망함
-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앗수르.
- 남은 자를 통해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
- 왕하 17:24-41 – 사마리아인의 유래.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남 왕국 – 요담, 아하스(악한 왕), 히스기야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미 2:12-13 – 멸망할 자들이 망한 후에 남은 자들의 회복
- 미 4 장 – 회복의 모습(천년 왕국)
- 미 5:2 – 예수 탄생지 예언
- 미 6:6-16 –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 사 29 장
- 왕하 17:7-23
- 왕하 17: 24-41 – 사마리아인의 유래.
- 사 11:6-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왕하 16:10-20 의 아하스는 종교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왕이 되었다.  
이 시대의 혼합주의로부터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자유로운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별된 삶(관점 3)을 강조하시는 가를 묵상하라.
-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쌓는 일이다. 시내산 언약이 바로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가?
- 사 29 장에서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을 읽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묵상해 보라.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형식주의로 빠져 버린다. 16 절을 깊이 생각해 보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빌 4:13).

제 42 일	
읽는 범위:	왕하 18:1-12, 잠 25~29 장, 사 15~16 장, 사 18~20 장, 사 22:15~25 장, 사 30~32 장, 왕하 20:1-19, 사 38~39 장, 왕하 18:13~19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잠언 25장 ~ 29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발견된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라는 책이다. 잠언은 하루 1장씩 묵상하며 읽어라.
- 사 15장~16장 – 주변 국가 모압, 구스, 19장 – 애굽에 대한 경고  
지금의 시대의 상황은 친 앗수르 정책을 버리고, 친 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려는 경향이 있다.
- 사 30장은 바로 그런 친 애굽 정책에 대한 경고이다.  
히스기야의 부왕 아하스는 친 앗수르 정책을 버리고 서진하는 앗수르를 막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는다. 지금까지 유다는 주변 국가와는 달리 친 앗수르 정책으로 살아남았는데 이제 친 애굽 정책으로 돌아선다.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를 빌미로 BC 701년에 앗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한다(1차 공격). 애굽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 하나님은 그 앗수르를 치실 것을 약속하신다.
-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왕하 20장) - 히스기야 왕궁과 군기고를 바벨론 사자들에게 공개 – 앗수르의 유다 침공(BC 701년. 46개의 성읍을 약탈하고 200,25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 앗수르의 2차 침공(BC 699)의 순서로 전개된다.
- 산헤립의 죽음 – BC 681.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히스기야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잠 28:4-6, 13, 19-2-, 23, 25-17.
- 잠 29:15-18
- 사 31:1-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사 30 장. 애굽을 의지해서 앗수르의 공격을 피해 보려는 자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대한 불신이기 문에 이것은 죄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신위에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다.
- 사 31:1-3. 신앙은 가시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도움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인위를 신위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 잠 16:3,9
- 주권국가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 국가를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무렵의 이스라엘의 문제이었다.

제 43 일	
읽는 범위:	사 36 ~ 37 장, 왕하 20:21-22, 사 22:1-14, 사 23 ~ 27 장, 대하 29 ~ 32 장, 왕하 21 장, 습 1 ~ 3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히스기야 왕 40 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히스기야 왕의 현명하지 못한 자기중심성의 오작동을 통하여 생긴 일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혜로 앗수르의 침공을 막아 보려 했으나 부질 없는 짓이었다(왕하 20:20, 대하 32:30).
- 이런 상황에서 애굽의 디르하가가 도우려 하지만 이마저 앗수르에 의해 막힌다.  
결국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85,000 명의 앗수르 군사를 멸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
-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하고 개혁하는 히스기야.  
오랜만에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의 지킴과 시내산 언약의 연관성을 생각하라.
- 왕하 21 장 - 유다 왕 중 가장 극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이 등장한다.  
므낫세와 아몬의 악행을 유의하라.

#### 스바냐

-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시대에 스바냐가 활약한다.
- 스바냐의 본격적인 예언 활동 개시는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B.C. 622 년 이전이었다.
-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앗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으며 요시아 즉위 초기까지 앗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물론 므낫세 시대에 극성하였던 바알 숭배 풍조에 더하여 새로이 앗수르인들이 섬기던 일월성신을 형상화한 여러 우상들까지 대거 들여와 숭배하는 등 정치적, 종교적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요시아가 16 세의 나이에 즉위한 후 앗수르 제국은 주변 속국들의 반란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앗수르 북방, 곧 남부 러시아에서 발흥하여 근동 지역으로 이주해오던 스구디아인들(Scythians)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심하던 앗수르 제국은 팔레스틴 지역에 거의 신경을 쓸 수가 없었고 유다 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도 자연스럽게 약화되었다. 이때를 틈타 요시아 왕은 앗수르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자긍심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남유다 전역은 물론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땅에까지 미치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B.C. 622 년 단행하였다(대하 34:8).

- 
- 스바냐서는 바로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운동을 복돋우고 격려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예언 계시의 기록이다.
  - 스바냐서는 선민 대중의 범죄와 타락에 대하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이것이 '여호와와 날'의 개념이기도 하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the Remnants)를 중심으로 회복을 예언한다. 나아가 선민은 물론 이방 만민도 동참할 최종적이고 영원한 여호와 경배와 축복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한다. 따라서 참 여호와와 백성들은 요시아 왕이 이끄는 종교 개혁 각성 운동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여호와와 날'의 궁극적 의미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날이다,
-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스바냐.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습 2:1-3
- 습 3 : 17
- 사 22:12-14
- 사 24 장 - 하나님의 위엄의 장엄함을 느끼라.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개혁 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15 세기 종교 개혁 시대의 선구자들의 위대한 명제(命題)는 21 세기 초엽의 세계 교회 앞에서 더욱 요청되고 있다. 오늘 날 우리의 일상적 삶과 교회에는 이런 개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화되어 있는가를 반성해 보라.

제 44 일	
읽는 범위:	왕하 22 장 ~ 23:25, 대하 33 장 ~ 35:19, 시 33, 66, 67, 100 편, 왕하 23:26-27, 나 1 ~ 3 장, 렘 1 ~ 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요시아가 대 개혁을 단행하다. - 이방 제사를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다 -  
이것은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 시편 33편은 습 3:14-20을 배경으로 읽어야 한다.
- 시편 66편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다.
- 역대기의 역사는 성전 중심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므낫세의 악행을 많이 서술하지 않는다.

#### 나훔

- 이 책은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앗수르)에 대한 예언서다.  
요나는 앗수르의 구원에 관한 책이고, 나훔은 멸망에 대한 책이다.  
이 두 책은 100년의 기간을 두고 예언한 책이다.
- 2장과 3장에서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예레미야

-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
-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BC 627 ~ 574년동안 활약.
- 바룩이라는 기록관을 대동하고 예언을 기록하게 했으나 예레미야는 많은 시간 말 보다는  
행위로 예언을 하다.
- 예언의 핵심 내용은 BC 588 ~ 586, 특히 BC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 함락에 맞추어져 있다.
- 선지서 내용 구조 : 기소, 심판, 교훈, 회복을 이해하고 읽으라.
- 살구나무 환상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것이고,  
끓는 가마 환상은 북방 민족 바벨론이 유다의 심판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므낫세, 아몬, 요시아.

-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나훔, 예레미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나 1:2-3, 7, 15
- 렘 1:16
- 렘 2:11-13, 36-37
- 렘 4:14
- 렘 5:7-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이스라엘의 고질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다.

왜 이들은 우상숭배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복을 받는데 있어서 우상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열심히 빌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아픔을 수반하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편 115 편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확인하라.

제 45 일	
읽는 범위:	왕하 23:28-34, 렘 27:10-17, 대하 35:20-36 장, 합 1 ~ 3 장, 왕하 23:35-37, 렘 26:1-6, 렘 7:1-8:3, 렘 26:7-24, 렘 11 ~ 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의 복진을 막으려는 무모한 전쟁을 하여 므깃도에서 전사함(BC 609)
- 승리한 애굽이 그 여파를 몰아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즉위 3 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 형제 엘리아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다.
- 여호야김은 건축 사업을 행하며 많은 부정 축재를 하는 악한 일을 행한다.

하박국 (BC 612 ~ 609)

-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의 예언서
- 신정론(神正論)적 질문을 던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란 답변을 받는다.  
신정론 문제를 다루는 본문들 – 시 37 편, 렘 12:1, 욥기
- 하박국의 깨달음 – 3 장의 기도.
-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면서 순종의 회개를 갈파한다(렘 6:13, 7:3-4)  
당시의 왕실 선지자(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거짓 주장한다.
- 렘 11 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라고 경고한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요시아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하박국.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합 1:12 ~ 2:4
- 합 3:17
- 렘 7:1-7
- 렘 11:1-8
- 렘 12:1-6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합 2:3-4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라. 합 3:17의 고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재에서 배운 믿음의 3가지 유형(교재 75 쪽)을 복습하고 자신의 믿음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판단해 보라.
- 렘 12:1-6의 예레미야의 질문은 신정론적 질문이며, 이를 인과응보(因果應報)로 접근하면 해답이 없고, 종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도 상통한다.

제 46 일

읽는 범위:

렘 47 장, 렘 46:1-12, 렘 13:1-14, 렘 18:1-17, 렘 45 장, 렘 36 장, 렘 25:1-14,  
렘 14 ~ 17 장, 렘 8:4 ~ 10:16.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주변국가인 블레셋, 애굽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렘 46 ~ 51장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
- 행동으로 보여 주는 예언 - 13장 - 썩은 허리띠 - 유다가 이 썩은 허리띠처럼 철저히 황폐해 질 것을 상징하다.
- 18장 - 토기장이 비유 - 하나님의 주권, 신위(神爲)를 의미한다.
-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기록원인 바룩에 임해 예언 활동을 이어 가게 하신다.
- 렘 25:1-14에서 70년 포로기간을 예언한다.
- 가뭄과 우상숭배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신 11:16에서 언급하고 있다.
-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눈이 먼 백성을 애통해 하는 예레미야.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여호야김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렘 13:11
- 렘 18:6 – 토기장이 하나님.
- 렘 25:11-14
- 렘 14:22 – 가뭄의 주관자 – 토기장이 하나님.
- 렘 15:19-21
- 렘 16:10-15
- 렘 17:7-11
- 렘 9:13-16, 23-24.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렘 18 장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묵상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가?  
그 토기장에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진흙이 있는가? 당신은 그 진흙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 47 일

읽는 범위:

왕하 24:1-4, 렘 35 장, 렘 23:9-40, 렘 18:18-20 장, 왕하 24:5-9, 렘 22:18-30,  
렘 13:15-27, 왕하 24:10-17, 대하 36:5-10, 렘 24, 단 1 ~ 4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분열 왕국 시대 - 선지자 시대

-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나바폴라사르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를 압박한다. BC 609년 므깃도 전투에서 승리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세워진 친애굽 성향의 여호야김은 BC 604년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재빨리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아선다. 이 때 다니엘과 그 친구 3명 등을 포로로 잡아간다. 이것이 제1차 포로이다.
- 시절이 뒤숭숭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욱 기성을 부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더욱 미움을 사게 되고 목숨을 위협 받는다.
- 렘 19장 힌놈의 골짜기는 인신 희생 제사를 행한 곳이고 이것은 우상 숭배 중 가장 악한 것이다. 용기를 깨뜨리는 행동을 통해 이곳을 심판하심을 보여 준다.
- 왕하 24:10-17 - BC 59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 포위한다.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들 여호야긴이 나이 18세에 왕위에 오르고 바벨론에게 항복한다. 느부갓네살은 18세의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폐위하고, 그의 숙부이며 요시아 왕의 아들인 맛다다야를 왕으로 삼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꾼다. 이 때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 약 10,000명의 유대 지도자급을 포로로 잡아간다. 이것이 2차 포로이다. 유다의 끝이 보인다.
- 렘 24장 - 좋은 나무와 나쁜 무화과 환상 - 시드기야 시절에 보여 준 환상 - 유다는 멸망하고, 좋은 나무(남은 자)로 구속의 역사는 이어질 것임을 보여 준다.
- 렘 18:18-23, 20:1-18 - 수난 당하는 예레미야

다니엘 (BC 605 ~ 536)

- 1차 포로(BC 605)에 바벨론에 잡혀 감.
- 신위(神爲)의 원칙에 철저히 순종하며 산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
- 2장 -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다. -
- 금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는 다니엘의 3친구 - "...찌라도의 신앙"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맛다다야).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다니엘.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렘 35:14-16
- 렘 20:7-9 –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건드릴 수 없는 예레미야.
- 렘 23:16-30
- 단 1:12-17
- 단 2장 –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 단 3:8-18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단 1:12-16 – 신위의 원칙에 충실하고 성실히 산 다니엘을 묵상하라. 원칙의 삶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다니엘의 3 친구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라. 어떻게 그것을 닮을 수 있을까를 반성해 보라.

제 48 일	
읽는 범위:	왕하 24:18-19, 대하 36:11-12, 렘 52:1-2, 렘 27 ~ 29 장, 렘 25:15-38, 렘 48 장 ~ 51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시대	

- BC 586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3차 침공이 개시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며 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된다.
-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도망을 가지만 잡혀 아들의 죽음 당함을 목격하고, 자신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잡혀간다. 이것이 제 3차 포로이다.
- 거짓 선지자들과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예레미야
- 거짓 선지자의 괴수 하나냐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 가게 되자 그 기간이 70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주장을 펴 백성을 미혹한다.
- 29장 - 포로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위문편지 - 평안(Shalom)의 메시지를 보낸다.
-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 -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 바벨론의 심판을 강하게 예언하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  
북 왕국 - 멸망  
남 왕국 - 시드기야(맛다디아), 멸망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렘 29:10-14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다. 왜 멸망했는가를 묵상하라.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다.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은 무엇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것을 듣기 싫어했을까?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

다음 구절을 함께 묵상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딤후 4:3-4

제 49 일	
읽는 범위:	겔 1:1~3:21, 왕하 24:20~25:3, 렘 52:3~6, 렘 10:17~25, 렘 21:1~22:9, 렘 34, 렘 46:13~28, 렘 37, 렘 30~33, 렘 23:1~8, 렘 38.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시대	

- BC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2차 포로가 일어났고 에스겔을 포함한 10,000명이 잡혀 감.
- 겔 1장-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 그발강가에서 법궤의 환상이 나타남, 즉 네 생물(사람, 사자, 소, 독수리 : 4복음서의 상징), 네 바퀴, 네 얼굴과 네 날개의 환상을 보여주며 법궤의 이동을 예언한다.
- BC 593년경 30세(제사장 임명 적령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다  
(겔 2:8~3:3, cf 계10:9-10)
- BC 586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2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 함락, 유다 왕국의 멸망.  
(왕하 25:1-3)
-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는 예언들
  -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임
  -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렘37:5)
  - 위로: 포로 귀환(렘30:3), 새 언약(렘31:31-33),  
하나님의 아나돏 땅을 사고 땅 문서를 보관함으로 귀환을 준비하라 하심(렘31:9-15)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 에스겔, 예레미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겔 2:8-3:3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름(참고 계 10:8-11)

렘 21:8

렘 22:1-9,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8-9절)

렘 34:9-22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유.

렘 30장 회복의 약속

렘 31:31-40, 새 언약 (참조 32:36-42절 참조)

렘 33:2-3 신위의 하나님.

렘 23:3-6 메시아 약속(참 메시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본 읽기 범위 안에 렘 30: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렘 31:33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시사하는 바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깊이 묵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고(창 17:7),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것이 곧 줄거리이고 메시지다.

- 렘 30:11 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 (참조 : 본 교재 P297 “자라나기”)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 제 50 일

읽는 범위: 대하 36:13~16, 겔 8~11 장, 겔 13~18 장, 겔 20~21:17, 겔 22 ~ 23 장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시대

-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
  - 시드기야 왕의 탈 바벨론 정책과 우상숭배.
- 8 장 – 우상이 가득한 성전
- 9 장 - 예루살렘의 심판
- 10 장 –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 이미 1 장에서 예고된 현상이다.
- 교재(통큰통독) 300 쪽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비유 도표를 잘 숙지하라.
- 18 장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고 했다 – 가문의 저주는 있는가?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인물들  
에스겔,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겔 8장

겔 9장

겔 11:14-21

겔 18장

겔 20 장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겔 8 장, 우상이 가득한 성전의 환상과 10 장,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깊이 묵상하라.

성전에 왜 우상이 가득했나?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들을 기억하라.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갔으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 겔 20 장을 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행하였음을 정리해 보라.

이 부분은 구속사의 줄거리이다. 그리고 가나인 땅에 들어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당부한 “지켜 행하라”,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를 파악해 보라.

- 겔 18 장은 가문을 통한 저주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출 34:7 하반절에는 가문의 저주가 있는 듯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생겨난 신생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강조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제 51 일	
읽는 범위:	겔 21:18~32, 겔 24, 겔 3:22~7 장, 겔 29:1~16, 겔 30:20~31 장, 왕하 25:4~21, 렘 52:7~11, 렘 39:1~7, 대하 36:17~21, 겔 12, 렘 52:12~27, 렘 39:8~10, 시편 89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시대	

• 에스겔의 상징과 행위 예언이 말하는 의미

행동	의미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에워쌌 (4:1-3)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 공격을 당할 것임.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뺐 후 1/3은 불사르고, 1/3은 칼로 치고, 1/3은 바람에 흩날림 (5:1-4)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러는 불에 타 죽고, 더러는 칼에 죽고, 더러는 산산이 흩어짐.
가재도구를 급히 챙긴 후,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감 (12:1-6)	장차 예루살렘 백성들이 초라하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것임.
예리한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 날적다리를 침. (21:8-17)	예루살렘이 대적의 칼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것임.
땅에다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지시표를 만듦. (21:18-23)	장차 바벨론 왕이 지시된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것임.
가마에 물을 부은 후, 양고기의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땀. (24:3-14)	하나님께서 불같은 맹렬한 심판으로 유다의 부정을 제거하실 것임.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않음 (24:15-27)	울음조차도 마를 철저한 멸망.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 (37:15-23)	장차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연합.

•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수난사

누가	어떻게 했나	관련구절
사삭 (예금 왕)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 보물을 가지고 감.	왕상 14:25-26
아사 (유다 왕)	성전에서 돈과 보물을 가져가, 그것으로 수리아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음.	왕상 15:18-19
아달라 (유다 여왕)	성전을 파괴하였다가 후에 권좌에서 쫓겨나 성전으로 도망쳐 왔으나 자신의 사악한 지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왕하 11:13-15
요아스 (유다 왕)	수리아 왕 하시엘을 막으려고 성전에서 금과 신성한 물건들을 가져갔다.	왕하 12:18
요아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사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금과 은 등을 약탈했다.	왕하 14:14
아하스 (유다 왕)	성전에서 은금과 다양한 물건을 위해 앗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 공물로 보냈다.	왕하 16:8-18
히스기야 (유다 왕)	성전에서 모든 은을 취하고 성전의 모든 문의 황금을 벗겨내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취소하도록 사용함	왕하 18:13-18
므낫세 (유다 왕)	하나님의 전에 이교도의 제단을 놓았다.	왕하 21:1-8
느부갓네살 (바벨론)	1차, 2차 침략 때 성전에 쳐들어갔다. 3차 때 성전을 파괴하였고, 그 안의 모든 보물을 가져갔다.	왕하 24:13-17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겔 4:9 – 에스라의 건강식
- 겔 7장
- 대하 36:21 – 포로기간이 70년니 된다는 예언
- 시 89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히 에스겔서 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라라..."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유의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가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간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난다.

오늘 나와 우리는 이런 상황과 다른가?

나는 정말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잘 알고 있는가?

성경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분에게 내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 시 89 편에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 나의 이해이며 그 분에 대한 찬양인가를 묵상하라.

제 52 일	
--------	--

읽는 범위:	애 1~5 장, 왕하 25:22~26, 렘 39:11~44 장, 겔 33:21~33, 겔 19, 겔 22:23~31, 겔 25~28 장, 3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시대
-------------------------------------

- 예레미야 애가 -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함

조선이 1905 년 을사보호 조약에 의해 일본에 합병되자 1905 년 11 월 20 일 황성신문에 장지연 논설위원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하루 목 놓아 우노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예레미야 애가는 다섯 장의 시(詩)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詩)는 B.C. 586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야기된 대 파괴와 비탄에 대한 마음을 찢는 외로운 부르짖음이다. 절망과 함께 각 시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으며, 또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암시,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포함한다.

애 3:21-33 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라. 또한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애가는 계시록 18 장과 다음과 같이 대조된다. 애가서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는 모습이 나오고, 계시록 18 장에는 땅의 상인들이 물질과 탐욕의 도성 바벨론이 함락함을 보고 우는 모습이 나온다.

- 바벨론에 의해 임명된 총독 그달랴에 항거하는 무리들 (왕하 25: 22-26)
-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은 자들의 삶 - 예레미야가 애곡으로 감 (렘 39-44 장)
- 에벳멜렉의 구원 약속 (렘 39:16-18)
-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의 멸망 예언 (겔 25-27 장)
- 에스겔 28:11-19 은 이사야 14:12-15 과 더불어 몰락한 천사, 즉 사탄에 대한 묘사로 풀이되기도 한다. (cf 누가 10 : 18)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 예레미야, 에스겔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애 2:13-17 – 멸망의 이유(참고 레 26장)
- 애 3:21-33,
- 렘 33:30-33
- 렘 39:16-18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겔 33:30-33 을 깊이 묵상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제 53 일

읽는 범위: 욕 1, 시편 137, 렘 52:28~30, 겔 33:1~20, 겔 34~39,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시대

오바다

자기 친척들이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에돔이 교만하고, 득의양양하며 중립을 지킨 것과, 심지어 고소하게 여기고, 공격하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보여 주고 있다(1-14절). 만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에돔은 반드시 언젠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15-16절). (참고, 민 20:14-21, 겔 36장)

방관자도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라. 미국의 대통령 John F. Kennedy는 그의 저서 '용기 있는 자'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방관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다. 방관자, 그들은 비겁하고 기생충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 시편 137 :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부른 <가고파>

이태리의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나부코"의 Part 33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시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번 들어 보시라.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 겔 34장 :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회복을 약속해 준다. 그들은 다양 같은 존재들이고 그 양을 이끄는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 준다(11-16절).
- 겔 35장 :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임을 말한다.
- 겔 36장 : 황무해진 이스라엘의 땅에 사람이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함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을 준다. 그 고토에 들어 갈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언약이다. 이것은 37장의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겔 37장 :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 (창 2:7) 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생기를 넣어 생령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회복이다.
- 겔 38장 ~ 39장 : 에스겔의 묵시적 예언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인물들

-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욥 1:10-14
- 시 137편
- 겔 33:10-20
- 겔 34장 - 선한 목자상
- 겔 36장 - 새 언약장
- 겔 37 장 - 온전한 회복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겔 34 장은 진정한 성경적 목회자(지도자) 상을 말해 준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라. 진정 교회가 이런 리더십으로 교회와 더 나아가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로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9 절)

- 겔 36 장 37 장을 깊이 묵상하라.

마름 뼈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소생하게 된다. 그 생기가 36 장에서 말하는 “새 영”이다. 오늘 나의 삶은 바른 뼈 같은 삶인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 소생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의 질문에 늘 대답하는 삶을 살아 소생하기를 축복한다.

제 54 일

읽는 범위:

겔 40~48 장, 겔 29:17~21, 겔 30:1~19, 왕하 25:27~30, 렘 52:31~34, 사 13 장~14:23, 사 21 장, 사 33~35 장, 단 5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시대

- 겔 40장 ~ 42장 : 에스겔의 제2의 성전 환상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상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성전은 법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환상은 회복의 희망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

🍷 이스라엘의 성전들

- 1) 솔로몬의 성전 - 제1성전 BC 966-959 동안 건축. 바벨론 군대에 의해 BC 586년 5월 7일에 파괴.
- 2) 스룹바벨 성전 - 솔로몬 성전 파괴일로부터 70년 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 옛터에 재건.
- 3) 헤롯 성전 - 헤롯이 군중의 환심을 얻기 위해 BC 20년경에 시작해서 주후 64년에 완성된 성전.  
주후 70년경 로마군에 의해 파괴. 현재 그 자리에 회교의 성전이 들어서 있다.
- 4) 에스겔 성전 - 실제로 건축되지 않은 성전. 신앙 속에 있는 성전 . 하늘에서 완성될 성전.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의 영적 의미
위장이 있음	위장이 없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짐 (마 27:51)
진설병상이 있음	진설병상이 없음	예수님이 산 떡으로 오셔서 완전한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짐.
등대가 있음	등대가 없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사 어두움을 밝힘.
언약궤가 있음	언약궤가 없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필요 없음
	동문이 닫힘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음

- 여호와 삼마 - 에스겔 48:30-35

그 뜻은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The LORD is there)”이다. 요컨대 그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구적으로 교제를 나눌 것이라는 의미이다 (요한 계시록 21:3).

이사야

- 21장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며 이는 포로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100년의 예언이고, 11절의 두마는 에돔을 말하며. 에돔과 아라비아 족속들의 파멸도 예언되는데 이는 B.C. 715년 사르곤이 아라비아를 공격함으로 실현된다.
- 33장 : 구원을 비는 기도와 영광스런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 34장 :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최후를 언급한다,



- 35장 :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 회복을 말한다.
- 단 5장 : 다니엘과 벨사살

B.C. 539년,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한 손이 나타나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은 ‘한 므나, 한 므나, 한 세겔과 반 세겔’이라는 말로서 ‘메네(세다)’ ‘데겔(달다)’ ‘베레스(나누다)’라는 뜻으로 측정하는 의미의 단어들의 나열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벨사살의 시대를 세웠고, 그의 능력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었다. 다니엘은 그 글의 의미가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에 의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풀어 준다. 그날 저녁 ‘메대 사람 다리오(고레스의 바벨론 이름)’가 벨사살을 사살하고 왕이 되는 역사상 가장 희귀한 정권 교체이다.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인물들

- 다니엘, 에스겔,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의 다리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겔 47:9 – 생수의 강(예수), 생명수 강(창세기, 요한계시록)
- 사 14:11-20 – 사탄의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
- 사 35장
- 단 5:22-31 – 바벨론의 최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겔 48:30-35 “여호와 삼마”.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했다(고전 6:19).

그 분이 여호와 삼마이시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성화적 구원의 과정이다.

- 사 35 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누리다.

제 55 일	
--------	--

읽는 범위:	사 40 ~ 55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시대
--------------------------------------

이사야 40장 ~ 55장 줄거리 따라잡기 :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39장의 장면과 40장의 장면 간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간다. 70년 동안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기다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계의 주권자(主權者)이심을 보여 준다. 그는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 왕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B.C. 약 539년),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창 22:18).

40~48장 : 위대한 해방자는 바사의 새 왕 고레스가 될 것이다. 그의 격려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49장~55장 :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죄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 부터 역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 성취할 영광스러운 세계적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 준다.

이사야서에 4군데 '종의 노래'가 나온다. 종의 노래가 나오는 구절은 42:1-4, 49:1-6, 50:4-11, 52:13~53:12이다.

- 선지서 내용 구조 4가지 중 '회복'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 이사야 40장 ~ 66장은 이사야서 후반부로 은혜가 강조되는 신약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늘 읽는 범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사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사 40:28-31
- 사 41:8-10
- 사 42:1-6 – 주의 종, 메시아
- 사 43:1-7, 18-21
- 사 44 장 – 유일신 여호와, 그는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이시다.
- 사 47 장 – 바벨론 심판 – 계시록 motif.
- 사 49:13-16
- 사 52:7-8
- 사 53:1-9 – 고난 받는 종 – 메시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사 41:9-10, 사 43:1-7, 사 49:13-16 을 깊이 묵상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를 견인하시며 성령의 인을 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고 계시는가를 살며 보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왜 있는가?
- 사 44:9-20 까지는 우상 섬김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겼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떤가?
- 사 53 장은 고난 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히 3:1)

제 56 일	
읽는 범위:	잠 22:17 ~ 24 장, 잠 30 ~ 31 장, 욥 1 ~ 11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시대	

- 저자 미상의 잠언 33가지 - 부자가 되는 지혜 또는 부자가 가져야 할 품성을 말해 주고 있다.
- 잠언 30 ~ 31장 -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을 읽는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 욥기

- 욥기를 여기서 읽는 이유 - 포로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의 시대이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을 복을 주시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요 훈련의 시기이고,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기간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종 메시야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소망과 회복의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신다.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 고난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연단임을 말해 준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이지만 여기서 읽는 것은 이때가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다루는 욥기를 읽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욥의 이야기가 이 때 집중 조명을 받게 되고 문서화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욥기는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의 본성을 보여 주며, 참된 의, 즉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자기 의”(자기중심성)이 내려져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

- 욥기는 신정론(神正論)을 다루는 책이다. - 신정론의 답은 인과응보(因果應報)에서 찾을 수 없다. 루터의 말처럼 종말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신약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 욥의 3 친구의 접근법은 인과응보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잠 22:29 – 자기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되라.
- 잠 24:33-34
- 잠 30:5-9
- 잠 31:10-31 – 아내의 덕목과 품성
- 욥 1:7-12 : 기복신앙의 위험성
- 욥 2:21 – 공수래공수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욥 10:2-6 – 성육신을 해야 할 이유-?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욥 1:7-12 의 의미를 묵상하라. 나의 신앙은 기복 신앙에 근거라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라.
- 욥 1:21 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를 의미하는가? 우리의 생사관이 공수래공수거인가?
- 신정론은 인간의 고통의 이유를 찾는 철학적 탐구로 시작되었다. 성경의 신정론은 시 37 편 , 예레미야 12:1, 하박국서, 욥기에서 주로 다룬다. 이 탐구의 답은 신위, 종말론적이다.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묵상하라. 나의 이 질문도 종말론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제 57 일	
읽는 범위:	욥기 12-24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시대	

인물	고난의 관점
사단의 관점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다.
욥의 세 친구의 관점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엘리후의 관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는 방법이다. - 이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 주는 것이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특징	신학자, 실용주의자	역사가, 율법주의자	도덕가, 독단론자	신학자, 지성인
의존대상	경험	전통	가정	교육
인격	사려깊음	논쟁적임	노골적(직선적)	예리함
무슨소리	철학	역사	정통	논리
논고	"죄를 범하면 고난 당한다"	"네가 죄짓고 있음이 틀림없다"	"네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은 순결케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욥에게 준 충고	악한 자만이 고난 당한다	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당한다.	악인은 징수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라
열쇠가 되는 구절	48, 5:17	8:8	20:5	37:23
하나님께 대한 관념	의로우심,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을 축복함	심판관, 움직일 수 없는 입법자	급할 수 없는 무자비한 분	훈련자, 교사
어름의 의미	하나님은 금 하나님은 집행자	"다痛的 아들"	"덜어 많은"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욥 23:10 –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욥의 세 친구가 보는 고난의 관점을 묵상하라. 그들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의 고난에 대한 관점은 어떤가?
- 상담의 역기능이란 말이 있다. 피상담자를 지나치게 위로하고 지나치게 자존감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이라는 말은 무색해 질 수 있다.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지혜가 필요함을 욥기에서 배우라.

제 58 일	
--------	--

읽는 범위:	욥기 25-4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포로시대
------------------------------------

- 엘리후의 견해를 정리.
-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 욥33:12-13
-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 33:29-30
-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일에 따라 보응하신다. - 욥34:10-12
-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과 고난 받는 자를 도우신다. - 욥36:6-7
-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 36:8-10
- 38 장 ~ 41 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욥에게 70 가지의 질문으로 도전하신다.

하나님의 도전		욥의 응답	
첫째, 욥의 무지 (38:1-40:2) ■그는 창조의 순간에 없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설명할 수 없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용해 짐 (40:3-5)	
둘째, 욥의 연약함 (40:6-41:34)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파기할 수 없다. ■그는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 없다.		욥은 자신의 건방짐을 인정하고 회개함 (42:2-6)	

		대화내용	해당구절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	하나님	땅, 바다, 하늘의 창조에 관해 질문하심	38:1-38
		동물계에 관해 질문하심	38:39-39:30
	욥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심	40:1-2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하며 대답할 말이 없음을 고백함	40:3-5
하나님과 욥의 두 번째 대화	하나님	욥에게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도전하심	40:6-14
		욥과 하마의 능력을 비교하심	40:15-24
		욥과 악어의 능력을 비교하심	41:1-34
	욥	자신의 생각과 이해가 부족함을 고백함	42:1-3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회개함	42:4-6
욥과 친구들의 구원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며 번제를 요구하심	42:7-9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욥, 회복된 욥의 부귀영화	42:10-17

- 욥의 변화 – 욥 42:1-6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욥 29:11-17 –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 욥 42:1-6 – 욥의 참된 변화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욥 29:11-17 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 욥 42:1-6 에서 욥의 변화를 묵상하라. 23:10 에서 연단 받고 정금같이 나온 욥의 모습이다. 그 핵심은 신위 앞에 인위가 내려지고 자기중심성이 변화된 모습이다. 나의 변화도 이런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 59 일	
--------	--

읽는 범위:	에스라 1-4 장, 학개 1-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귀환 시대
---

- BC 539년 고레스 칙령 - 고향 앞으로! - 렘 29:10과 사 44:28의 성취

민족 이동에 관해	1차 이동 - 출애굽	2차 이동 - 포로귀환
어디에서 얼마나 있었나	애굽-430년간	바벨론-70년간
이동한 수	약 200만 명	약 6만
여행 기간	40년-2차에 걸친 가나안 입성	100년-3차에 걸친 귀환
인도자	모세, 아론, 여호수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목적	가나안 땅 차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	홍해, 사막, 대적들	폐허지, 자원 부족, 주변의 방해
어떤 실패를 했나	불평과 불순종-그 결과 몇 주면 끝날 수 있는 여행을 40년이나 끔	두려움과 낙심-그 결과 몇 달이면 완료될 건축 공사가 약 100년이나 걸림.
어떤 성공을 했나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함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함
교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기억 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보존함.

	제1차 포로 귀환	제2차 포로 귀환	제3차 포로 귀환
귀환연대	주전 537년	주전 458년	주전 444년
인솔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바사 왕	고레스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1세
조서 내용	· 포로민의 귀환 허가 · 성전 건축의 허가 · 성전 기물의 반환과 건축 재료의 지원	· 포로민의귀환 허가 · 그에 따른 국고 지원 · 성직자 세금 면제 · 관리 조직의 허용	· 예루살렘 성벽 중건 허락 · 예루살렘 성벽 중건시 건축 재료의 지원
귀환자 수	대략 5만 명	대략 2천 세대	적은 일단의 그룹
관련 사건	· 성전 건축 공사의 시작 · 초막절 준수	· 에스라의 종교 개혁 · 이방인 아내와의 이혼	· 예루살렘 성벽 중건 · 에스라의 율법 교육
살펴보기	에스라 1-6장	에스라 7-10장	느헤미야 1-13장

- 1 차 귀환 - BC 536 ~ 성전의 재건 - 1 차 귀환단 스룹바벨, 세스바살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 에스라

- 학사, 제사장 - 2 차 귀환 때 돌아오다.
- 1 ~ 2 장 - 1 차 귀환의 상황 기술. 돌아 온 자의 수는 약 5 만 정도에 불과
- 3 ~ 4 장 - 예배의 회복 - 말씀의 능력 -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을 시도하다.

### 학개

- 성전 재건이 방해 받게 되자 이를 독촉하고 격려함.
- 예언의 초점이 심판에서 복(회복)으로 전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학개 2:4-9 - 살아있는 돌로 지어질 성전 - cf 벨전 2:4-5, 고전 6:19-2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학개 1 장에서 돌아 온 귀향민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질타한다(학 1:3).  
오늘 당신의 우선순위를 성경의 통전적 원리에 의해 점검해 보라. 무엇이 잘못 되었고 왜 그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 학개 2:4-5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으뜸가는 이유는 '우리과 함께 하심'에 있음을 말한다, 그것이 성막, 성전의 존재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성전을 모시는 성전(벨전 2:4-5, 고전 6:19-20)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즉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제 60 일	
--------	--

읽는 범위:	스가랴 1-8 장, 에스라 5-6 장, 다니엘 6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귀환 시대
---

#### 스가랴

- 언약 위반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미래에 이루어 질 일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가랴도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이었다.
- 1~6 장에서 8 가지의 환상을 보여 준다.

환상들	의미
4마리의 말 (1:8-17)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4불과 4대장장이 (1:18-21)	'네 불' 은 세상의 4대 세력을 '네 공장(工匠)' 은 그 불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킨다.
측량줄 (2장)	정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임을 의미한다.
여호수아의 옷을 새로 입힘 (3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으로 거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금촛대 (4장)	성령이 유다 백성의 지보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임을 의미한다.
두루마리 (5장)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한다.
여인 (5장)	이 '여인' 은 · 죄 와 반역을 상징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4대의 전차 (6장)	온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 7~8 장 - 순종하는 삶과 회복을 보여 준다.
- 다니엘 6 장 - 사자 굴에 갇히는 다니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슥 3:1-5
- 슥 4:6
- 슥 7:6 – 금식(형식)보다 순종(삶)을 원한다.
- 슥 7:9-10 – 신명기 14:22-29의 십일조의 정신
- 단 6 장 – 사자굴 속의 다니엘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슥 4:6 을 묵상하라.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다.  
사도행전 1:8 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는 말씀과 함께 깊이 묵상하라.  
신위와 인위의 문제이다.
- 단 6 장의 다니엘의 믿음을 묵상하라.  
말씀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곧 구별된 삶이다.  
나의 삶은 성경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 형식보다 삶을 통한 순종이 중요하다.  
종교가 형식에 빠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

제 61 일	
--------	--

읽는 범위:	역대상 1-9 장, 에스더 1-2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귀환 시대
---

#### 역대상

- 역대기는 에스라가 제사장 사관에 의해 기록한 역사서이다. 따라서 성전이 중심이 된 남 왕국 역사만 기록 하고 있다 1장에서 9:34까지는 창조부터 사울 왕 전까지의 역사를 족보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 역대기는 BC 400년대에 쓰였고, 아담에서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시대를 망라하면 역대기의 저자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1) 다윗 가문에 메시아가 오는 것과 2) 성전의 바른 예배.
- 사무엘 열왕기는 과거 지향적이라면 역대기는 미래 지향적이다. - "Let's move on."을 외친다.
- 헬라어 70인 역의 역대기 명칭은 "Paraleipomena" 즉 '남은 것을 보충하다' 라는 뜻으로 열왕기 역사를 보충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 역대기는 제사장 사관에 의한 역사서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 에스더

- 여인이 주인공인 2권의 책 룯기와 에스더  
차이점 – 이방여인이 유대인과 결혼(룯기), 유대여인이 이방 남자에게 결혼(에스더)  
공통점 –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다.
- 바사왕 아하수제로(크세르크세스) 왕 시절에 귀환하지 않은 포로들에게 일어 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주는 책. '하나님' 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주관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다.
- 부림절(Purim)의 기원을 보여 준다.
- 1장 – 왕비 와스디의 폐위, 2장 -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 왕 암살 음모를 모르드개가 밝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역대상 3 장 – 다윗 왕조의 계보
- 역대상 4:10 – 야베스의 기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조지 버나드 쇼(G. B. Shaw)가 이런 말을 했다. “위대한 사람처럼 참으로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들의 위대함의 99%의 가능성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  
대상 1 장 ~ 9:34 까지의 족보를 읽었다. 발음하기도 힘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다. 그들은 이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사역에 쓰임 받으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3 권의 책이 나온다.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이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99%의 가능성 +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 그 기록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대상 4:10 은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야베스의 기도’ 의 근거가 된 구절이다. 성경에는 이런 식의 구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들을 기복신앙을 합리화하는 근거 구절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복주머니로 삼아 버리는 꼴이 된다. “네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에서 나의 ‘지경’을 복의 지경이 아니고, 순종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순종의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대되어 지기를 기도하는가?

제 62 일	
--------	--

읽는 범위:	에스더 3-10 장, 에스라 7-10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귀환 시대
---

#### 에스더

- 하만의 눈에 거스린 모르드개 그로 인해 온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그 날을 제비 뽑아 정하다  
– 부림(purim)
- 4:14에서 읽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15절 -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하는 에스더.
- 하만의 몰락 – 구원하시는 하나님 – 부림절의 시작

#### 에스라(7~10장)

- 성전 재건 완성과 에스라 귀환 사이에 50년의 시간이 흐른다.
- 에스라의 주 임무는 여호와 신앙의 회복, 곧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다.
- 9장 – 에스라의 기도 – 7:10 “에스라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 이 말씀 이대로 말씀 사경회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 부흥시키다 (참조 느헤미야 8:5-12).
- 10장 - 왜 이혼을 먼저 시켰을까 – 9:11의 내용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를 기억하라.  
(참고: 출 23:20-33, 신 7:1-11,16, 수 23:5-13)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에스더 4:14-17
- 에스라 8:22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에스더에서 섭리주 하나님을 만났는가?

특히 4:14 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신가?

- 에스라 9 장의 기도를 읽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특히 2 절이 왜 심각한 죄인가? 11-12 절을 레위기 26 장, 신명기 28 장과 함께 시내산 언약에 의거해서 깊이 묵상하라.

에스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으로의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 63 일	
읽는 범위:	느헤미야 1-10 장, 요엘 1-3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 귀환 시대	

### 느헤미야

- 이 책이 커버하는 시간은 B.C. 444~415년이다.
  -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즉 믿는 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를 위한 중요한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 약 12년, 그리고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9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왕에게 접근하여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낸다.
  - 돌아온 느헤미야는 폐허를 돌아보고 B.C. 444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1~3장). 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반대를 만나게 되나,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으로써 흔들림 없이 저항하며 진행한다.
  - 그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실행하며, 성벽 건축을 완성한다(4~6장).
  - 에스라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회개의 금식을 행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에 서명한다(7~10장).
  - 예루살렘에 백성이 살도록 배치되고, 성벽을 봉헌하며 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11~12장).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오고(B.C. 약 433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좀 더 많은 개혁을 수행한다(13장).
-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Leadership – 삶의 모든 경우에 적용해 보라.
- 일을 시작하기 전에:**
-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움.
  -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정리함.
  - 언제나 특히 일이 어렵고 시급할수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
  -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함.
  -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직접 살펴보는 습관이 있음.
  - 계획을 정리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
- 일을 시작했을 때:**
- 일에 몰두하여 전심전력을 다함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줌.
  - 대적들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보여 줌.
  - 난관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함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까지 참고 기다림. (하나님의 때(Kairos)와 사람의 때(Kronos)를 기억하세요)
  - Donald K. Campbell "Nehemiah – Man in Charge" Victor Books, 1979

### 요엘

‘요엘’의 뜻은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며, 이 뜻처럼, 요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강조하는 책이다,

- 1) 과거의 메뚜기의 재앙 2) 과거의 가뭄 3) 임박한 주의 날 4) 궁극적인 주의 날
- 요엘은 시대적 배경을 찾기가 불가능한 책이다. 성령 강림을 보여 주는 부분이 종말의 의미를 한다고 보아 마지막에 위치하게 했다.

요엘 2:28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 된다.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욥 2:28
- 느 8:5-12
- 느 9장
- 느 10:29-39, 13 장 – 말라기의 배경.

####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묵상해 보라, 대적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주도 하에 포로 귀환민들은 52 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모두 끝낸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다. “건축 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된 기금은 3 실링뿐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책상 위에 실제로 동전 세 닢을 꺼내 놓았다. 기자들은 웃었다. 이 수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진지했다. “이 3 실링과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 실링과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민들 만으로는 결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었다(6:25-26). 결국 인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에서 초점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잠 16:3,9 참고). 인위가 아니고 신위이다. 무엇을 느끼는가?

제 64 일	
읽는 범위:	시편 1, 91, 119, 느헤미야 11,12 장, 시편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귀환시대	

• 시편 1 편 의 중요성 - 포로귀환 후의 찬송가 편찬

시편은 언약백성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볼 수 있다. 시편이 지금의 150 편 체제로 편집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추정 된다. 왜냐하면 시편에 바벨론 포로 때의 형편(시편 137 편)과 바벨론 포로귀환 때의 정서(시편 126 편)를 노래한 시가 있기 때문이다.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뒤에 이스라엘의 찬송가 편찬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시편 1 편을 첫 번째 찬송가로 배치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생활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 아프게 추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찬양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시편 1 편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편 1 편은 이스라엘의 찬송가, 즉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복 있는 자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율법을 사랑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생활의 징계를 당했는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숭배를 좇고 여호와와 율법을 헌신짝같이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율법을 사랑치 않고 그 율법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포로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찬송가 편찬자들은 이러한 뼈저린 각성 가운데 여호와와 율법 사랑을 강조하는 시편 1 편을 찬송가의 서두에 배치했을 것이다. 여호와 찬양자는 진정 여호와와 말씀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시 91 편 : 이 시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시이다. 이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백성을 교육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시편 119 편 : 에스라가 저자이다. 율법 공부를 강조하면서 율법으로 백성을 재교육하는 에스라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편은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다.

• 느헤미야 11:1 ~ 12:30 - 귀향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기 시작한다. 거주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성전을 봉헌한다.

• 시편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시편 120~134 편까지 모두가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시편들이다.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귀향민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면서 이 문맥에서 이 시편들을 읽으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시편 1편
- 시편 92편
- 시 119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시편 1 편의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부류가 복 받는 삶을 사는 자라고 했나? 왜 그 사람은 복을 받나?  
오늘날에도 이에 준한 2 부류의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의 어떤 상태인가?
- 시 91 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당신의 믿음이 이런가?  
이런 모습이 당신의 삶인가?
- 시 119 편에서 성경읽기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성경 읽기에 도전 받고 있는가?

제 65 일	
읽는 범위:	시편 104, 107, 111, 112, 113, 120, 128, 130, 131, 132,133, 134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귀환시대	

- 시편 128, 129, 130 131, 132, 133, 134

시편 120~134편은 모두가 성전에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시편들이다.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귀향민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하면서 이 문맥에서 이 시편들을 읽는다.

- 느헤미야 12:31-47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하며 감사 예배를 드린다. 각기 찬양대가 이끄는 두 행렬의 반대 방향으로 성벽위를 걸어서 성전 지대에서 만나서 감사와 제사로 끝을 맺는다. 즐거운 축제 소리기 멀리까지 들린다. 그런 감격으로 다음의 시편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자.

- 시편 104, 107, 111, 112, 113

위의 시편들은 여호와와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감사를 올려 드리는 영광송(doxology)의 시편들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 시 128편
- 시 130:5-6 –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 듯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심정.
- 시 133:1 – 연합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합을 생각해 보라.
- 시 112:1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시 128 편에서 복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진정 나는 이런 복됨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라.

- 시 112:1 에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을까?

제 66 일	
--------	--

읽는 범위:	시편 114, 115, 116, 117, 118, 135, 136, 146, 147, 148, 149, 150.
--------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귀환시대

- 시편 114, 115, 116, 117 118, 135, 136, 145, 146, 147, 148, 149, 150

위의 시편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를 올려 드리는 영광송(doxology)의 시편들이다. 성벽 재건을 완성한 것은 돌아 온 포로들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여호와를 감사하며 송축합시다.

- 시 115 는 우상 숭배로 인해 포로 신세가 된 것을 회개하듯 우상의 무용성을 언급한다.
- 시 118 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의지할 존재임을 찬송한다.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시 115:4-9 – 시 135:15-18
- 시 118:8, 14, 22-29
- 시 146:3-5
- 시 147:10-11 신위 앞에 인위를 내려놓아라.

###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시 115 와 135 는 우상의 무용성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우상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듯하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이고 그 우상은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우상처럼 무용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대도 왜 그것을 버리지 못할까?

- 시 118, 146:3-6 은 오직 여호와 한분만이 의지할 분이고 또 그렇게 의지하면 복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그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 당신은 '오늘도 성경 읽으셨나요?'

- 3 차의 포로 귀환이 갖는 영적 의미를 묵상하라

1 차 성전 하나님의 임재

2 차 사경회 하나님과 관계 회복

3 차 성벽 삶을 보호 –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제 67 일

읽는 범위: 느 13 장, 시 92, 말 1 ~ 4 장, 사 56 장 ~ 6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포로귀환시대

-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 느헤미야 13:1-22 - 다시 황폐해진 성전을 보고 분노하다  
성전 황폐의 이유 - 시내산 언약 정신의 희석 - 십일조 정신을 잃어버리다(신 14:22-29 참조)
- 느헤미야 13:15-22과 예수님의 성전 청결 -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성전모독은 곧 신성모독이다. 그런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처형한다.
- 시편 92 (드디어 시편을 다 읽었네요) - 안식일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
- 느헤미야 13:23-31 : 다시 이방인 아내들을 맞는 유대인들 -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재차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13:23-31).

말라기 - 구약의 마지막 책 - 다시 관계가 말라 죽음을 기록한 책

- 말라기가 말하는 2가지 악(惡)
  - 1) 형식주의 - 신약에서 바리새인이 계승
  - 2) 회의주의 - 신약에서 사두개인이 계승
-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갈 것을 보여 준다 - 1:11
- 말라기 3장과 4장의 그리스도의 오심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말라기의 예언	신약의 성취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전에 오신다(3:1).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케 하신다(3:3).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케 하신다. (요 2:14-17)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깨끗케 하신다. (히 13:12)
그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난다(4:1).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계 20:11-15)
의의 태양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치유하신다(4:2).	그리스도는 대중들을 치유하신다. 궁극적으로 모든 병자가 나을 것이다. (마 12:15; 계 21:4)
앞서 온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3:1; 4:5).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마 11:10-14)

- 말라기의 마지막 절(4:5,6)은 누가 1:17장으로 연결된다.
- 이사야 56장 ~ 59장 :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와 관점 2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회복을 위해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한다(57장). 각종 신앙규례를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58장).
- 이사야 60 장 ~ 66 장 :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느 13:3
- 시 92:12-15 - 노인은 여전히 성장한다.
- 말 1:11 -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감을 말한다.
- 말 3:13-15 - 결정타
- 말 4:1-6
- 사 58:6-12
- 사 61:3
- 사 65:17-25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이사야 58 장 6-13 절에서 본 교회의 역할.

오늘 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웃을 향하여 '물댄 동산' 같아야 하고, 그 세상에 공급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구심성을 갖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신비주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개혁하는 원심성을 가져야 하며 세상을 향해 흠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합니까?

- 사 66:2, 5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의 구절과 빌 2:12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오늘 이루라."는 바울의 권면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려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 시 92:12-15 에서 여호와와 뜰에 심긴 나무 같은 자의 노년은 어떠하다고 했는가?  
나는 지금 여호와와 뜰에 심긴 나무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제 68 일

읽는 범위: 속 9 장 ~ 14 장, 단 7 장 ~ 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구약 끝 - 중간기 시대

• 스가랴 9장 ~ 14장 - 스가랴서의 후반부. - 메시아에 관한 예언.- 오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다.

• 단 7장 ~ 8장 - 중간기 시대에 대한 예언 - 도표 참조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에서 일어날 것이다(네번째 왕국).</li> <li>■ 열 한 뿔이 있고, 열 개 중 세 개가 뿌리뽑힐 것이다.</li> <li>■ 하나님의 백성을 42개월 또는 3.5년 동안 박해할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에서 일어날 것이다(세번째 왕국).</li> <li>■ 다섯 뿔이 있고, 네 뿔 사이에서 한 뿔이 나올 것이다.</li> <li>■ 하나님의 백성을 2,300일 또는 6년이 넘도록 박해할 것이다.</li> </ul>

7:8과 8:9의 뿔은 다른 것이다. 7:8의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을 미래에 다시 일어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본다, 다른 해석은 이것을 고대 로마 황제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한다. 두 번째 작은 뿔은 B.C. 175-163년간 수리아를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더럽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킨다.

• 단 9장 : 다니엘이 기도속에 시내산 언약 파기에 대한 회개를 읽을 수 있다.  
 • 단 10장은 인류 역사의 배후인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얼핏 보여 준다.

• 단 11장에 나타난 예언의 의미 - 중간사 역사를 예언함

바사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의 뒤를 이어 즉위한 세 명의 바사 왕들(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이 통치한 후에, "아하수어로" 왕으로 알려진 '크세르크세스(Xerxes)'가 왕이 되고, B.C. 479년경에 헬라(그리스) 정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살라미스 전쟁), 바사 제국은 약화되고 망한다.

그리하여 이제 다니엘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와(11:3),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4명의 장군들 톨레미와 셀레우코스와 카산더와 리시마쿠스 분쟁을 예언한다(11:4).

다니엘서 11장에 언급된 "남방의 왕들"(11:5)은 당시 애굽의 통치자들인 톨레미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고, "북방의 왕들"(11:6)은 수리아의 통치자들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여섯 명의 톨레미 왕조의 왕들과 일곱 명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들의 동맹, 전쟁, 결혼, 그리고 음모는 현실화되었다.

다니엘서 11:21-45 부분은 비천한 북방 왕에 의해 자행된 유대교 박해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다.

여기서 “비천한 북방의 왕”은 유대교 박해자로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주전 175-163)를 가리키는데, 그의 출세와 득세, 그가 자행한 극심한 유대교 박해 사건, 그의 교만과 우상 숭배. 그리고 그의 최후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부패한 권력자의 횡포가 그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의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지를 잘 보여 준다.

• 다니엘이 섬긴 왕들 (단 1-12장)

다니엘은 모두 4명의 왕을 섬겼다,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 바벨론의 벨사살, 3) 바사-메대의 고레스, 4) 바사-메대의 다리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속 9:9-11 – 오실 메시아(겸손히 나귀타고 오신다)
- 속 11:16-17
- 단 7:9-14 – 인자 (메시아를 말한다)
- 단 9 장 – 다니엘의 기도 – 시내산 언약에 근거한 회개 기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시대에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 소위 인류의 3 대 성인이 탄생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위와 인위의 개념을 근거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 69 일	
읽는 범위:	마 1-4 장, 막 1 장, 눅 1-4 장, 요 1-4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신약 복음시대	

제1부 서언

- 예수님의 선재성 (先在性 Pre-incarnate Existence)- logos의 개념
- 예수님의 인간 족보

제 2 부 :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이 잉태되기 6개월 전에 스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이 태어 날 것을 알리고, 6개월 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 탄생 결례 예식을 마친 후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B.C. 6 ~ A.D. 8년)

❖ 마리아의 찬가(Magnificat)에서 보는 기독교의 엡센스 3가지

- 1)"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눅1:51) - 교만 타파.
- 2)"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눅1:52) - 정치, 사회적 개혁.
- 3)"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1:53) - 경제적 개혁.

제 3 부 : 예수의 공생애 시작

☼ 구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 오기 전에 그의 첩경을 곧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을 시작한다. 그의 외침은 "회개"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꿈꾸어 오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역을 시작 한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요한이 사역중인 광야와 요단강으로 나아가셔서 먼저 세례 의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루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험을 거친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시작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다. 이때가 B.C. 26년 봄이다.

예수의 시험



광야의 시험

우리는 언제나 우선 광야 앞에 서게 된다.  
 목마름이라는, 굶주림이라는, 절망이라는 광야.  
 그러나 절망이라는 조망(眺望)의 그 무한성.  
 결국에는 조망의 무한을 견디다 못하여  
 우리는 그것을 막아 줄 것을 구한다.  
 빵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온 세계라고 하는 모두는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공포를 잠시 동안 잊게 해 주는 벽.  
 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구하는 그 벽은 신기루의 벽으로서  
 그 벽 앞에 설 때 우리는 환상의 미로에서 길을 잃고 만다.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명령으로 벽의 마술을 깨뜨리는  
 강한 자만이 광야를 건너 진실된 거리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거리 변두리의 해골이라 일컬어지는 언덕 위에 있는  
 피 흘리는 나무 아래 도달할 수 있으리라.

다가하시 무쵸오

제 4 부 : 예수의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사역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사역의 사령부로 삼으시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했다가 그 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기적을 일으킨다. 그 후에 첫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약 8개월을 머물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한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고 중생의 교리를 가르쳐 준다. 세례요한이 헤롯에 대항하여 그의 악행을 설교하자 그를 체포한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일단 물러난다. 갈릴리로 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

제 5 부 : 예수의 갈릴리 대 사역 (AD 27년 가을에서 AD 29년 봄까지)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을 사역본부로 삼고 1년 반 가까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한다. 그 사이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그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묵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이 기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대중 사역과 제자들의 양육에 주력하신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요 10:10, 눅 4:17-21(사 61:1-4)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산 이유.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예수님의 생애를 읽었다. 다음 시는 그 생애의 메시지를 잘 보여 준다. 묵상하며 읽어보라.

### 한 고독한 생애

한 고독한 생애가 있습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마을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듯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200마일도 못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 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삼 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 간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이다.

하지만, 2천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온 중심 인물

보제요,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국사를 논의했던 정객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제임스 A. 프랜시스



-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변화처럼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로 인한 우선순위의 변화이다.

니고데모와 중생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니고데모는 중생을 어머니 배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신적 거듭 남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하는 중생(Born Again 重生)은 영적 거듭남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여정 중의 한 여정이다. 구원의 서정중 중생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과정이고,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영적 변화를 의미한다.

성화 과정의 중생은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요, 세상을 보는 안경이 바뀐다는 말이다. 그와 같은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가 없다.

중생,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세계관, 가치관, 즉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다음의 시와 함께 나는 무엇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묵상하라.

### 버리게 하소서

오 주여

버리게 하소서,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소서,

죄의 물든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하소서,

허물로 죽은

안목의 정욕을

버리게 하소서,

오 주여

버리게 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지식이 무엇입니까

버리게 하소서,

명예가 무엇입니까

버리게 하소서,

물질이 무엇입니까

버리게 하소서,

아아, 당신을 향한 공물을

바라는 가녀린 소망조차

버리게 하소서,

당신을 향한 사랑노래조차

버리게 하소서,

다만 모든 것을 버리신

당신을 채우소서,

- 작가 미상 -

-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비교 - 변화의 열매



니고데모는 당대에 명망 높은 유명 인사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는 시골 아낙네였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180 도 달랐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통해 이해하려고 했고, 그 결과 그는 중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안경으로 자기의 문제를 보려고 하였고 그 결과 그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중생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

물둥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인 - 배와 그물을 버린 어부들.

소유를 팔 수 없어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 (마 19 : 16-22)

이들은 버림에 대한 순종이 달랐다는 사실을 유의하라. 성화의 삶은 버림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순종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제 70 일	
읽는 범위:	마 5-8 장, 막 2-3 장, 눅 5-7 장, 요 5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신약 복음시대- 예수님 생애	

❖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이기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해 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4 : 18, 19)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 : 28)

❖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기도 생활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 여행)

마태 4:23은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여 주는 구절이라고 말한다. 1)가르치시고(Teaching), 2) 복음 전파하시고(Preaching), 3) 병자를 고치시는(Healing) 사역 등 3대 사역이다. 그런데 마태 9:35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36절에서 그 사역의 근거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 줍니다. 마태 9:35-36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개혁 성경은 이것을 ‘민망히 여긴다’라고 했음). 예수님의 3대 사역의 근거에는 바로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이 불쌍히(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원어에 보면, 스피랑크니조마이인데 그 통증의 정도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한 아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한자로는 환장(換腸)] 아픔을 느낄 정도라는 것이다.

❖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묵상하십시오.

이 본문(마9:9-17, 막 2:13-22, 눅 5:27-39)에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소외된 자들을 품는 나라이고, 외식(外飾)이나 형식(形式)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本質)을 중요시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세리를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다.

당시 세금 징수제도는 세리들이 마음대로 착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했다. 그래서 그들의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왕따 당하며 소외된 계층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러 오셨다고 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이다. 세리에서 레위의 직분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금식 규정을 나무라며 그들의 외형, 형식주의를 질타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을 역설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예수님이 말하는 “새 것”의 의미는 창조적인 것,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Neos(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새것)와 Kaios(이미 있는 것이 새롭게 되는 새것)이다.

예수님의 “새 것”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의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는 얼마나 새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매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고, 헌 천으로 더덕더덕 땀질이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예수님의 권세 ( AD 28년 봄, 유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38년간 긴 시간 속에 이 병자의 낫고자 하는 마음은 좌절과 절망의 도를 넘어 자포자기한 행동일 뿐, 낫겠다는 소망을 포기한지 오래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에 도전하는 질문이다.

바로 병이 낫는다(변화를 받는다)는 본질적인 것 보다 물에라도 한번 들어 가보자는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를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묵은 거동을 할 수 없는 병자가 있었다. 그 병자는 병을 낫고자하는 마음조차도 무디어져 이제는 물이 동할 때 한 번 그 물에 들어 가보는 것이 소원이 되어 버린 상태

일 것이다. 그는 변화에 대한 무능력자 또는 무관심하기 조차한 오늘 날의 우리와 같은 영적 무능력자이지 않을까?

변화의 시작은 진정으로 변화 받기를 원하며 자신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길 밖에 없었다.

진리는 내 마음 속에서 이해되어 집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나'를 벗고 주님 앞에 서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 ❖ 산상 수훈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산상수훈은 성경의 핵심이다.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은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 주기도문 중에 "나라이 임하옵시며"(6:10)는 바로 성경의 근원적 주제이다. 산상 수훈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십계명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회개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밝혀 주시는 것이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새 가치관을 말해 준다고 보는 대목은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옛것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한 교훈을 시작할 때마다 "...라고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한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 8복 (마태 5장)

축복	예수에 의한 모범	다른 자에 의한 모범	상급
심령 가난	벧전 2:22	요셉 (마 1:18-20)	천국
애통	마 26:37,38	욥	위로
온유	마 26:28-30, 요13:4,5	모세(민 12:3)	땅을 기업
의에 굶주림	요 4:34	바울(빌 1:21, 3:7-14)	배부름
공휜	눅 23:43, 히2:17	다윗	공휜히 여김
마음 청결	눅 2:40, 52	구약의 요셉	하나님을 봄
화평	엡 2:14-17	바나바	하나님의 아들 칭호
의를 위한 핍박	행 13:28	다니엘	천국

♣ 주기도문 (마태 6장)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  
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들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의 벽에 쓰여 있는 기도문을 옮긴 것 - 2004년 11월 17일자 인터넷 동아일보에서  
전재

♣ 황금률

산상수훈의 새 가치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① 돈에 관하여-마 6:19,20, ② 불안에 대하여-6:31-33, ③판단에 대하여-7:1 ④ 기도에 대하여-7:7-8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다음의 황금률로 행동화되어야 한다. ⑤ 황금률-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15-27에서 변화 받은 가치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지켜 행하라"를 기억하라.

산상수훈의 결론은 6:33"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마 4:23-25
- 마 5, 6, 7장. - 산상수훈
- 마 11:2-18, 28-3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우리가 날마다 “예수 더 닮기 원하네”라는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야 한다. 그것은 불교가 말하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인데 기독교의 공동체도 이에 못지않게 같이 울고 같이 울어 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하루의 바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일찍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새벽기도의 모범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들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信者입니까? 神子입니까? Christian 입니까? Churchian 입니까?  
당신 스스로는 어디에 속한다고 확신하는가?
- 앞의 주기도문의 멘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의 기도가 그렇지 않는가?
- 눅 5:27-26, 막 2:1-12(참고 마 9:2-7)에서 이 병자 친구 네 명에게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의 참 모습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랑은 손과 발에 있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의 이웃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마태복음 25 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동사이지, 결코 명사가 아니다. 그 사랑은 동사 중에서도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행한 이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제 71 일	
읽는 범위:	마 9-15 장, 막 4-7 장, 눅 8-9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신약 복음시대 – 예수님 생애	

- ❖ 옥합을 깬 여인 이야기
- ❖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여행
- ❖ 세례 요한의 죽음
- ❖ 예수님의 집중적 사역 (가버나움)

성령 훼방죄(Blasphemy)는 말로 하는 의지적인 범죄로서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비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Cranfield라는 신학자는 믿는 자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 염려 그 자체가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 예수님이 경고한 성령 훼방 죄의 3가지의 경우.

- 1)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은 진리를 일부러 배격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예수님의 분명한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했다.
  - 2)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존재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던 시절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말은 용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은 온전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령에 대해 불경한 태도를 갖는 것은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 3)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과거의 고의성 없는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고의적인 죄와 관련되어있다. 그런 죄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는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용서의 기회를 모두 놓치는 것이다.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 무당은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축출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사탄을 축출함으로 그가 오실 메시아이시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한다. 왜냐 하면 에덴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 무너졌고, 사탄은 그 후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끊임없이 방해해 온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곧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은 바로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은 계시록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다.

마태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서 모두 7개의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를 보여 준다.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 비유들이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유는 천상적 의미를 가진 세상적 이야기 (an earthly story with heavenly meaning)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가시적인 것(일 상적인 일)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자 함이다. 기독교는 결코 공허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 1) 첫 4개(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무리에게 주는 비유이며, 2) 나머지 3개(감춰진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는 제자들에게 주는 비유이다.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 13:1-9, 18-23)

☼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는 의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작지는 1.길가에 있는 밭, 2.돌밭, 3.가시밭, 4.옥토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각 경작지의 비유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길 가'는 강박한 마음을 말하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의미함.  
2 '돌밭'은 냄비체질 같은 마음.부흥회체질.  
3 '가시 밭'은 세상 근심과 걱정에서 찌든 마음.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 세상적 이성(理性)이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4 '옥토'는 그야말로 열린 마음이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神子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영성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에스겔서 36:25-27 "25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에서와 모든 우 상 송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는 의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도록 기다리는 심정을 가져야 하며,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사실이 말하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왕성함에 의해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감성이나 감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2. 가라지의 비유. (마 13:24-30, 36-43)

3. 겨자씨의 비유. (마 13:31-32)

4. 누룩의 비유. (마 13:33)

5. 보화의 비유 (마 13:44)



---

6. 진주의 보화 (마 13:45-46)

루터의 찬송가 384장 3절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라고 노래한다.

찰스 스펔전 목사님은 이 보화를 입수하기 위해 팔아 버려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낡은 선입견 - 가치관의 변화, 2) 자신의 의 (self-righteousness) - 패러다임의 변화. 3) 최악된 삶의 습성.

이사야55:1-2 “1오호라너희모든목마른자들아물로나아오라돈없는자도오라너희는와서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7. 그물의 비유(마 13:47-50)

마지막 때는 있고, 그 때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누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 때까지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의 천국에는 모두가 섞여 있다. 심판은 그 끝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는 사실을 명심하라. 심판은 절대적으로 오고, 그 구분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하다.

혈루병 여인, 아이로의 딸, 두 소경과 귀신들린 자를 고침 (가버나움)

예수님을 touch하는 여인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가지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가지는 본체에 붙어있어야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잡혀 갈 때 멀찍이 따라 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마 26:58).

□ 마태 9:35-38 □ 마가 6:6 하

6부: 갈릴리 지역 밖에서 강도 높은 제자훈련 (AD29년봄에서가을까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3번씩이나 떠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위를 걸으시는 기적, 4000 명을 먹이시는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등을 통하여 제자들은 강도 높게 집중 훈련을 합니다.

1.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다.

✧ 오병이어의 기적,

♣ 마태와 마가복음서의 기사에서 보는 제자들의 자세 (마 14:15-17 막 6:34-4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먹이도록 권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했는가를 유의해 보세요.

그들은 3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합니다.

- 1) "여기는 빈들이요"- 공간적 이유
- 2) "때도 이미 저물었고" - 시간적 이유
- 3)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 - 소유적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시간도 없으며, 나눌 만큼 가진 것도 없다는 변명하고 있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변명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눔과 섬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인호 "최인호의 팽세" 여백 2000. p 19-21) 물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갈릴리로 돌아감).

예수님께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로 보내고 소요사태를 수습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 잡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도 물위를 걷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방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는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약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마 12:26-29 (참고 창 3:15)
- 마 13:3-9
- 막 5:25-28 - 혈우병 여인의 믿음
- 마 10:5-15 - 제자들이 하는 일
- 마 10:34-39
- 마 13:1-11 - 인위의 문제(참고 막 7:1-22)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마 12:38-42 를 묵상하라. 오늘 날 예수님을 부정하며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현대판 바리새인과 세속인은 누구인가?
- 낮게 하려고 몰래 예수님을 touch 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잡혀 갈 때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예수를 따라 가는 베드로를 비교해서 묵상하라. 나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 그는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제 72 일	
--------	--

읽는 범위:	마 16-18 장, 막 8-9 장, 요 6-10 장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신약 복음시대 – 예수님 생애
---

♣ 요한이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이 사건의 독특한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를 바친 아이의 헌신에 대한 내용이다(요 6:1-59). 유대의 굶주린 무리를 먹인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일을 회상하셨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요 6:49)

하지만 광야시대의 만남은 일시적 생명만 공급되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로 영원한 생명이 공급됨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 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6:54,55,58).

이렇게 과거 광야시대를 회고하며, 장차 십자가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실 일을 바라보는 구속사적(救贖史的) 전망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요 10:10에 언급한대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바리새인과 전승(전통)에 관한 논쟁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승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이다. 전승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면 이단으로 빠진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2. 예수님이 2번 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다.

✧ 소경과 많은 병자를 고침

✧ 4000명을 먹임의 기적

✧ 예수님의 2번째 갈릴리로 돌아오심.

3. 예수님이 3번 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다.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교훈 (갈릴리 호수의 북쪽 변두리에서)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에 빠졌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현실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 왜 예수님이 이들을 누룩에 비유하여 조심하라고 했을까

누룩(yeast)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 반죽의 전체에 그 효력을 발휘하는 효모이다. 누룩처럼 한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태도가 공동체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실상 껍데기뿐인 율법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헤롯의 삶은 성적인 욕망과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가득 찬 세속주의자의 삶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부패한 영향력이 누룩같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한다. 믿는 자들은 이 같은 누룩에 침투당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와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결정해 줍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기독교의 3대 질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이다. 아담에게 던진 질문 속에 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의 위치를 묻는 것이고, 가인에게 던진 질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主)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그 분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가?

❖ **예수의 수난 예고 -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부인의 의미는 죄의 본성인 자기중심성을 버리라는 것이다. 자기 것을 움켜지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 없다. 회개(metaneo)란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다. 생각, 즉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은 곧 자기중심성을 부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 **변화하심과 제자들의 당혹** (헬몬산에서) 변화산에서의 교훈을 배우자. 산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문제(눅 9:37-43)를 대조해 보고 '세상과 세속 구별'하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제자들의 병 고침에 대한 무능(눅 9:43)과 변화산 상의 영광 앞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세가 현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귀신들린 소년을 고침

❖ 예수님이 조용히 갈릴리로 돌아오시다.

❖ 성전세를 내시다.

❖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욕신의 형제에 대해서

❖ 천국백성의 자격과 잃어버린 양의 비유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가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품는 자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열정

주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생기는 열정이다.

### ❖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1)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 2)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3) 세상 일에 미련을 갖는 자. 이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 제7부: 예수님의 후기 유대지방 사역(AD 29년 10월에서 12월까지)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한다. 이 기간 예루살렘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적대 감정이 더욱 고조된다. 72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며 수전절을 지키고 갈릴리로 다시 이동한다.

### ❖ 초막절(the Festival of Tabernacles) 참여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는 우리 달력으로 10월에 지킨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임을 볼 수 있다. 절기(초막절)끝에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설교를 들려주신다. 이 절기에는 실로암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절차가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이다. 영원히渴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다. 이사야 55:1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갈급한 심령을 소생시키고 변화시키는 샘이시고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 ❖ 간음한 여인을 용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음한 여인은 당시의 유대 법으로는 돌로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여 처 죽이는 그런 범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지혜를 발휘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판결합니다. 죄 없다고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하나 둘 흩어지고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8:11)라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 ❖ 종교 지도자(바리새인)들과 논쟁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초막절 절기 예식 중 해질 무렵에 광야의 시절에 밤을 밝혀 준 불기둥(출13:21)을 기념하기 위해 여 네 개의 커다란 금 촛대에 불을 밝히는 예식이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광야의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인도해 주 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인도하시는 빛이란 것이다.

요한 8:45-47 언급하듯이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 역시 ‘진리’라고 강조한다.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킨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정죄하신다.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 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사단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셨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룹과 사단에 속한 그룹이다. 그 중간은 없다. 이 진리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다.

❖ (9장)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침, (10장) 선한 목자이신 예수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에 거한 인간들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 어둠에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를 빛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 분은 바로 양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다. 시편 23편의 목자를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시다. 양들의 삶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 감정을 더욱 쌓아 간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요 6:22-40 – 생명의 떡
- 마 16:13-20 : 베드로의 고백
- 마 16:24-27 – 제자의 길
- 마 18장
- 막 9:23
- 눅 9:57-62 • 요 8장
- 요 10:2-21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승을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이다. 전승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면 이단으로 빠진다. 그럼에도 딤후 4:3-4 에서처럼, 자기 귀를 만족 시켜 주는 “내가복음식” 진리를 찾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성경 뿐이다. 우리의 삶의 근본 기준이 성경인가?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이 질문은 창세기 3 장에 나오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와 창세기 4 장에 나오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의 질문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3 대 질문 중 하나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질문의 답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主)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그 분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가?

❖ 변화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문제(눅 9:37-43)를 대조해 보고 ‘세상과 세속 구별’하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제자들의 병 고침에 대한 무능(눅 9:43)과 변화산 상의 영광 앞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세 가 현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의 출세의 길로 생각한 듯하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생기는 열정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3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1)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적 복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 2) 세상의 일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3) 세상일에 미련을 갖는 자, 이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구속사의 맥락에서 깊이 묵상하고 고백해 보라.

<b>제 73 일</b>	
---------------	--

읽는 범위:	마 19-20 장, 막 10 장, 눅 10-18 장, 요 11 장
--------	--------------------------------------

<b>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복음시대 – 예수 생애</b>
--

70인을 파송 (유대 지방) (눅 10:1-24)

제자들이 전도 훈련 파송으로부터 돌아 와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한 일에 흥분하며 사역보고를 한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10:20)라고 충고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

눅 10:18에서 복음이 전파되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데 이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제 사탄은 그 적수를 만난 것이다.

❖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 -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눅 10:25-37)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도전하는 율법학자들의 도전이 이제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되묻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변한다. 예수님은 동의하고 그런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신다. 영생이 무엇일까? 영원히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은 십계명적 영성에 의한 삶이다. 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과 관계의 삶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좀 걱정스러워 이웃이 누군가 그 범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이웃의 범위에 도전하신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등 세 부류를 등장 시키고, 강도를 당한 유대인을 놓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도왔음을 언급하고 사마리아인이 그의 참 이웃임을 강조한다.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기도에 대한 교훈 (눅 11:1-13)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주기도문보다 다소 소박한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밤중에 찾아 온 친구를 위한 대접을 위해 떡을 강청하는 것을 놓고 강청하는 기도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 종교적 위선을 꾸짖음 (눅 11:37~12:12)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비판한다. 이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규율과 형식은 있지만 은혜의 교리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지우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눅 12:13-59)

예수님은 인생의 행복이 충분한 곡식(물질)에 있지 않다고 가르친다. 제자들의 삶은 영원한 차원의 삶이지 이 땅에 부를 쌓는데 급급한 삶이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 수전절(the festival of Dedication)에 참석한 예수님



---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 세가 성전에 모세의 법에 의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의 신상을 성전에 배치하며, 할례를 금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에 격분한 당시 제사장인 맛다디아(Mattathias)와 그 다섯 아들이 중심이 되어 B.C. 167 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여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수전절(the Feast of Hannukah 또는 Dedication)이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고조되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신다.

8 부: 예수님의 베레아지방 사역 (AD 30 년 1 월에서 3 월까지)

적대감정이 고조 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베뢰아, 유대 사마리아에서 잠깐씩 사역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 1. 베뢰아 1 차 여행.

❖ 베뢰아로 이동하시고, 적은 수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음.

❖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 경고

❖ 잃은 양, 되찾은 은전, 탕자의 비유 (눅 15 장)

누가 15 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3 개의 비유가 나온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탕자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함으로 기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 준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구속사의 축소판 같은 비유이다. 탕자가 자기 뒤통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하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서 에덴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망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뒤통이란 제한된 자원으로 경쟁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탕자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뒤통이 다 소진 되었을 때 그는 돼지 먹이로 연명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제한된 자원에 의존하며 궁핍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탕자의 깨달음 즉 “그 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눅 15:16-19)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인위의 대안은 신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 2. 사마리아 갈릴리를 잠깐씩 방문

❖ 죽은 나사로를 살림 (베다니)(요 11:1-54)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의 7 번째 기적이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 주는 기적이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신다(25 절).

이 기적 기사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돌문이 열린다고 별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또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돌 하나를 못 치워 그것을 마르다에게 치우라 고 했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인간의 믿음이 어우러져야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 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침 (눅 17:11-19)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문둥병자 중 오직 한 명만 감사했다.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은 유대인이고, 감사를 표한 한명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도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말라기의 불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감사하는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 천국 도래에 대한 질문 (눅 17:20-37)

천국 도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1) 다시 이미 '주의 날'이 도래했다는 소문을 확인하려는 의도(살후 2:1-2)와 2) 과연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메시아인가를 시험해 보 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만 대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언급한다. 예수님의 이 답변의 의도는 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②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이 온 밀가루에 스며들어 반죽이 부푸는 것처럼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마 13:33).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하나님 나라가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과 화평의 관계, 나눔과 섬김의 관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눅 18:1-14)

1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18:1-8)에서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강령성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중에서 고통 받으며 오해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 주신다는 사실(7,8 절)을 명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2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에서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 부자 청년 이야기, (마 19:16-30, 막 10:17-31, 눅 18:18-30)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의 욕심이라는 점을 밝혀 준다. 즉 재물에 대한 소유욕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관은 나눔과 섬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가지 타입의 바늘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귀와 같은 <바늘의 구멍>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큰 문에 달려 있는 <작은 문>이었다. 예수님이 어떤 바늘귀를 말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려면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어야 하듯이 부자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천국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수난을 예고하시다 (마 20:1-19, 막 10:32-34, 눅 18:31-34) 여기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이다. 영생의 문제에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 먼저 이루어 했지만 그들에게서는 실패 한 것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말한다. 또 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섬김에 대한 교훈(마 20:20-28, 막 10:35-45)

이들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이 기대하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인줄로 알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자기 아들이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골격이다. 세상 사람들은 '됨'과 '가짐'의 가치관을 추구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눔'과 '섬김'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마 20:28은 바로 성육신의 목적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십자가의 도'는 '섬김의 도'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눅 10:25-37 – 누가 네 이웃이냐?
- 눅 11:9-13, 20
- 눅 12:6-12
- 눅 15 장 – 다시 찾아야 할 것들의 비유. • 마 19:16-30 – 근심이 많은 부자 청년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유대인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남이가”와 같은 의리에서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까지인가?

❖ (눅 11:37~12:12)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날에도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의 조직원의 일원으로 서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종교행위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주의에 살펴보라. 나는 어떤가?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을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규율과 형식은 있지만 은혜의 교리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지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묵상해 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아주 충실한 율법주의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항상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있을 진저”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 나는 진정 거룩하게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는 않는가?
-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는가?
-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더 바라고 원하고 있지 않는가?
- 나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 나는 실질적인 내용보다, 형식적인 의식을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는가?

제 74 일	
읽는 범위:	마 21-23 장, 막 11-12 장, 눅 19-20 장, 요 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복음시대 – 예수 생애	

예수님과 삭개오(눅 19:1-10)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그의 부는 세리로서 이룬 부이고 그의 부의 축적은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는 부정축재였다. 그래서 그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뿐이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구원을 받았고 회개의 열매로 그의 부정축재한 부를 400% 환원한다. 율법은 20%를 요구하지만.....

❖ 열 므나의 비유(눅 19:11-28) 열 므나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비유이다. 이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하다. 달란트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재능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데 있는 반면 이 므나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천국관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데 강조점이 있다. 또 다른 의미는 받은 은사에 대한 열매의 결산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결산하시는 분이다.

❖ 종교지도자들의 적대감 (요 11:55-12:1, 9-11)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적대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9 부 :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주일에서 수요일 아침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때가 A.D. 30 년 4 월이다. 여 기서는 일요일 아침부터 수요일 아침까지의 행적을 살펴본다.

❖ 종려 주일 (일요일) (마 21:1-11, 막 11:1-11, 눅 19:29-44, 요 12:12-19)

❖ 무화과를 저주 (월요일) (마 21:17-22, 막 11:12-14, 19-25<26 절없음>)

❖ 성전 청결(월요일) (마 21:11-16, 막 11:15-18, 눅 19:45-48, 요 2:13-25)

성전 청결의 기사는 4 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공관복음은 마지막 해의 유월 절에 행한 것으로 기록한다. 어떤 학자는 성전 청소를 두 번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 강의는 예수 님의 성전 청결은 공생애 마지막에 행한 것이라 설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에게 성 전의 의미는 삶이요 생명이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의 상행위는 그들의 부 의 축적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서를 감안하면 공생애 첫 해 에 성전을 청소했다면 예수님은 그 즉시 체포되어 처형되었을 것이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행한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청소한 것이고 그 즉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작정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마지막 해에 한번 했다는 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상행위를 통해 얼마나 타락 되었는가를 살펴 보자.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목사는 그의 저서 '요한복음 강해' 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부패상을 보여 주고 있다.

유월절(Passover)은 유대의 최대의 절기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15 마일 이내에 사는 모든 14 세 이상 유대인은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한다. 팔레스타인 내에 사는 유대인뿐 만 아니라 세계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디아스포라)들도 평생에 적어도 한번 이상 유월절을 지키러 와야 하는 것이 법이다. 이들의 수는 약 250 만명 이상이 된다고 추정한다. 그들 중에 19 세 이상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 그 세금은 반 세겔인데 그 가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반의 임금에 해당되는 가치의 돈이다. 하루 일당이 십만 원(혹 미화로 100 불)이라면 당시 성전세 반 세겔은 15 만원(150 불)에 해당되는 액수의 세금을 내어야 한다. 그 총액은 19 세 이상 을 200 만 명으로 잡으면 3000 억 원(3 억불)이라는 액수가 된다. 그런데 성전세는 반드시 갈릴리 세겔이나 성전이 발행하는 동전으로 내어야 한다. 당시 로마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서는 안 되는 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동전을 가져오면 반드시 성전 동전이나 갈릴리 세겔로 환전을 해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경제행위에 통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환전 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다. 반 세겔 짜리 성전 동전으로 환전하는데 수수료는 자그마치 노동자 하루임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 액수는 십만 원(100 불)에 해당되는데 그 총액 역시 2000 억 원(2 억 불)이나 된다. 이것만이 아니고 제물은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율법을 악용하여 돈을 버는 것도 있다. 백성이 직접 제물을 가져 오면 성전 관리가 흠이 있는가를 검사하는데 거의 100%가 흠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제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검사비를 하루 노동자 임금 의 1/4 에 해당하는 25000 원(25 불)을 지불하고도 불합격을 받는다. 그래서 성전에서 파는 제물 을 사야하는데 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의 가격은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19 배가 비싸다는 것이 다. 이를 테면 당시 제물용 비둘기 한 쌍이 시장에서 십만 원(100 불)하는데 성전 안 가게에서는 190 만원(1900 불)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예루살렘 근교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게 먼저 알려준 이유가 이 성 전 부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 부패면 예수님이 환전상을 뒤집어엎고, 비둘기파는 자를 몰아내는 이유가 충분하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무엇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한 집인데 그 '만민'이 포함되어야 할 이방인의 뜰을 시장 바닥으로 바꾼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이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요 12:20-50)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광을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한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 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23 절).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은 이방 민족들이 몰려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데서 효력이 나타날 것이며 완성될 것이다(32 절).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설명을 한다. 예수님 의 죽음은 온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죽 음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화 요일)(마 21:23-22:14, 막 11:27-12:12, 눅 20:1-9)

이는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인들의 오만을 나무라기 위해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 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다.

1 두 아들의 비유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맏아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뒤늦게나마 하나님께로 돌아온 창기나 세리 같은 죄인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해 알고자 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말한다.

2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 직접 반 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을 임대받은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며,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3 혼인 잔치의 비유 역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여 주는 비유이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거부하였고,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주어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말해 준다.

❖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를 시험하다. (화요일)(마 21:15-22, 막 12:13-17 눅 20:20-16)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정책을 위배하도록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 들여 올가미를 씌우려는 의도이지만 "가아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논쟁에 빠지지 않는다.

❖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 (화요일)(마 22:23-33, 막 12:18-27 눅 22:34-40)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계층의 사람들이다.

❖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의 질문. (화요일)(마 22:34-40, 막 12:38-34, 눅 21:37) 바리새인들의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두 축을 말해 주는 것이 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다.

❖ 메시아에 대한 질문(수요일) (마 22:41-16, 막 12:35-37, 눅 21:38, 20:41-44)

❖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조심하라. (수요일) (마 23 장, 막 12:38-40, 눅 20:45-47)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인들의 외식(外飾)을 나무라신다. 그들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는 그들에게도 나쁠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더욱 경계 하신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거침없는 화를 퍼붓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는 가?

❖ 과부의 동전 2 랍돈 (수요일) (막 12:41-44, 눅 21:1-4))

과부의 헌금이 왜 값진 것이 되었을까? 그것은 그녀의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헌금은 물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눅 18:-30
- 마 21장, 22장, 23장
- 요 12:20-26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찰스 콜슨 Charles Colson 은 그의 저서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한 순간 착각해서 군중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답례하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묵상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나가는 나귀이다. 그런데 환영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것이 내게로 오는 것이라고 또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벌떡 일어나면 예수님은 나귀 등에서 떨어지고 나귀는 환영은 커녕 개망신을 당한다는 것이다. 한번 우리도 이 묵상을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거나 가로채려고 발버둥치지는 않는지.
- 성전 청결은 예수님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생명을 건 정면 도전이었음을 알았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성전 청결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느 13:8-9).  
오늘 우리의 성전(유형의 교화와 성령을 모시는 개인으로서의 성전)은 청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가?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청소를 하지 않을까?



제 75 일	
읽는 범위:	마 24-26 장, 막 13-14 장, 눅 21-22 장, 요 13-17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복음시대 – 예수 생애	

## 제 10 부 :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다

✎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마지막 권면을 통하여 당부하시면서 훈련한다.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몸소 종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도 한다.

### ✧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다 (마 24장)

마태 24장, 마가 13장, 누가 21장은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설교이다.

### ✧ 마태 25장은 천국 비유장이다. (마 25장)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보여 주며, 특히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는 양과 염소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섬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나눔'과 '섬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이다. '나눔'과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음 예화를 읽으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 날, 한 로마 장교가 자기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도중, 헐벗은 거지 한 명이 추위를 이기려고 어느 부자 집 벽난로가 있는 바깥벽에 자기의 몸을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로마 장교는 자기가 입고 있던 로마 장교 외투를 그에게 입혀주고 막사로 돌아 왔다. 그 날 밤 이 장교의 꿈에 예수님이 자기의 외투를 입고 나타나셨다.

깜짝 놀란 이 장교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외투를 입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네가 어느 골목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에게 이 외투를 입혀 주었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네.』

마 15: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 ✧ 달란트의 비유

### ✧ 십자가 죽음의 예고와 마리아의 헌신

(마 26:1-13, 막 14:1-9, 눅 22:1-2, 요 12:2-8)

---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기를 원한다.

✧ 가롯 유다의 배신 (마 26:14-16, 막 14:10-11, 눅 22:3-6)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 30량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한다.

✧ 유월절 최후의 만찬 (마 26:17-35, 막 14:12-31, 눅22:7-39, 요13-14장)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가? 애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시기 위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당신의 백성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다.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뛰어 넘어(유월, Passover) 가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자신을 배반한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섬김과 낮아짐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덕목임을 몸소 보여 주기 위해 제자의 발을 씻겨 준다.

만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 내어 주는 예수님의 희생제물로서의 피와 살임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한다. 이것은 성찬의 유래이다.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다.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찬미하면서(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나아간다.

✧ 성찬의 유래

✧ 감람산에서 고별 설교 (요15-16장)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사 5장).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함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할 악한 포도나무로 묘사되곤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만 포도송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아마 포도원을 지나가셨을 것이다. 그 포도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이고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는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간다는 교훈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동력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위의 대안은 신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우리가 원줄기인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은 죽고 부활하여 원래의 곳인 하늘로 돌아가게 되지만 제자들은 이곳에 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영적 싸움임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줄기인 자신에 붙어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맥에서 16장에서는 이

지상에 남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을 계속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진다.

✧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요17장)**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이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자세를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자세가 훨씬 더 긍정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7:11-19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세상을 향한 자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격리주의 (isolation) :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등지고 사는 것.

·적응주의 (assimilation) : 세상에 적응하여 세상을 벗어나 사는 것.

·구획주의 (compartmentalization) :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속을 구획적으로 구별하여 사는 삶.

·변혁주의 (transformation) :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 시키며 사는 삶.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제자는 단순히 세속을 분리하는 자세로 세상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앞의 세 가지 주의를 뛰어 넘어, 세상에 대한 변혁 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Counter Culture의 개념을 유념하라.).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진 자를 사도행전 17: 6 "...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즉, 영어로 these men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라고 했다. 세상을 뒤집어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다.

✧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 26:36-46, 막 14:32-42, 눅22:40-46, 요18:1)**

예수님의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순종을 확인하는 기도였다. 인간으로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 강해서 그 십자가의 잔이 거두어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운동은 성취되는 것이다.

이 기도를 미치고 예수님은 체포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마 25장
- 눅 21:17-19 – 보호하시는 하나님
- 마 26:36-36 – 겻세마네에서의 기도
- 요 13:34-35
- 요 14 장, 15 장, 16 장, 17 장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은 회계사(Accountant)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決算)하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 달란트(talent)는 6,000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명의 하루 노임이다.

이 달란트는 당시 로마의 은화였고, 이와 비슷한 가치로 헬라 은화는 드라크마가 있다.

여기서 달란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재능(은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재능)를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특히 인간의 부나 재정 등 경제 관리는 바로 이 성경적 기준에 의한 청지기 정신에 근거해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삶의 끝에 반드시 청산하신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겨두어야 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관점은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임이 우리의 생사관(生死觀), 인생관(人生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산(회계)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제 76 일	
읽는 범위:	마 27-28 장, 막 15-16 장, 눅 23-24 장, 요 18-21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복음시대 – 예수 생애	

#### 제 11 부 :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 AD. 30년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성전 경비병에게 가롯 유다의 배반하는 키스로 예수님의 신분이 확인되고 그들에게 체포된다. 밤이 세도록 안나스와 대제사장의 심문을 거쳐 사형을 언도 받고 집행하기 위해 금요일 이른 아침에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의뢰한다. 이 모든 심문과 재판을 당시 절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진행된 것이다. 군중들을 선동하여 빌라도를 압박하여 사형을 얻어 내고 곧바로 집행한다. 이때가 다음 날 이른 아침이다.

#### ✧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금요일 새벽- 아침 6시까지)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서 연행되어 갔다. 3년간 훈련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엄청난 좌절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간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여차하여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 자기에게도 그 불뚝이 떨어지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계산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이곳저곳으로 끌려 다니는 동안 정말 3번의 신분 노출 위기가 왔고 그럴 때마다 그는 완강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즉시 회개했다. 이런 와중에 가롯 유다도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그는 그의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하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살을 택한다. 가롯 유다는 인위(人爲)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사형언도를 내려도 집행할 권리가 없음으로 로마의 공권력을 빌려 집행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은근히 협박하고 또 군중을 선동하여 압력을 넣어 사형 언도를 받아 낸다.

#### ✧ 십자가형의 집행 (금요일 아침 8시 경)

##### ♣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무덤이 열렸다고 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천지를 진동시킬 영광의 죽음이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죽음이며 사망이 없는 에덴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사망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성전 휘장이 찢어 졌다는 사건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중보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가 그 관계 회복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 (레 16:34, 히 9:7,12. 히 4:14-16, 10:19,20을 꼭 참고하라.)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에덴의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세운 화염검이 무력해 졌다는 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다.

#### ♣ 십자가위에서 일곱 말씀

순서	말씀	대상	의미
1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하나님	이 기도가 없었으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및 바울의 회심도 없었을 것이다.
2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23:43)	한 강도	잃어버린 한 양도 찾으시는 예수님이기에 회개하는 모든 이는 구원을 받는다.
3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6,27)	모 친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미를 보여 주신다.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다는 점을 보여 준다.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자 신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목마름을 당하신 것이다.
6	다 이루었다 (요 19:30)	온 인류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
7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버리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 ✧ 예수님의 장례 (금요일 저녁 6시 전)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대개 사흘 동안 버티기도 한다. 일주일을 버틴 자도 있다고 한다. 로마 사형집행관은 이 사형수들이 죽을 때 까지 나무에 두어 죽게 하고 그대로 매어 달아 놓아 날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됨으로 그것도 유월절이 낀 안식일이 시작됨으로 두 강도와 예수를 빨리 죽여 시체를 멀리 치울 작정이었다. 유대지도자들은 시신 처리를 요청했고 군인들은 강도의 시신을 내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를 꺾는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죽음을 알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함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구절은 출 12:46, 민 9:12이거나 시 34:20일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은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묻혔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으로 장례의식을 베풀었다. 이로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간 생애는 남의 무덤에 묻히므로 끝난다.

---

❖ **예수님의 무덤 인봉 (토요일 예루살렘 근교)**

이미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언한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놓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살아났다고 선전하고 돌아다닐 것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을 뿐 아니라 인봉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인가?

제 12 부 :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일요일 아침,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골고다 어느 한 구석의 무덤에서 창조 이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40일을 더 지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또 한 번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

❖ **부활(일요일)**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인봉하며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이 A.D. 4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빈 채로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헛것이다(고전 15:14).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버린 존재가 되었다면 그 분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의 한명이었거나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 이다. 이 빈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가 공의회에 보고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았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다른 여인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 도마에게 나타 나셨다.

❖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 (AD 30년 5월 경)**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예수님이 더디 나타나자 성급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신다. 잡은 고기를 구워 조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처음 만나서 제자 삼을 때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신다고 했고, 3년의 훈련을 마친 지금의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목양하는 것은 제자들의 핵심 사역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당부는 마태복음의 대 명령과 같은 맥락이다. 이것이 교회의 태동이다.

---

✧ **예수님의 대 명령 (AD 30년 5월 중순 경)**

마태 28:16-20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 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한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다. 마지막 명령은 사도행전 1:8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는 이 일이야말로 모든 제자에게 부과된 가장 핵심 사역이다.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같은 맥락이다.

그 명령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끝 날 까지 함께 해 주시는 약속을 주신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안식을 추구하지만, 그 안식만을 위해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뒤로하고 나아가야 한다.

✧ **예수님의 승천 ( AD 30년 5월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 )**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약속을 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 까지 40일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언급한다. 이 교육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양을 먹이라는 명령과 마태복음의 대 명령이 주요 교과 과목이었을 것이다. 이로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제자인 우리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책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임무를 감당해야 한다.

✧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요한의 증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을 구할 메시아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마 28:18-20
- 요 21:15-22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십자가가 보여 주는 3 가지 의미

1)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교통 표지판의 '교차로'(cross)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심'은 곧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 위로 높이 들린 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내(예수님)가 땅에서 들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32).

2) 죄 용서의 증거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갈 1:4)

3) 하나님 사랑의 증거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표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제 77 일	
읽는 범위:	사도행전 1-1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 행 1장 : 사도들의 행전의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위해 양을 먹이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의 실행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기로 한 약속대로 승천 후에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 까지 40일 간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해 교육했다고 했다(1:3).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으라(1:8)고 당부하심을 보아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神爲]. 요엘 2:28과 예수님의 보혜사 약속(요 16:5-15)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근간(根幹)이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구약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회관을 가질 수 있다. 교회는 건물을 가지며 하나의 조직체를 가진 유형(有形)의 모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순종하여 그 나라를 세우고자 부름 받아 나온 '남은 자'(ekklesia)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 예수님은 제도화한 조직으로서의 종교를 창설하신 것이 아니며, 사도들이 전파하며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종교를 창설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이요, 그 분의 '양을 먹이는 일'일임을 명심하라. 교회는 non-members only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다.

#### ○ 행 2장 ~ 6장 :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 ❖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요엘의 예언(요 2:28)과 예수님의 보혜사 약속(요 16:5-15)의 성취이다.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출애굽기의 시내산 계약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출 19:5)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구약은 막을 내리게 된다. 같은 오순절에 바람과 불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난 여호와와의 강림의 모습(출 19장)과 유사하게 성령이 강림하였다는 것은 시내산 계약과 같은 새 계약인

예수 공동체(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맺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못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 받을 남은 자, 즉 새 이스라엘의 계약을 의미한다. 이제 예수공동체 또는 성령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강림이 갖는 의미이다.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과 같은 언어적인 현상을 지닌 이적(Language miracle)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이 극복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다.

#### ◆ 초대교회의 탄생 - 행 2:42-47

1)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로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Apostolic teaching)을 받는 일에 힘썼다. 건강한 교회, 즉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과 함께 적절한 배움과 그에 따른 순종이 있는 교회이다.

2) 교제가 있는 교회. -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참된 ‘사귄’ 즉 교제 (koinonia)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귄’이란 (삼위)하나님과 사귄과 함께 성도들 간의 사귄을 말한다. 특히 성도간의 사귄은 형제우애와 물질적 돌봄을 표현한다.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다. (cf 고후8:4, 9:13).

3) 함께 예배 하는 교회. -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는 예배 하는 공동체이다. 이들의 예배는 또한 날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연합된 예배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예배였다.

4) 증거하는 교회. -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참된 교회는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보내는 일에도 열중합니다. ‘함께 함’과 ‘보냄’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근간이자 초대교회의 두 가지 구조였다. 찰스 벤 엔겐(Charlse Ven Engen) 교수는 이러한 교회의 두 가지 구조를 ‘모이는 교회’(Coming structure)와 ‘흩어지는 교회’(Going structure)라고 불렀다.

이로서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은 예전적(Liturgical), 교리적(Kerygmatic), 친교적(Koinoniac) 기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초대 교회 (4장 ~ 6장)

신앙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이다.

---

1) 물리적 박해 (4:1-22, 5:17-42)

◆ 첫 번째 박해 (4:1-30) : 체포. 투옥. 재판. 경고 석방 → 담대히 증거 →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4 :24-30)

◆ 두 번째 박해 (5:17-42) : 체포. 투옥. 재판. 금지령. 매질. 석방 → 지속적 순종 →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 받음을 감사 찬양 (5:41)

핍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로 하여금 기도와 찬양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2)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5:1-11)

두 번째 시련은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눔과 섬김의 일이 대한 거짓으로 얼룩짐을 본다. 교회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 이 문제는 일벌백계(一罰百威)의 차원에서 강한 심판을 받았는데, 당대의 독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이 사건은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다.

3) 구제에서 제외된 과부의 문제 (6:1-6)

언어에 따라 모이는 가정교회의 특성상 초대교회는 작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일로 인해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본질적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던 사도들이 본연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교회 내 새로운 지도자인 일곱 집사를 세우는 등 긍정적으로 해결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행전의 다음 단계에서 활동할 세 인물인 스테반, 빌립, 바울의 등장을 보여준다. 문제는 없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다.

○ 행 7장 : 첫 순교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해 졌습니다. 행 1:8의 예수님의 권면처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 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약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로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제자 삼기에 담대해 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인 인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첫 순교자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설교였고 담대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 설교로 인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스테반의 순교의 피 흘림은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인 바울이 회개하는 계기가 된다. 7장은 구약의 story라인의 요약이다.

## II. 교회의 변형기 (8장 - 12장) - 유대와 사마리아

○ 행 8장 : 사마리아 전도자 빌립

스데반의 죽음 후 교회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빌립이 처음으로 복음을 예루살렘 밖 즉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하기 시작한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줌으로 복음이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 행 9장 : 바울의 회심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을 핍박하는 원흉이었다. 그러고도 여전히 살기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는 도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뀐다.

□ 행 10장 ~ 12장 :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도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방인 전도의 주역은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점이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행 11:18). 이것은 복음(하나님 나라)의 세계화이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더욱 거칠어지고 헤롯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된다. 이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결과 헤롯의 무력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으로 베드로는 구출됨을 본다. 이것은 복음의 전파에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행 1:1-11
- 행 2:14-22
- 행 2:37-27
- 행 3:1-10
- 행 4:11-12
- 행 7장 – 구약의 구속사를 요약 정리하다,
- 행 10:1-23, 34 – 복음이 이방을 향하게 되다, - 11:17-18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예수님의 당부 마 28:18-20, 요 21:15-17, 행 1:8 에서 참된 교회론을 배우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세상 문화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며 그것은 교회의 인위적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말씀의 능력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

행 1:6 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무렵,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다윗 왕국의 회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본다. 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다.

1)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한다. (영적인 특징)

여기서 권능(dunamis)이란 무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semeia and terata)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다.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cf. 눅 11:20) 이 말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이 세상 안에 들어 왔다는 말이다. 사탄은 그 적수를 드디어 만났다. 그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만났다는 말이다.

사탄을 이김은 곧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억압된 삶에 구현되는 그분의 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통한 죄 사함이 있는 구원의 선언’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핵심이며 그 구원 받은 자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2)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는 나라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마 28:18), “모든 족속에게”(눅 24:47)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행 2:21)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행 2:39)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구심적 선교’에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원심적 선교’로 바뀌게 된다,

3)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행 1:8) 라는 말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성령의 강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의 땅 끝까지를 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땅 끝까지 이르러’와 ‘다시 오실 때 까지’(세상 끝까지)인 시간과 공간의 끝까지로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시기동안 자라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

제 78 일	
읽는 범위:	약 1-5 장, 행 13-15 장, 갈 1-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서신서를 그 기록한 순서로 읽는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A.D. 62 년경에 순교했다고 추정한다. 그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전에 야고

보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지금 읽지만 믿음을 강조한 갈라디아서와 실천을 강 조한 야고보서의 좋은 보완적이 면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

야고보서

학자들은 야고보서의 저작 연도를 넓게는 AD 45년에서 야고보의 죽음(AD 62년 순교) 직전에 쓰였다고 추정한다. (본 교재 참조)

♣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

신약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명이나 있었다.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눅6:16, 행 1 :13),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10:3, 막 3:18 ). 세베대의 아들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마 4:21, 10:2 주후 45년에 순교 - 행 12:2)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마 13:55, 막6:3, 갈 1:19)이다. 이 중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본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증거로 사도행전 15:23-29에 언급되는데, 이 글은 야고보의 지도 아래 쓰여진 편지글로 야고보서의 문체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특히 ‘문안’의 뜻을 가진 헬라어 ‘카이레인’이란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15:23; 23:26, 야고보서 1:1 에서만 발견된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받은 깊은 영향은 특히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암시를 통해 명백하다고 본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이었다(요 7:5).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불신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일을 한 사람이다. 그는 AD 62년경에 순교했다. 그는 실천하는 믿음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비록 루터는 이 책을 싫어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고전 15:7),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행 12:17)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게 되었으며(갈 1:19),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다(행 15:13, 21 :18).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라는 말을 들었다(갈 2:9)

♣ 바울과 야고보의 비교

야고보와 바울을 신중히 비교해보면, 믿음과 행위의 모순은 단지 표면상의 문제일 뿐이다. 바울도 야고보만큼이나 살아 있는 믿음은 사랑과 순종의 행위로만 드러난다고 확신했다(갈5:6). 바울은 율법주의자



등을 공격한 반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행위에서 질적인 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을 반대했다는 점이 바울과의 차이점이다.

바울의 믿음은 칭의적인 믿음을 말하고, 야고보의 믿음은 성화적인 믿음을 가리킨다고 본다.

□ 야고보서 1장 ~ 5장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관점을 가진 종교개혁자의 눈에는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상반된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서' '신약성경의 잠언', '신약의 아모스' 라는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III. 교회의 확장기 (13장 - 28장) -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지금부터는 바울 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역자로 역할을 시작한다. 13장~21:26까지는 선교사 바울의 사역이고 21:27~28장까지는 죄수 바울의 모습을 볼 것이다.

□ 행 13장 ~ 14장 :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의 선교본부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러니 이 선교여행은 바울이나 바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13:2).

아직은 바나바가 더 중심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구브로 섬으로 나아 간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방에 위치한 섬으로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으며, 바로 바나바의 출신지이기도하다. 여기서 무당을 만나 한판 대결을 벌이지만 승리하고 전진을 계속한다. 구브로를 떠나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더라를 거쳐 더베까지 가는 선교여행이다(앞 페이지 지도 참조).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갈라디아 서신을 보낸다.

#### □ 행 15 : 1 - 35 : 예루살렘 공회

교회사에 있어서 첫 총회인 이 예루살렘 총회는 당시 구약의 율법과 새 믿음의 부딪침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였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향하여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었다. 이 총회에서는 율법의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물리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각하여 그들은 한 형제로 영접한다고 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해 할례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것이다. 새 이스라엘은 율법을 엄수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결실로 쓰여진 책이라고 본다. 바울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인간의 참 자유는 율법을 지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예수)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함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의미.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믿음은 행함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는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행함(실천)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믿음의 근거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 즉 당시 분위기로 말하면 외향적 율법 지킴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의 말미를 제공한 가톨릭의 공적주의적 구원관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위구원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은 그 분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 구원은 그 분의 지극하신 사랑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위(神爲)의 개념과도 같은 것이고, 이 이신칭의(以信稱義)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이다. 불교에서도 선행과 자비를 베풀어야 극락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행위에 의한 자력구원(自力救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절대타자(絕對他者)에 의한 타력구원(他力救援)을 말한다.

❖ 율법과 은혜의 비교

기능		효과	
율법	은혜	율법	은혜
행위에 기초함 (3:10) 우리의 보호자 (3:23; 4:2) 우리의 교사 (3:24)	믿음에 기초함 (3:11-12) 그리스도 중심 (3:24) 우리의 자유를 보증 (4:30-31)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함 (3:10) 믿음을 위해 우리를 가둔 (3:23)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3:24)	믿음으로 의롭다 함 (3:24, 28)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심 (2:20) 우리를 아들이자 상속자로 받아들임 (4:7)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며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무력하다.			

❖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이 성도 안에 내재하시고, 그 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갈5:22-23). 바울은 아홉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 제시된 속성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으며 모두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성도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히브리 수의 개념으로 하나, 즉 1을 말할 때, 이 하나는 단순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복수적 개념이 섞여 있는 하나, 즉 복합적 단수(compound unity)의 성격을 갖는 집단적(collective)의미를 갖는 하나(one)를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말한다. 이를 떼면, 포도 한 송이를 많은 포도들이 포함되어 한 송이를 만들 때 그 하나를 말한다. 이것을 히브리어의 하나 즉 '이하드 echad'의 개념이다. 히브리어에서 단순 하나를 말할 때, '야히드 yacheed'를 사용하는데 이는 절대적 의미의 단수(absolute unity)를 말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약 1:2-8, 19-27
- 약 2:14-24
- 약 3:1-2
- 약 4:7-8
- 갈 1:6-10
- 갈 2 : 20
- 갈 5:16-36
- 갈 6:1-1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약 2:14-24 의 의미를 파악하고 깊이 묵상하라.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강조한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제 79 일**

**읽는 범위:** 행 16-19 장, 살전 1-5 장, 살후 1-3 장, 고전 1-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행 15:36 - 18:22 :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갈리오 총독 앞에선 바울



♣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인간과 하나님의 협주곡이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 그 때 다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지만 이 전도 여행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마가의 동반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다시 디모데를 영입한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오히려 밤에 환상으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모습을 본다(16:1-10).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바위섬)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된다(16:11~12). 당시 240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순풍이 불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인 동시에 성령행전이기도 하다. 이것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는다.

•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이다. 마케도니아는 에게해 동쪽에 위치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로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호소를 듣기 전까지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요청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한 세 사람은 빌립보로 갔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사명을 확신한 세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여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른다. 거기서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세 차례의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인에게 성경을 강론했다. 이때 적지 않은 귀부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시기하여 격노한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다. 바울 일행은 다시금 새로운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까지 핍박이 닥쳐왔다.

이후에 바울은 베뢰아에서 아텐으로, 아텐에서 고린도로 갔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강한 핍박 중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은 꼭 알고 싶었다. 그래서 AD. 51년 경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써 보낸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을 풀어 준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가르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좇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되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흠 없이 보존되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살전 5:14-23).

• 데살로니가후서

바울이 AD 51년 경 데살로니가교회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쓴 지 약 넉 달 내지 여섯 달이 지났다.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권면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 환란을 겪고 있으며 ‘주의 날’이 임했다고 교인들 중 일부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시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일상생활에도 충실치 않고 들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다.

---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2:3), 적그리스도가 나와 주를 대적하고(2:3-4) 그 후에야 주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맞을 준비했다가 맞이한 것처럼(마25)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 행 18:23 ~ 19:22 :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로마서를 로마교회로 보낸다.

☼ 안디옥에서 얼마를 지낸 후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 이리하여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다. 특별히 전에 그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에베소의 방문과 그곳에서의 3년간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

♣ 바울의 세계 비전(행 19:21)

안정된 기반을 잡으면 그것을 평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램이다. 그러나 복음의 침병이었던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세계 비전을 다시 고집어낸다. 그는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또한 거기에서 로마를 방문할 것을 계획했다(9:21). 그리고 로마를 지나 서바나(스페인)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한다(롬 15:23,28).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제국의 심장부였으며,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은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었다.

☼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읽는다.

•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다(행 18:1-8).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3년 간 머문다. 그 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썼다. 그들은 도움과 바르게 함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했다. 그때가 A.D. 52년에서 A.D. 56년 사이 이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갖는 문제의 본보기들을 가진 교회였다. 고린도 전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책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으나 헬라인과 같이 지적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장 고귀한 진리를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나무란다. 또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을(간음, 난잡한 성행위,) 술 취함에 빠져 있는 것을, 사회적 또는 종교적 생활면에서 잘못 된 것 (믿는 사람끼리 소송, 이혼, 십일조나 헌금을 하지 않음)을, 잘못된 교리(고전15: 12)를, 무질서(만찬, 영적 은사)등을 책망한다. 그래서 이 책을 '책망의 서신'이라고도 한다. 특히 무질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지 못한 데에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살전 2장
- 살전 5장
- 살후 2장
- 살후 3:6-15
  
- 고전 1:18-31
- 고전 3:16-17
- 고전 6:12-2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사도행전 17:24-25 에서 바울은 이방 헬라인들을 향해 행한 설교에서 우주, 세상,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강조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복음이며 성경적 세계관의 근간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 행 17: 6 "...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의 묵상.

성경이 말하는 구별된 삶은 단순히 규례를 지키는 수동적인 순종적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이유로 이분법적 사고(二分法的 思考)로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과 선을 긋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세상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을 주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문화(對文化 counter culture)이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이 구절에서 초대교회 시절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바울, 디모데와 실라를 가리키지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 즉 영어 성경에는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KJV)' 이라고 했다. 즉,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신약의 구별된 삶은 바로 이런 변혁적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대정신으로 삼을 수 있는 패기 있는 삶을 말한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예수님의 사회관은 변혁주의적이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 말씀 앞에서 신앙의 야성(野性)을 회복하라!

- 사도행전 17:11 의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한다고 했다. 체험과 은사 중심의 데살로니가 교인과 비교해서 "말씀 중심"의 베뢰아 교인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묵상해 보라. 체험과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은 기복적으로 이끌리고, 그래서 무속적, 주술적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린다. 특히 감성적이며, 무속적 기질이 강한 한국인에게 이 사실은 매우 심오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깊이 생각하라!

-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 세상사를 등지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남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살전 4:11, 살후 3:7-12). 재림에 대한 오해가 빚은 잘못된 기대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기 위하여 편을 든 것이다

오늘 날에도 신앙생활을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 복음에 대한 수용과 거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동일했음에도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음을 읽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음에 찢려 ...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2:37)의 수용적 반응 (reception) 과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7:54-58)의 거절적 반응(rejection) 이다. 이 둘 사이의 중간은 없다. 이러한 수용과 거절은 바울이 다녔던 3 차의 전도여행 내내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다.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 • 교회와 세상 – 교회의 이중성, 거룩성과 세속성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고전 1 :2)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살전 1 :1 참고)을 잘 지적하고 있다. 교회란 세상 가운데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not of the world), 세상 속으로(into the world) 보냄을 받았다(요 17:11-19).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 • 신자(信者)와 신자(神子) Churchian vs. Christian

아래의 그림은 C.C.C. 창설자인 Bill Bright 박사의 사영리(四靈理) 공부에 나오는 그림이다.



왼쪽 그림은 불신자를 가리키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믿는 자(신자)를 가리킨다. 가운데 그림은 아직은 자기 의(Self-righteousness)가 강한 자, 즉 자기중심성이 온전히 내려지지 않는 상태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신자이다. 이런 신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信者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육에 속한 자’(2:14)이라고 했다. 오른쪽의 경우는 성숙한 성령 충만한 신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 앞에 내려와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런 교인은 내려놓음의 달인이라고 하겠다. 이런 신자를 神子라고 한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들을 ‘신령한 자’(2:15)이라고 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미성숙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전’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을 제공한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면 그 성전 즉, 몸의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주인 됨(Lordship)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위 앞에 인위를 내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信者(아직도 人爲가 지배하는)가 아니라 神子(神爲의 지배를 받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 1:8 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했다.

## 헤브론 90 일 성경통독

고린도 전서 3: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약적 성전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었고, 성전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동역자가 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내 신앙으로 삼아야 한다.

제 80 일	
읽는 범위:	고전 7-1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스 본토와 멜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고린도는 에게 해와 아드리아 해 사이의 좁은 항구 도시로 부유한 상업의 중심지였다. 여러 민족이 모이는 이 도시는 선교 전략 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며 바울도 각별한 정열을 기울였다. 이 도시는 이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렸다. 또한 사랑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이곳에 있었고, 천 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 도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다. 신전 창기들은 공공연하게 몸을 팔았으며, 식육 시장은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을 팔면서 번창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잘 먹었으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의 강한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고, 인간의 지혜를 즐겼으며, 헬라의 신들처럼 아름답게 되고자 하여 할 수 있는 한 자기들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변사들의 웅변을 즐겨 들었다. 250,000 명의 시민들에게는 한 사람 당 거의 두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런 고린도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은 바울의 2 차 선교 여행 중에 성령께서 바울을 여러 모로 막으시고 바울은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부름을 받고 나섰다.

♣ 고린도전서의 주요 내용

1. 교인들의 분열에 대하여 바울은 교회의 하나 됨을 강조했다(1:10-17, 12:4-6: 13:13).
2. 교회의 일체성과 관련해, 바울은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충고했다(8:1-3, 10:23-33),
3.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바울은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질서를 중요시했다(14:5,28).
4.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도 바울은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강조했다(11:23-24).
5. 고린도전서의 많은 부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을 공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1:18-25, 6:4, 6:19),

○ 고전 7 장 ~ 16 장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답.

---

고린도 전서 후반부(7 장~16 장)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과 신앙적 질문에 대한 바울의 해답을 보여 준다.

7 장은 결혼 문제에 관한 바울의 해답이다. 7:25-38 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보여 준다. ① 결혼은 성도들의 부부의 성생활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고 ②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며 ③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수행하는 방편임을 강조한다.

8 장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바울은 이 문제를 율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한다. 형식의 차원이 아니라 본질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 우상제물을 먹음으로 시험을 받게 되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핵심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이 아니고 형제가 시험받는 것이 핵심이다.

9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말한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0 장이 지적한다. 방종함은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시험에 이르게 한다. 선 줄로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11 장에서 바울은 공중 예배에 대해 권고한다. 여기서 바울은 각 문화권의 고유한 전통이나 관습을 무시하지 않음을 보게 되고,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통일성과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12 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성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주어진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귀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13 장은 사랑장이다. 성령의 은사를 앞세우고 불화와 반목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활용자세를 논하던 바울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사랑에 관해 이야기 한다. 바울은 사랑을 단순히 하나의 덕목으로 찬양하거나 교훈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의 신앙적 의미를 밝혀 준다.

---

14 장에서 바울은 예배시 방언의 남용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다루고 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건덕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속된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임을 말한다.

15 장을 부활장이라고 한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장이다

고린도교회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

첫째, 분쟁이 있었다(고전 1-3 장). 둘째,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했다(고전 4 장). 셋째,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고전 5 장). 넷째, 교인들의 문제를 불신자에게 송사하였다(고전 6 장). 다섯째, 결혼의 정결성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전 7 장) 여섯째, 우상의 제물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전 10 장). 일곱째, 은사 발휘의 혼란을 시정하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고전 11-14 장).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방안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다(고전 15 장).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결혼이 더럽혀지고, 은사발휘가 혼란스러운 자는 부활의 질서에 참여치 못한 '육에 속한 자'라는 바울의 준열한 꾸중이다(고전 15:48).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혈과 육에 속한 자라는 엄중한 책망이다(고전 15:50). 바울은 진정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현실에서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실력을 발휘한다고 역설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전 15:55.57.58).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고린도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새 질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구습(舊習)에 젖어 죄에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죄와 세상을 제압하는 부활의 질서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부활절만 지키는 자인가?

16 장에서 바울의 미래 계획을 밝히고 인사로 끝맺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고전 7:19
- 고전 9:16-19
- 고전 10:12-13
- 고전 10:23-33 – 구약 정결법의 신약적 적용
- 고전 12장, 13장, 15장.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날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이며, 그 참된 해결은 말씀으로 돌아 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길 밖에는 없다.
- 고린도 전서 10:12-13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된 다.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런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제 81 일

읽는 범위: 고후 1-13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행 19:23 ~ 20:1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주로 에베소에 공을 들이는 시기이다. 에베소는 한 때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한 도시였다. 이곳은 이방 미신의 중심지이다. 특히 '에베소 주문'이라는 부적을 몸에 지니면 만사형통한다는 미신이 만행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굳건히 성장 성숙시키는 사역을 감당한다.

• 고린도 후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소식이 없어 애타게 기다리다가 빌립보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났다. 그로부터 고린도전서로 인해 교인 전체가 철저히 회개 중이라는 좋은 소식과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유대인교사가 추천서를 받아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한다는 나쁜 소식을 바울은 들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같은 해 가을에 후서를 보낸다. 그 목적은 고린도교회가 갖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함이며(4-6장, 10-13장),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고(8장), 예루살렘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처럼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의 책으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책이다.

고후 1장 ~ 13 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간섭하였기 때문에 자기를 해명하기 위한 또 다른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게 됨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바울의 말을 좋아하지 않는 고린도의 일부 사람들은 그의 평판을 나쁘게 하려고 했다. 이것은 오늘 날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의 가장 자서전적인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영혼의 창(窓)을 열었다. 이 논리적인 사도 바울은 또한 매우 감정적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회심자들의 믿음을 훼방하려고 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를 느낀다. 기독교는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유대인이나 이방의 어떤 종교보다도 한없이 우월했다. 바울에 대한 끈질긴 핍박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명에 대한 헌신을 약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가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편을 더 좋아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기를 원했다. 바울은 만일 고린도의 회심자들이 주님에 대한 진리에 머무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면,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심지어 자신의 명성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자 했다.



---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A.D. 57년)이 있기 2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에 대한 이방교회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바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낌없는 연보를 한 마게도냐인들의 모범을 예로 들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준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모든 성경을 통 틀어 연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연보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내는 것으로 오늘날의 '헌금'과 동일한 말이다. 헌금과 연보를 굳이 구분하자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반면에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은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지정할 때 주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본 서에서 연보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미리 준비해야 한다(9:5).

둘째,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9:8)

셋째, 자기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9:9-10).

그 연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거둔다(9:6).

둘째,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 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9:8).

셋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것이다(9:9-10).

당시에는 바울의 권위를 손상시키며, 예루살렘 교회가 지키는 관습을 강요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 영역이 침범 당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방교회들이 복음 그 자체로 인해 예루살렘교회에 빚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지에 관한 예루살렘교회의 의심이 완화되기를 원했다(롬 15:25-27.) 즉, 연보를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나타내며, 그들의 결속을 견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바울이 가진 사도직의 정당성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 즉 일정한 사명을 부여받아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사도인 것이다. 바울 역시 자신을 사도라고 칭했다(고전 9:1). 이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정당성 입증을 위한 바울의 자기 자랑

거짓 사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므로, 바울도 그것이 어리석은 줄은 알지만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여 사도권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1. 혈통으로 - 대적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이다(11:22).
2. 고난으로 - 사십에 하나를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등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11 :23-33). 바울이 수치스러운 고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3. 영적 체험으로 - 14 년 전에 셋째 하늘(삼층천)에 올라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12:1-7),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12:12).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고후 4장 - 성화의 과정
- 고후 5:17
- 고후 6:14-18
- 고후 8:9-15
- 고후 9:6-15
- 고후 10:4-6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고후 10:4-6 세계관의 변화
- 
- 바울은 다음과 같은 자들을 거짓 사도라고 규정한다.
1.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한다(고후 11 :9, 딤후 6:5, 벡후 2:3).
  2.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한다(고후 10:13. 벡후 2:18),
  3. 사도의 복음과 다른 진리를 전한다(고후 11 :4, 갈 1:6).
  4.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가장한다(고후 11 :13-14, 벡후 3:14).
  5. 결국 그 열매로 그 정체를 알 수 있다(고후 11:15, 마 7:20, 갈 5:19).
  6. 많은 약속을 하지만 결국 영혼을 속박한다(벡후 3:19-20).

오늘 우리 교회의 leadership 과 비교해 보라,

제 82 일

읽는 범위: 로마서 1-1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행 20 : 2, 3

바울은 로마에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썼다.

로마서

바울의 3차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 활동 후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쓴 편지이다. 로마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다.

바울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 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 쓴 서신서이다. 서신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만큼 체계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교리인 죄, 구원, 은혜, 믿음, 칭의, 성화, 부활 등의 중심 교리를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구원 및 이방인과의 관계들을 언급한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義)이다. 즉,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한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롬5:12).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 따라서 '죄'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는 범죄들의 이면에 있는 근원적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롬6:23). 인간의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한 궁극적이고 온전한 해방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요4:14).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롬10:3). 따라서 대속사역을 이룬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세상과 율법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롬 3:21-25).

1장 ~ 8장 : 복음의 교리 : 어떻게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나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은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대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율법으로 신자가 '보호된다'고 말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극단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해도 된다고 가르쳤다. 오직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설명으로만 그러한 오류들을 논박할 수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열망으로 바울은

---

지혜로운 변호사처럼 복음을 증인석에 불러내어 모든 견지에서 철저하게 분석한다. 그 결과가 바로 A.D. 56년 혹은 57년경에 쓰여진 신학의 역작 로마서이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 논리적으로 제일 앞에 나온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를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와 창조에 있어서의 의로움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충족되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의를 한 번 받아들이면 칭의(의롭다 함)라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자라게 하신다. 한편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과 같이 로마서는 교회의 의무를 균형있게 말해 주고 있다. 진실한 믿음은 매일 매일의 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게 해 준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한 칭의적(稱義的) 구원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다. 성화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성화의 과정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12장 이하에서 보여 준다. 성화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시다!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하박국 2:4을 인용해서 설명한다.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성경 하박국 2:4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 바로 로마서의 이 구절이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으로 부터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Martin Luther(1483-1546)가 종교를 개혁을 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Reformation)의 중심 사상은 1)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2) 성경 말씀이 신앙의 최고 기준이며, 3)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제사장(만인 제사장설) 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주어 졌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불행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 문제를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주는 역할 뿐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율법)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받을 때 “시내산 계약”이 먼저 이루어 진 후에 받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라..

---

9장 ~ 11장 : 유대인에게 주어진 복음

바울에 의한 성화의 가르침을 잠시 중단하고(8장까지) 버림받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11장까지 한다. 그들은 복음을 거절함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에 부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불순종을 되풀이 하고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버림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의

특권을 새 이스라엘인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11:17-32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복음은 그 정점이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띤 언급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야가 이 땅에 오시는 글자 그대로의 왕국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확실한 예증(例證)을 고집하고 있다.

12장~16장 : 복음의 적용 :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장~8장은 칭의가 주제였다면 12장 이하의 주제는 성화이다. 구원의 개념은 칭의에서 끝나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 이르기 까지가 구원의 범위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장이 성화의 과정 즉,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은 신위(神爲)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그 핵심 구절이 12:1-2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의 핵심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성화의 핵심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이요, 의식(意識)의 변화라고 바울은 다음의 유명한 구절에서 강조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롬 1:16-17, 18-31
- 롬 3:9-18, 23-24, 28-29
- 롬 5:1-11
- 롬 8:1-17, 26-28, 31-39
- 롬 9:21-24
- 롬 10:9-13, 17-18
- 롬 12:1-2
- 롬 13:8-10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롬 8:1-7 자기중심성
- 로마서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며,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물은 죽어야 된다. 그러하듯 우리도 자기중심성을 제물로 죽여야 한다. 자기중심성을 죽인다는 것은 인위(人爲)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한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분이 주 되심(Lordship)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화의 가장 중심이요, 기본이다. 이런 본질의 변화가 없는 변화는 외식적이고 율법주의적 변화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변화는? 나는 그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제 83 일	
읽는 범위:	사도행전 20-28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행 20: 4 ~ 28장 : 바울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로마 행



♣ 세상의 심장부로 향하는 복음

사도행전의 마지막 삼분의 일(19:21-28:31)은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바울의 여정(旅程)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로마로 향하는 여행을 하게 된다. 사실 이 시련은 이미 앞에서 예언된 일(행 9:15-16, 21:4,11, 23:11)이었고 이 일로 인해 마침내 바울은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변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도 복음을 변호(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제 비록 잡힌 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세상의 심장부로 가지고 간다.

♣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20:17-35)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예루살렘 행을 강행하며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했다(20:17). 도착한 이들에게 바울은 그 유명한 고별설교(18-35절)를 했다.

♣ 바울의 수감생활

사도행전 21:27에서 28:31까지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장기투옥은 이방인을 성전 영내로 이끈 바울(21:28-29)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악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로마 시민권자이었던 때문에 예루살렘 폭도들로부터 로마당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 보호 아래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23:11-35), 로마총독 벨릭스 앞에서(24:1-21), 그 다음 총독 베스도 앞에서(25:1-12) 아그립바 왕 앞에서(25:13-26:32) 심문을 받은 후에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었다.

♣ 로마를 향한 바울의 항해 길(27:1 - 28:31)

행 23:11에서 바울에게 감동된 말씀처럼 바울은 마침내 로마를 향한다(27:2).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세상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사명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항해의 과정마다 죄수라는 바울의 신분과는 달리 구원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1) 가이사랴에서 그레데로(27:1-12) : 죄수의 신분으로 떠나는 로마행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갈망했던 로마(Rome)행 여행길에 오른다. 백부장 율리오의 호송책임 하에 아드라뭇데노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출발, 시돈을 거쳐 광풍 때문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Myra city)에 이르렀다. 거기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니도, 살모네 앞을 통과하여 미항(美港)에 이르렀다. 바울의 경고에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그레데(Crete)의 항구인 뵤닉스(Phoenix)에서 겨울을 지나기로 결정하며 떠난다.

2) 유라굴로의 광풍(27:13-38) : 절망에서 구원으로

바울 일행이 탄 배는 그레데 해변을 행선하다가 광풍 유라굴로(동풍(Euros)+ 북풍(Aguilo)의 합성어로 동북풍 광풍)를 만나 십여일 동안 방황한다. 그러나 파선 직전의 절망적 상황에서 바울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사공들이 도망치고자 하나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려 무산된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 다음날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배는 파산했으나 배에 탔던 276인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다.

3) 멜리데 섬에서(27:39-28:10) :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울 일행은 섬사람들로 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는다. 모닥불을 피우는 중 나뭇가지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리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신(神)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안수하여 낫게 하고, 다른 병든 사람들도 고쳤다. 석 달 후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을 거쳐 로마로 간다.

4) 로마에 도착한 바울(28:11-31) : 셋집에서 보내는 2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다. 도착하여 사흘이 지난 후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변론하고 자신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 설득한다.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 형식으로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 바울의 마지막 생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 로마로 이송되었다(행 21 :27, 28:16-31).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풀려난 후 마게도냐에서 선교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체포된 후 로마에서 재수감되었고, 로마 외곽에서 참수를 당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맺음(행 28:16-31)에서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음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순교적 죽음이 누가 이해한 초대 교회의 땅 끝 정복 이야기에 핵심적 주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기가 아니라, “땅 끝을 향한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는 확고한 신학적 주제를 가진 역사책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행 22:3-3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읽기

- 행 22:3-39의 바울의 간증을 읽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율법에 형성되었던 그의 가치관을 과감히 버렸다는 고백을 깊이 묵상하라, (참고 빌 4: )
- 사도행전 29 장 이후를 쓰며 사는 우리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전파의 사명은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아니한 채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이 책을 끝내고 있다.  
사도행전은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난다. 왜냐하면 성령행전은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실 때, 사도행전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29 장 이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쓰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늘의 행위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제 84 일	
읽는 범위:	빌 1-4 장, 벨레몬 1 장, 골 1-4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바울은 이제 체포되어 로마로 가기 위해 수감 되었다. 그 후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고, 로마의 구금 상태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쓴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 빌립보서

빌립보시(市)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세운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안토니를 패배시킨 뒤, 그를 추종했던 군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빌립보시에 정착시켰다.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으므로 세금이 면제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채찍질을 당하거나 체포되지 않았으며,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등 로마 시민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문명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였고, 이것은 야만족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던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을 더욱 강하게 했다.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다. 빌립보교회에 여성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아마도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여인간의 기독교인의 완전함에 대한 교리문제로 서로 두 파로 갈라질 정도가 된 것 같다(빌 4:2). 이 분파 문제를 서두에 꺼내지 않고 서두에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낮아지심과 온유하심과 고난 받으심을 그들이 깨닫게 한 다음 끝장에 그것을 지적한다. 이 들의 단합을 위해 '모두' 라는 단어를 많이 써 가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떨 때 깨어지고 연합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로서,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하인을 대신하여 그 주인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이 대해 주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그 노예는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무렵, 바울은 그의 셋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 자신도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 그때가 AD 61~62년경이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오네시모의 이전 주인은 우연히 바울의 친구이자 동료 신자였던 빌레몬이었다. 바울은 도망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다.

골로새서 – 세계관 싸움이 치열 했던 곳,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에서 약 19 km, 고대 브라기아 남부 지방의 루커스강 계곡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동방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뿌리를 내린 곳이었다. 골로새가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과 브리기아인,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곳을 찾아왔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으로 인하여 그 도시는 흥미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동방으로부터 들어온 온갖 종류의 새로운 사상과 교리들을 논의하고 숙고하였다.

바울이 A.D. 62년경에 골로새의 충성된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의 메시지는 그 후 수세기에 걸쳐 필요했다.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말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 편지로 쓰게 하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근거하여 성도들은 세상 철학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주께 합당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빌 2:6-11 –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한 겸손
- 빌 2:12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빌 3:7-9
- 빌 4:4-13
- 골 1:9-21 – 그리스도의 충족성.
- 골 2:6-10, 20-23
- 골 3:1-17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 구별된 삶** 성경을 삶으로 읽기

- 세상의 윤리는 겸손을 당위로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기반이 취약하다.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요청할 뿐이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윤리(건덕)를 요구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을 피하고 겸손할 것을 요청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빌 2:3)

윤리적 덕목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일까?

빌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구속(救贖)의 행동을 기반으로 겸손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한다. 예수님의 구속의 행동을 기초로 겸손의 미덕이 발휘될 수 있음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다. 이때의 겸손은 나 자신의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미덕이 된다. 즉,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적인 미덕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갈 2:20) 그분의 미덕이 발휘된 것이 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기수양과 완성으로 발휘되는 세상의 윤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미덕이 발휘되려면 예수님의 구속의 행동에 확실히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자신은 구속주 예수님께 접붙여 삶의 원동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다. 초대교회의 복음은 곧 이런 세계관 충돌이고, 문화 충격이었다. 오늘 우리의 성경적 양육 프로그램은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인과 한국 교회는 무속, 불교, 유교, 민간신앙 등이 뒤섞인 이 시대의 한국 문화와 과감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것이 창세기 1:26-28의 정신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멸하라”는 명령의 실천이며, 우리 관점 3의 구별된 삶을 사는 길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 된다, 시대 문화와의 싸움이 세계관의 싸움이고, 곧 영적 전쟁이다.

-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를 옛 율법으로 옳아매는 세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했다고 증거한다(골 1:13-23). 이제는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거한다(골 2:20).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온갖 의식적(儀式的)인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유의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다. 이 자유의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착념하는 것은 자의적(自意的) 종교를 고안해내는 것이요 자기 이익을 쫓는 행위이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골 2:23)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데서 벗어나 오직 위의 것을 찾아야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골 3:1)

제 85 일	
읽는 범위:	엡 1-6 장, 딤펢 1-6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에베소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다이애나라고도 불리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본고장이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아데미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신은 없었다. 그러나 바울 당시 에베소는 그 항구에 배가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무역 중심지의 위치를 상실했다. 그때로부터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 되었다.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객과 순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으로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이 부자가 되었다. 은장색들은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 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숭배자들로 인하여 여관과 식당 주인들은 부유해졌다. 심지어는 신전의 회계가 은행 역할을 수행하여, 왕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대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데미가 성(性)의 후원자였으므로 창녀들은 마블가(Mable Road)의 이층집에서 몸을 팔았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아데미 숭배 외에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마술과 요술을 부렸으며 그 내용을 기록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에베소로 보내 거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한 교회를 불러내셔서 이 도시의 마술적 흑암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D. 60-62년 경 바울이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이 서신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운지 약 10년쯤 지난 후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전으로, 인간의 몸을 신부로 비유했다. 그의 몸의 구성원들은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4:1-3). 그의 몸이 연합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4:4-6). 그의 몸을 세우기 위한 갖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다(4:7-16). 그의 몸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깨달아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친다.

#### 디모데전서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할 때 믿게 된 사람으로서(행14장, 딤펢1:2)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의 성장이 빨랐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서바나(스페인)로 가기 전에(롬 15:24, 몬 1:22) 에베소를 들렀다.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 일을 연소한 디모데에게 맡긴 것이다. 성격이 소심하고 민감했던(5:23) 그에게는 그 일이 힘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원숙한 지혜로(바울 나이 70세) 그 젊은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해 이 목회서신을 쓰게 된 것이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바울은 30여 년간 큰 희생을 하였다.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갈 6:17)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고통도 그의 심령에 새겨진 교회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에 비할 수는 없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연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계속 쫓아갔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다.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바울의 방문이 지체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또 항상 상기해야 할 진리, 성도 앞에 제시할 문서가 필요하리라는 생각에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다. 이 편지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한 유산이 되었다. 그때가 A.D.62 년경이었다. 이 서신을 가르쳐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그것은 목회에 근간이 되는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엡 1: 20-22
- 엡 4:17-23
- 엡 4:27 – 엡 6:13-18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 엡 5:15-21
- 딤후 4:6-8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에베소서에는 바울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en Christos)가 35 번이나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울의 표현과 우리 통통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성 내려놓기”는 같은 개념이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는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信者인가? 神子인가? Churchian 인가? Christian 인가?

-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는가?

에베소는 우상 아데미 신앙의 본거지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영적 전투를 강조하고 있다(엡 6:10-20). 이는 실제적으로 에베소가 영적 적대 세력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에는 세계 7 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데미(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다.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 바울이 이 아데미 신의 본거지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행 19:23-41).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강력한 에베소에 이제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경성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복음의 싹이 밟히고 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투이기에 단순한 측면이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또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전투이기에 훨씬 치열하고 심오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무장(武裝)도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엡 6:10,11)

☞ 하나님의 전신갑주 (the Armor of God)

허리 띠 (Belt) - 진리 (Truth)

흉배 (Breastplate) - 의 (Righteousness)

신 (Sandals) - 평안의 복음 (Gospel of Peace)

방패 (Shield) - 믿음 (Faith)

투구 (Helmet) - 구원 (salvation)

성령의 검 (Sword of the Spirit) -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

위의 무기는 성령의 검을 빼고는 다 방어를 위한 무기임을 명심하라. 그 모두는 다 앞을 방어하는 무기들이다. 사탄에게 뒤를 보이면 안 된다.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탄을 공격하는 데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열심히 말씀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긴 사실을 명심하라.

마귀가 틈타기 아주 쉬운 3 가지 상황 - 에베소서 4 장

1) 불화 (Disunity) 주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 4:1-13

2) 미성숙 (Immaturity) 영적 거듭남이 없거나 예수를 닮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 4:14-16

사랑과 진리로 성숙하고 충만하라. 사탄은 거짓쟁이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맥을 못 춘다.

이간자이기에 사랑 앞에 맥을 못 춘다 (벧전 1:22-2:3)

---

3) 불결 (Impurity) - 구습을 청소해야한다 - 4:17-32.

•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할 목자의 사명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거짓된 교훈을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전파해야 될 목자의 책임을 일러주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교회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율법 교사들의 이단사설이 에베소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다. 복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첨가하려고 했다(딤후 4:7, 6:20). 바울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주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말 함)에 맞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되 말과 행실에 본이 될 것을 당부한다(딤후 4:10-16).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히 권징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 났느니라” (딤후 6:12, 20, 21).

더욱 세속화 되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죽어도 해야 할 일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목회자는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야 한다 !



제 86 일	
읽는 범위:	디도서 1-3 장, 딤후 1-4 장, 벤티전 1-5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포로시대	

### 디도서

그레데인들은 소란한 민족 중의 하나로서 민족성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많이 하며 악한 짐승과 같이 자기 배만 위한 게으름쟁이들이었다. 이런 곳에 세운 교회에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악덕을 일삼으며 허탄한 논쟁(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즐기므로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미혹한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 경계할 것과, 디도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의 사슬에서 벗어난 후 분명히 그가 디도를 그레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그를 남겨 두었다는 것이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두었던 것은 그레데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딤후 1:5).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방종하고 게으르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디도에게 당부한다(딤후 1:12,13).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방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복음의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救贖)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바울이 디도서를 쓸 때는 A.D. 62년경이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되돌아가 마지막으로 투옥되리라는 사실을 몰랐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이고 디도데 전후서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 디모데 후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에 서서 진리를 가르침에 충실하라고 이 편지에서 권면한다. 이단에 대한 경고와 열심을 내도록 또한 용기와 인내를 권면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때가 A.D. 약 64년경 이었는데 (A.D. 67년경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의 심령에 디모데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목회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상기시키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재촉해야 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의뢰하셨다(1:12). 바울에게 위탁하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1:11).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복음을 지키라고 위탁한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

지키라”(1:13-14).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복음을 부탁하고, 그들은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종국에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마 28:19-20).

### 베드로전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믿음에 관하여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를 시정해 주기 위할 뿐 아니라 시험과 박해(고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다. 4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용기 있고 급한 성격에다 세상 권력에 야심이 있었지만 이 서신서에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 뱀전 1장 ~ 5장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양들이 흩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열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다가 올 환난에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킨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환난은 비교적 가벼운 듯했다. 기분이 상한 바리새인들은 가르침과 표적으로 예루살렘을 뒤엎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 했지만, 그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어 보였다.

그런 후 첫 번째 돌이 던져졌다. 첫 순교자 스테반이 땅 바닥에 쓰러졌다. 사울은 스테반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다. 스테반의 죽음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도를 좇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결박할 허락을 얻어 냈다. 그러나 사울의 숙청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뀐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헤롯왕은 믿는 자들에게 적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은 로마의 다른 영토로 흩어졌다. 그러나 네로의 시대가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드디어 유대 지경을 넘어 확대되었다.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로마를 재건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네로는 시민들의 관심을 자기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속죄양이 필요했고, 결국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돌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환난에 대비하여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다.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을 약 A.D. 63 - 64년 경 네로의 박해 직전에 썼다.

네로는 A. D. 68년에 죽었는데, 그보다 먼저 베드로가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베드로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

이 편지는 신자의 구원(1:1~2:12), 신자의 순종(2:13~3:12), 신자의 고난(3:13~5:14)이라는 주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딤후 1:7 – 감독(사역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다.
- 딤후 3:1-5 특히 5절의 의미를 잘 파악하라.
- 딤후 3:14-17
- 딤후 4:3-4 – 회개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외워두라.
- 벰전 1:23-25
- 벰전 2:7-9 –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 벰전 2:18-25
- 벰전 5:7-9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디도서 - 선한 행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 - 그레데 사람들의 방종.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세례를 받기만 하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교회 교인들도 저들의 행실이 불신자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다(행 2:47).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들은 선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반법주의(反法主義 antinomianism)는 기독교에서 설 자리가 없다. 디도서는 이 사실을 중점으로 교훈하고 있다.
- 권징이 있어야 하는 교회는 "좋은 게 좋다"는 사고방식을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실천하라.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를 좀 먹는 사탄의 유혹임을 직시하라.
- 딤후 3:15-17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힘은 모든 것을 깨우쳐주는 교훈의 기능,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책망의 기능,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잡는 바르게 함의 기능, 성경의 진리로 그 시대의 백성을 가르치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을 갖고 있다. 15 절은 개인 구원, 16 절은 사회 구원, 17 절은 총체적 구원을 말한다. 먼저 한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온 사회로 확대 적용하고, 그래서 온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 딤후 4:3-4 을 묵상하라. 당신은 당신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성경공부,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인가?

• 뵤전 2:9 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그 의미가 무엇이고 과연 그런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 1) 소속의 변화, 2) 제사장 나라, 3)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 구절과 연결 시켜보라, 성경은 이렇게 통전적으로 관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 베드로 전서 5:2-4 "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지도력의 3 가지 원칙

- 1)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것.
- 2) 이권을 따라 일하지 말고 명분과 뜻을 따라 할 것.
- 3)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되 술선수범으로 섬기는 자세로 할 것 등을 말해 주고 있다.

• 뵤전 5:7-9 을 묵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당신은 사탄과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가?

사탄의 존재가 있어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이라도 하는가?

제 87 일	
읽는 범위:	유다서 1 장, 벵후 1-3 장, 히 1-7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교회시대	

### 유다서

이 서신의 기록자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막 6:3)로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자로서(3,17,20절) 그가 초대교회의 배교자들이(Apostates) 고의로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믿음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자 그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하면서 경고적인 선언의 강도를 매우 강하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교회에 나오는 신앙심이 없는 자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가장 준엄한 내용을 지닌 책 중에 하나이다.

유다는 사도도 아니었고 자기 형제 야고보처럼 교회의 기둥도 아니었다.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일부러 내세우지 않는다. 유다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요한복음 7:5)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유다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마태복음 1:20)의 임재 가운데서 성장했다. 그러므로 유다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와 그들의 타락과 잘못 된 교리에 대해 경고하고자 썼다.

생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붙들리어 변화되었다. 한갓 어부였던 베드로,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자신의 가장 암울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양떼들의 안녕이 그의 마음에 가장 걸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

베드로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의 성품 배양(1장), 2)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2장), 3)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3장)이다. 베드로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배양할 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진리에 관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강조한다. 특별히, 성경은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한다. 1장 21절은 영감(靈感, Inspiration)의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과정에 관해 놀랍게 묘사하고 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그들의 부도덕한 생활, 무익하고 파괴적인 가르침, 확실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강조는 거룩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촉진되었다.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거룩하고 흔들림 없으며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다.

### 히브리서

유대인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받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그들의 제단이나 제사장 등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성도라는 귀한 신분을 생각 못하고 그들이 당장 겪는 핍박에서 오는 고난만 생각하면서 타락으로 빠지게 되자 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 누군가가 이 편지를 썼다. 실망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사역을 언급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면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분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히4:15) 거룩한 제사장, 구속자 제사장, 사도인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시기에 모두가 이 분을 향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더 큰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상급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다.

□ 히 1장 ~ 7장 - 우리의 참 구원자 예수.

이제는 구약적인 제사 방식의 예배로 돌아 갈 수 없다. 그러나 그 정신은 따라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 성전 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성전에서 화려하게 드리는 제사를 잊지 못하였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전 제사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차하면 성전 제사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으므로 예배에 굳게 설 것을 권유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 했다(히 10:19-25).

진정한 예배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고 새로운 예배 방식을 창조한 예수님은 천사보다 큰 자이고(히 1:4-2:18),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떠받드는 모세보다 큰 자이고(히 3:1-4:13),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큰 자이고(히 4:14-7:경), 구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 보다 큰 자이기 때문이다(히 11:1-12:2).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救贖)을 완성하시자 이 모든 그림자들은 철폐되었다(대하 7:11-10:39).

이제 구약적인 그림자의 예배 방식은 철폐되고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전인적(全人的)인 예배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 13:15-16),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벨후 1:3-11, 20-21
- 벨후 3:8-10
- 히 4:12
- 히 7:27 – 영 단번의 제물.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유다서를 읽고 권징에 대해 묵상해 보라. 오늘 교회에 이런 권징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을까? 딤후 4:3-4 과 연계해서 판단해 보라. - “좋은 게 좋다”가 만연하는 교회.  
번영신학과 시장원리가 교회의 지배 원리가 된 이 시대에 권징이 바로 서야 하지 않을까?

권징을 시행하라

유다는 묵시문학중 하나(에녹서)를 인용하면서 부도덕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선포한다(유 14-16 절). 그런 다음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성장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구출해낼 것을 권면한다(유 17-23 절).

우리는 유다서에서 교회 안에서 이단사설이 퍼지는 것을 얼마나 정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운다. 또한 교회가 바른 가르침은 권장하고 잘못된 가르침은 징계하는, 권징이 살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 히브리서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 히브리서의 3 대 주요 동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3:1)

예수를 바라보자(12:2)

그에게 나아가자(13:13)

제 88 일	
--------	--

읽는 범위:	히 8-13 장, 요일 1-5 장, 요이 1 장, 요삼 1 장
--------	------------------------------------

###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교회시대

- 히 8장 ~ 10:18 : 갈보리에서의 새 언약 –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

#### 신약의 레위기, 히브리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중대한 화가 된다(사6:5).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위를 통해 엄격한 희생 제사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다. 하지만 신약에는 온전한 제사법이 등장한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앤 제사, 즉 단 한 번만으로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영단번의 제사)이다(9:12).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제사법을 언급한 ‘신약 속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다(9장~10장). 히브리서는 19곳에서 레위를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특히 9장을 보면 레위기 16장이 집중적으로 인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욥 키푸르, Yom Kippur)의 제사법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8장).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 더 뛰어난 제사임을 언급합니다.

-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인 11~13장은 신앙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비추며,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호소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도리어 세상의 압력에 따라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약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으로부터 영감 받은 삶의 유형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들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도전한다.

#### 요한 1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초대교회에 개종한 유대교도와 이방신자들이 그들이 전에 가졌던 믿음에 관한 이론들로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려 했다. 이들로 인해 이단과 배교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잘못은 특히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고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들만이 진정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사도적 신앙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 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였다(요일 1:1-2).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박하고(4:2-3), 참 성도는 계시에 의해서 참 지식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믿음, 사랑 같은 단어가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동사적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주님은 마지막 추수의 때에 좋은 열매와 가라지를 가려내실 것이나 그때까지는 한 밭에서 자라도록 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마 24:24-30). 즉, 한 교회 안에서도 참 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요한의 서신을 수신했던 교회에서 일부 신자들이 분리되어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본래 참 신자였다가 타락했다기보다는 사실 참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증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1)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신앙고백(요일 1:2, 2:18-27, 4:1-6, 5:1-12)
- 2)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요일 2:3-11, 3:11-24, 4:7-21)
- 3)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요일 1:5-22, 2:28-3:10, 5:13-21)

요한일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 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요한일서가 제시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상(像)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 요한 2서

거짓 교사를 모르고 받아들인 한 부인에게 참 진리에 대하여 알리려 한 것이다.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들을 돕거나 대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

요한 2서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며, 거짓 교사들을 피할 것에 대한 권고가 담겨 있으며,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내용이 흡사하다.

### 요한 3서

초대교인 중에는 세상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부유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전도인들이 일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 요한은 이 교회에 서신을 보냈으나 그는 그 서신을 거절하고 그 사도권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9절).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다시 써서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한다. (5,6,8절). 또한 후에 그 교회를 방문할 때 핍박자를 엄히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10절) 이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세 인물이 등장한다. 첫째 가이오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인물로, 디오드레베는 교회 일을 맡았지만 교만과 오만한 자로,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일을 맡은 자들 중에 혹시 자신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격으로 봉사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에 있으며 거짓말하는 위신자일 것이다. 15 절로 이루어진 요한 3 서는 요한 1 서와 같이 진리를 강조하고, 사랑을 권면하며,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를 예로 들면서 참 성도의 모습에 대해 교훈한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 히 8-9장 – 영단번의 제물 –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구속사의 흐름
- 히 10:19-25
- 히 11:1-3, 6
- 히 13:1-19
- 요일 1:6-10
- 요일 2:5-6, 2:15-17(지켜 행하기를 강조)
- 요일 3:8 – cf 창 3:15
- 요일 3:13-20
- 요일 4:20-21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요일 3:13-20 과 요일 4:20-21 을 깊이 묵상하세요. 사랑과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임을 사도 요한 매우 강조한다.—당신의 믿음과 사랑은 뜨거움이 있고, 실행함이 있는가? -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 89 일	
읽는 범위:	요한계시록 1-11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종말	

####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 1세기 말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극악한 박해에 직면해 있을 때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어 박해를 견디도록 격려함에 있었다. 극심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 이런 극심한 시험은 말세에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여 악의 세력은 무저갱으로 영원히 멸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계시록이 쓰여진 이유이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 오래 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새 창조에서 완성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최초의 에덴이 망하게 된 배후 세력인 사탄을 박멸하고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15에서 이미 선전 포고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전쟁이고, 말세는 그 최종 승리를 향한 마지막 정리 단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다. 사탄은 그 마지막 때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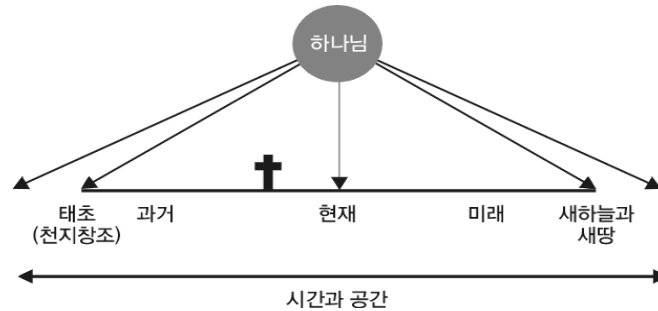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은 “축복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1:3, 14:13, 16:15, 19:9, 20:6, 22:7,14 등에서 여섯 개의 다른 “축복들”을 찾아보라.

또한 이 책은 “역사(history)가 주님의 이야기(His Story)”인 것, 곧 인간사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을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예비하기 위해 격려를 받아야 하며, 섬기도록 영감을 받으며,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Revelation은 원래 ‘벗기다’ 또는 ‘폭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많은 상징들로 인해 그 내용이 가려지고 닫혀 있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대표적인데, 그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의도적으로 집필하지 않았다. 반면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쓰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수많은 이단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신비하고 알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때문에 한낱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접근하면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음을 겸허히 인식하면서, 가능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요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① 원근 통시(telescoping of time)



② 계시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Kairos)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시간(Kronos)의 개념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의 호기심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③ 계시록은 펴박받는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유효하다. 계시록 1:5-6의 말씀에서 이 점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① “사랑하시려고” 창조했으나 우리가 죄를 범해 그 나라를 잃어 버렸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②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어”, ③ 그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관점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한다.

\* 천년 왕국설

- ① 전 천년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견해.
- ② 후 천년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 끝에 재림하신다는 견해.
- ③ 무 천년설, 즉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라는 견해.

♣ 계시록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 ① 요한이 본 일 : 1장
- ② 이제 있는 일 : 2~3장 일곱 교회에 있을 일.
- ③ 장차 될 일 : 4장 이후의 일들

※ 심판 시리즈의 배열에 대한 견해

축적 배열	심판이 반복되면서 심판이 강화된다.	대접 나팔 인
연속 배열	21개의 심판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인    나팔    대접
끼워 넣기 배열	일곱째 인이 나팔 심판을 소개해 주고, 다시 일곱째 나팔이 대접 심판을 소개해 준다. ( 일곱째 인 = 일곱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 일곱 대접 심판 )	

- 1) 축적 배열은 인 심판 시리즈가 있는 후에 더 강화된 나팔 심판이 그 다음 더 강화된 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어 진다고 보는 견해.
- 2) 연속 배열은 각 시리즈의 심판이 이,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견해.
- 3) 끼어 넣기 배열은 인 심판의 일곱 번째 재앙은 그 다음 시리즈인 나팔 심판을 품고 있고, 나팔 삼판 7번째 재앙은 그 다음 시리즈인 대접 심판을 예고한다고 보는 견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끼워 넣기 배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일곱 번째 재앙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재앙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 권면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라는 권면과 사도행전 1:8 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와의 관계성을 매우 깊이 묵상하라.
- 인위를 신위 앞에 내려놓아라 라는 매우 심각한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가 문제를 일으킨다.

제 90 일	
읽는 범위:	요한계시록 12-22 장
하나님 바로 알기 –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 파악하기 - 종말	

• 계 12장 ~ 16장

나팔 재앙과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있기 전 그 중간에 일어나는 재앙이다.

12장~14장은 계시록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한 여자를 삼키려는 붉은 용의 대결(12장)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두 짐승(13장) 등 어둠의 권세와의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지만, 그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며 보호 받는다는 것이다.

14장은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계시해 보여 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다.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다 죽임을 당한 신실한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인 것이다. 14장은 세 천사에 대한 심판의 예고, 알곡인 신자의 구원, 포도송이로 비유된 불신자들의 심판이 주요 내용이다.

• 계15장과 16장은 마지막 재앙인 대접 심판이 준비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여 줍니다.

• 계 17장 ~ 19장: 죄악의 도성과 적그리스도

17장~18장 일곱 번째 대접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17장에는 음녀의 등장과 그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있는데, 음녀와 바벨론은 동일 한 것이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으로 하나의 연속적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19장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대 환난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최후의 전쟁에 의한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나오고 있다.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찬양(1-5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6-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11-18절),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19-21절)의 순으로 묘사 되고 있습니다.

• 계 20장 : 천년 왕국

• 계 21장 ~ 22장 :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 1-3장		요한계시록 20-22장
창조	구속	새창조
A	†	Ω
창세기 1-3장	요한계시록 20-22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1)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1:5)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1:25)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2:17)	"다시 사망이 없고" (21:4)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나타난다 (3:1).	사탄이 영원히 사라진다 (20:10).	
뱀의 최초의 승리 (3:13)	어린양의 최후의 승리 (20:10; 22:3)	
"내가 네게...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3:16)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21:4)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3:17)	"다시 저주가 없으며" (22:3)	
아담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잃는다 (3:24).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회복된다 (22:14).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다 (3: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22:4)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에 관한 책이다. 이런 말이 있다.

"종말은 창조를 완성하고, 창조는 종말을 전망한다."(Eschatology is Protology; Protology is Eschatology.) 이것은 구속 역사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며 에덴의 회복이다. 요한계시록 21~22장은 타락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세기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창조, 구속, 새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역사의 종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이다. 사탄의 간교에 속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첫 약속처럼 그 대적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적 싸움은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다. 그 나라의 완성은 대적 사탄을 최종적으로 무찌르고 그를 무저갱에 버림으로 하나님이 최종적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잃어버린 낙원, 에덴이 온전히 회복된 것이다. 계시록은 그 새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계시록 21:1-2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

† 계시록 22:1-2

“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야 말로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복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 졌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소망이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싸움을 이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이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날 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새 이스라엘로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 계시록 22:20-21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맺기 아래 구절들을 깊게 묵상하세요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기 성경을 삶으로 실현하기

이 순서대로 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삶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